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0월 24일(음력 9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650 호

“참회합니다”

조계종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 개최
19일 1만 사부대중 ‘부처님 법대로 살자’ 결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중생에 아픔을 주고 걱정을 끼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어 있음을 참회합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참회문을 낭독하자 참석한 1만여 사부대중은 합장 반배로 참회의 의지를 다졌다. 10월 19일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에서 봉행된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는 참회와 자정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또한 청담, 성철, 자운 스님 등이 주축이 돼 왜색불교의 폐단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1947년,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혁신에 나섰던 비장한 ‘봉암사 결사’ 정신을 되살려 최근 어수선해진 종단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종단 안팎에서 불어오고 있는 위기의식은 참회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만일, 지금의 현상을 단순한 외부의 음해와 몰이해로 구실삼아 무사안일한다면 교단은 더 큰 위기와 재앙에 휩싸일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대의 수행 정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산선문의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불교계의 폐습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하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는 결사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조계종 종무원장 지관 스님도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우외환을 겪으며 우리 스스로의 수행가풍을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옛 조사와 선지식들의 큰 뜻을 기리며 오늘의 불교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결사 운동을 조직하는 날로 만들어야한다”고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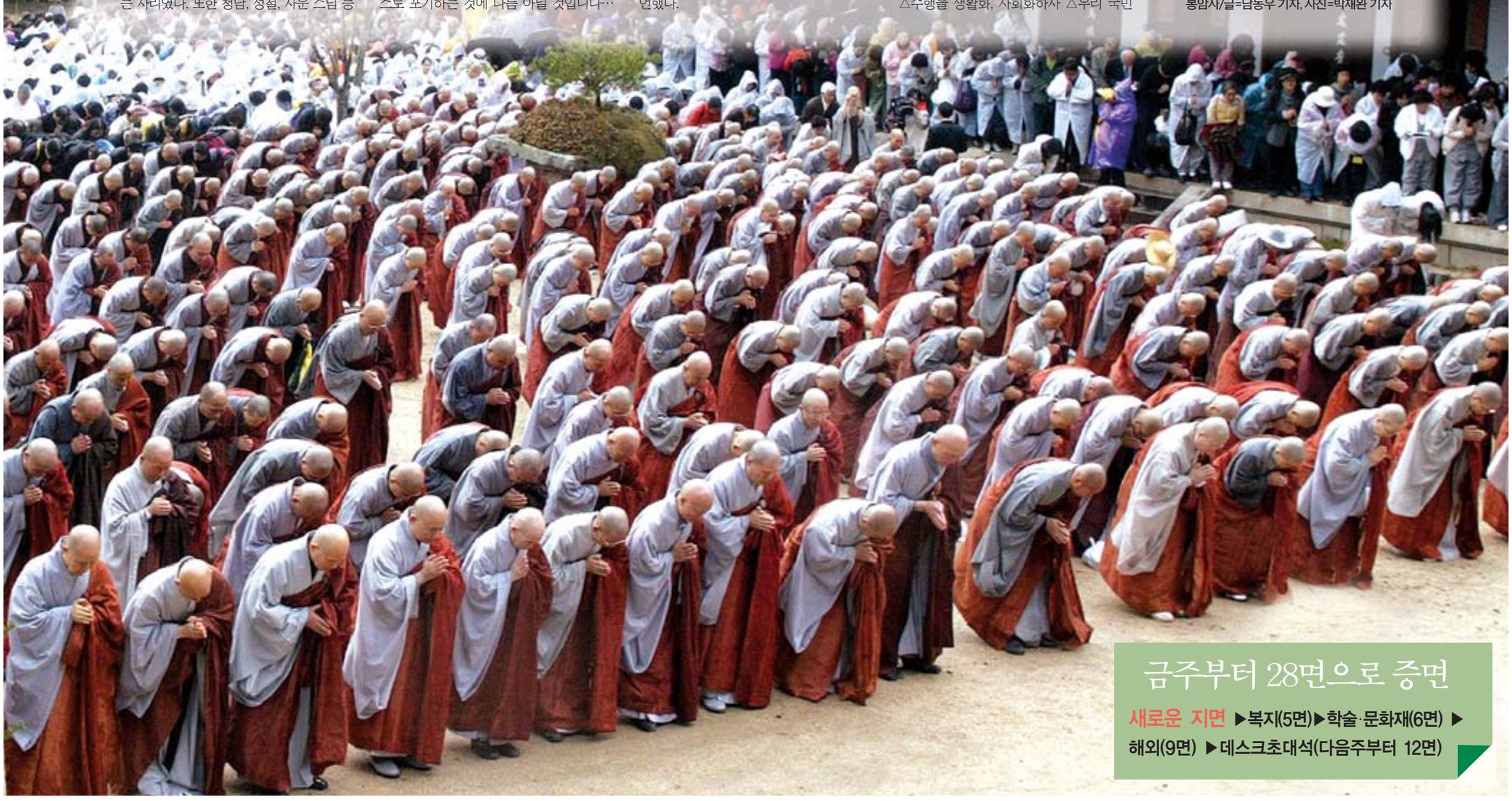
참가자들이 참회를 위해 일제히 좌선 입정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도 “여기 모인 대중은 역순(逆順)을 자제하는 기틀로 곧은 것과 굽은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시방의 종지(宗旨)가 한 곳으로 모일 것이요, 정(正)과 사(邪)의 시비가 원융(圓融)을 이룰 것”이라고 법어를 내려 장내를 숙연케 했다.

이날 동참한 사부대중은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 선언문에서 3대 실천지침을 통해 △일체의 명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자 △수행을 생활화, 사회화하자 △우리 국민 각자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선언이 선언으로 그칠 지, 보조 국사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는 말씀처럼 잘못된 자리에서 자정하고 참회해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 몫은 여전히 불교계에 있다.

한편 봉암사는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희양산(998m)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자리잡은 조계종 종립특별선원으로 선승들의 수행 환경을 지키기 위해 25년간 산문을 폐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봉암사/글=남동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금주부터 28면으로 증면

새로운 지면 ▶복지(5면)▶학술·문화재(6면) ▶ 해외(9면) ▶데스크초대석(다음주부터 12면)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 안국선원 전경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051)583-0993~4 / 서울 : 02)732-0772, (744)0722 / 홈페이지 www.ahnkookzen.org

봉암사결사 60주년 기념 대법회

'부처님 법대로' 수행종풍 계승 결의



봉암사 대웅보전 앞에 마련된 법단. 사진=박재완 기자

현장 이모저모

○…빗속에서 진행된 법회

법회가 시작되기 20여분 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경내가 어수선해졌다. 대웅전 앞마당에 깔아 놓은 자리가 비에 젖자 철거하는 소동을 빚기도. 결국 행사는 예정보다 10분 늦게 시작됐으며 참석한 사부대중은 고스란히 비를 맞았다. 하지만 점차 빗줄기는 잦아들어 법회 막바지에는 비가 거의 그쳤다. 비 때문에 예정됐던 참석대중의 장궤합장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종단 자정·참회 요구 높아

법회는 최근 종단 상황을 반영하듯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는 기쁨보다는 종단 구성원들이 참회와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부처님 법대로' 정신을 이어받아 제2, 제3의 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법회에 참석한 한 재가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현 종단 상황을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장윤·영배 스님 등 불참

봉암사에 참석 사부대중을 실은 버스만 200여 대 도착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하지만 스님은 1000여명도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또 계파정치의 진원지인 중앙종회의원스님 또한 20~30여명 밖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참회와 자정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장윤, 영배 스님 등 동국대 관련 스님들 또한 법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 봉암사=남동우 기자



법전 스님 법어

조계종 종정

가을 금풍(金風)이 자리를 지나가니
진여본체(眞如本體)가 드러나고
산새울음 소리가 이 산중(山中)에 가득하니
법계(法界)가 일가(一家)를 이루도다.
산빛 물빛이 다른 물건이 아니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시방법계(十方法界) 부처로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삼세제불(三世諸佛)이 출현(出現)하고
옮기는 걸음마다 안락처(安樂處)가 아님이 없도다.

흐르는 물소리는 대승(大乘)의 돈설(頓說)이요,
맑은 바람은 종풍(宗風)을 연설(演說)하도다.

이 가운데 시비(是非)를 뚫고 지나가는 관문(關門)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 하면 종지(宗旨)를 잃을 것이요,
없다 하면 득실(得失)에 걸릴 것이다.

오늘 산승(山僧)이 본분철추(本分鐵鎚)를 한 번 치니
수미산(須彌山)이 바다 위로 걸어가고
구름 위에 철마(鐵馬)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

여기 모인 대중(大衆)은 역순(逆順)을 자제하는 기틀로
곧은 것과 굽은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시방(十方)의 종지(宗旨)가 한 곳으로 모일 것이요,
정(正)과 사(邪)의 시비(是非)가 원융(圓融)을 이룰 것이다.

불기 2551년 10월 19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도 림 법 전

참회문

우러러 발원하옵나니,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께 무릎 꿇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의 향화를 올리며 귀의하나이다. 오늘 봉암사 청정수행도량에 모인 저희 불문조종(佛門祖宗)의 후학들은 그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옵나니, 자비로써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했고, 수행보다는 명리를 탐하였으며, 칭찬보다는 비방을 일삼았으며, 지혜보다는 지식 얻기를 즐겼으며,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행인의 본분은 망각하고 교만과 방일만 늘어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에 불교계를 대상으로 한 세간의 평가가 일부의 그릇된 인식과 의도적인 음해의 요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불교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의 현상을 단순한 외부의 음해와 몰이해로 구실삼아 무사안일한다면 교단은 더 큰 위기와 재앙에 휩싸일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대의 수행 정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곳 봉암사 역사의 자리에서 예참(禮懺)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은 60년 전 청담, 성철, 자운 스님 등 청정납자들의 자정과 혁신 운동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닌 바로 지금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결사 자세로 돌아가서 지금의 수행 풍토를 점검하고 솔직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제2의 결사 운동을 주창할 시절인연이 도래한 까닭이옵니다. 이제 우리는 구산선문의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불교계의 폐습이 있다면 과감히 혁신하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회복하는 결사의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저희 참회제자들은 이제부터 수행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중생의 아픔을 살피고 중생제도의 서원을 굳건히 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참회하나이다.

1.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들어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의 밝은 빛이 되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2.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중생에 아픔을 주고 걱정을 끼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가 되어 있음을 참회합니다.

3.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소임을 맡고 실행함에 있어 대중을 소중히 여기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이해와 아집으로 이를 그르쳤음을 참회합니다.

4.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진하라, 무명을 떨치라, 상을 버리라 외쳤지만 정작 우리는 게으름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5.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승가 공동체는 무엇보다 '화합'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음에도 편 가르기와 차별에 빠져들어 '화합'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6.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우리 내부에 작은 허물이 있을 때 바로 드러내어 치유하지 못하고 남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하여 수수방관하고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며 냉소하였음을 참회합니다.

7.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용맹정진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거늘, 명예와 이익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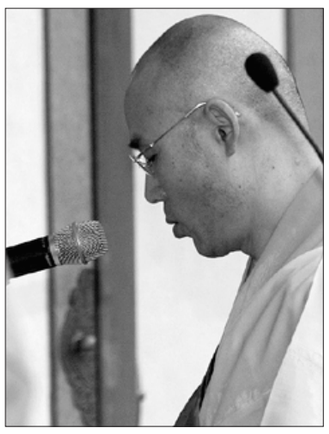
8.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율장의 전통과 종헌 종법의 절차가 우리 스스로 존중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도, 우리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간의 질서와 규율에 더 집착하였음을 참회합니다.

9.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부끄러이 여길 줄 알며 남을 기꺼이 존중하고 칭찬하여야 함에도,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하였음을 참회합니다.

10.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큰스님들의 결사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허물을 가슴깊이 참회합니다.

(하략)

불기 2551년 10월 19일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 동참대중 일동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영진 스님이 참회문을 낭독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울산지사 : (052)272-0909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교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강의를 하고 있는 곳, 가장 품격있게 대소승의 경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곳, 가장 심도있게 종파불교와 여타종교를 비교분석하는 아미타도량 원효센터에서는
원효센터 4층건물 개관기념으로 대승기신론 해동소 별기 6기 수강생을 특별 모집합니다. 인도의 마명보살이 짓고 신라의 원효대사가 심혈을 기울여 풀이한 이 금과옥조같은 논서는
죄업에 허덕이는 삼계중생을 우주의 제왕인 부처로 탈바꿈 시켜주는 깨달음의 과정을 완벽한 논리로 체계화시켜 일목요연하게 기하학적으로 정밀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저술은 이제까지 밝혀진 것만 하여도 102부 302권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도 동서양의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극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생들의 마음인 일심을 적나라하게 풀이한 대승기신론 해동소라는 불세출의 명작입니다. 부처는 일심을 쓰지 않으면서도 쓰고 중생은 쓸 줄도 모르면서 쓰고 있습니다.
무릇 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특별한 기회에 원효성사의 일심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해설의 숨결을 감동스럽게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대승기신론 해동 소·별기 만을 독보적으로 심층 연구 강의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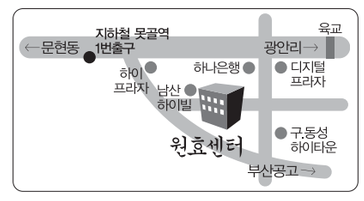
경 원효센터 개관 축

海東 疏·別記
6期회원 수강신청 받습니다
- 4,5期회원 현재 수강중 -

개강안내
■법 사 : 공파스님
■개 강 : 11월 2일(금) 오후8시
■장 소 : 원효센터 智悲光殿
■기 간 : 1년
■인 원 : 선착순 20명
■입회비 : 10만원 ■월회비 : 10만원

법회안내
■1부 : 단체 예불 및 장엄염불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9시반
■2부 :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4기 수강 중 /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5기 수강 중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9시반
대승기신론 해동 소 별기 6기 모집 중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반
■3부 : 일반신자, 중급교리 및 장엄염불 / 신행 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반
일반신자, 기초교리 및 장엄염불 / 모집 중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반

■공파스님 저서
• 부처님의 유언
• 천수경의 원본경전
• 극락세계 1, 2, 3
• 원효전집 6권.
• The Vajra Sutra(영판).
• 바이로차나 1.
그 외 다수.



☎(051)611-3808 e-mail : zero-pa@hanmail.net ■http://cafe.daum.net/wonhyocenter
※11월 2일(금) 오후8시에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효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1동 1765-6번지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출구에서 부산공고방향 하나은행 뒷편

茶道·불교상담학과 내년 신설

동국大·서울불교대학원大 석사과정 개설 추진

불교와 차(茶), 불교와 상담 등 응용불교 분야의 인재 양성에 불교 종립대학이 나선다.

동국대 불교대학원(학장 법산)은 다도 · 생활예절 석사과정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총장 황윤식)는 불교상담학 석사과정을 2008년 개설 목표로 추진 중이다. 두 분야 모두 그간 학문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터라, 학계의 환영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문화재콘텐츠학과를 불교문화콘텐츠학과로 변경해 학과명에 따른 전공 유동성을 확보한 동국대는, 다도 · 생활예절 전공을 석사과정으로 개설하고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다도 · 생활예절 석사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명맥을 이어온 불교계의 역사적 흐름과 불가(佛家)의 차 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차 관련 학부나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과는 달리 '불교와 차'의 관계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차별성을 둔다는 방침이다.

불교대학원장 법산 스님은 "선과 차를 마시는 일은 한 맛(禪茶一味)이라 할 만큼 불교와 차는 연관이 깊음에도 불교 종립대에서 차를 가르치는 곳이 없어 그동안 아쉬웠다"며 "학문적 영역 외에 불교문화의 저변 확대와 전통계승을 위해 다학 전공을 개설하게 됐다"고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차의 생산 · 판매는 물론 템플스테이에서 다도를 지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등 실용적인 부분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며 "다도학과와는 별도로 현재 불교문화콘텐츠학과내에 있는 사찰음식 · 예술문화 관련 전공들도 점차적으로 불교문화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현대인들의 고민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풀어주는 '불교상담학'의 학문 체계 정립에 나선다. 그간 불교상담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규 교육기관이 없어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돼 왔다. 불교상담학 석사과정은 기존 불교학과 내에 개설되는 것으로, 상담심리학과 · 심신통합치유학과와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학문의 폭을 넓혀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교 교리와 수행법은 물론 상담심리학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현장 실습을 익힘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김명권 교수는 "불교상담은 수승한 지혜의 보고인 불교와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심리학을 접목해 인간적 성장과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학과 개설을 통해 불교상담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정립하고 생활 속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상담학 전공은 10월 25일까지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박사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2002년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원대학으로, 현재 불교학과와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동국대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동국대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동국대가 10월 19일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300여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정각원에서 '참회와 발원을 위한 기도법회' 회향식을 봉행했다. 정각원장 종호 스님은 "이번 법회는 최근 불미스러웠던 일을 참회하고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동국대의 재도약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각원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회와 발원을 위한 기도법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영배 스님 "東大 이사장 사퇴하겠다"

조계종 종단현안문제대책위 회의서 의사 표명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학교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이사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조계종 종단현안문제대책위원회는 10월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영배 스님이 출석해 현하의 동국대학교 문제와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영배 스님이 학교 문제와 관련해 소회를 밝히고 대책위원들과 질의응답도 했다. 사퇴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 동국대 이사후보를 합의해 추천하기로 했으며, 동국대 이사회는 이사후보로 추천된 자(현 이사 포함) 중 일정한 발전기금을 매년 출연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단,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회의에는 총 14명 중 광조 스님과 상운 스님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조계종서 수탁 운영키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서울시가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 각 구마다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10월 9일 수탁했다. 불교계의 가정지원센터 수탁은 영등포구, 종로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중랑구센터는 중랑구민을 위한 가족상담 · 교육 · 문화활동 등을 펼친다. 센터장에는 이영호 가정학 박사가 선임됐으며 11월 초 개원식 갖고 3년간 운영하게 된다.

김강진 기자

허정 스님 등 5명 해외장학생 선발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10일 제93차 교육원 회의에서 불기 2551년도 해외장학승 5명을 선발했다.

허정 스님(인도 뿌나대학 빨리어)은 '12연기 각지 설명에 대한 비교 연구'를, 일혜 스님(중국 북경대학 철학과)은 '최근 중국불교에 대한 소고'를, 자용 스님(인도 델리대학 불교학과)은 '왕 고따미뿌뜨라를 위한 나가르쥬나의 편지글의 일반적 윤곽'을, 원영 스님(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은 '삼취정계의 형성과 자서수계'를, 현견 스님(중국 북경대학 철학과)은 '티베트불교의 환생제도에 대한 소고'를 보고서 제목으로 제출해 장학승으로 선발됐다.

남동우 기자

'선원청규 편찬' 학술세미나

전국선원수좌회, 이달 29일 합천 해인사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혜국)와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선원청규' 편찬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10월 29일 오전 10시 합천 해인사에서 개최한다.

세미나는 편찬위원장 의정 스님의 경과보고,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과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인사말,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과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축사,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법어,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청규 편찬의 의의와 방향'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또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의 '선원청규와 수행', 합천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의 '계율과 청규', 동국대 교수 법혜 스님의 '청규와 승가교육' 발제에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순천 송광사 율감 도일, 前 교육원장 암도 스님의 논평이 이어진다.

세미나는 중앙종회의원, 선원대표, 율원대표, 강원대표, 선원청규편찬위원들의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남동우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Intelligent Home Robotics KM MICROTECHNICS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장승락]

I Love Buddha / 혼자 걸어가야 할 길

용정운(www.zentoon.com)



大韓護國佛教 彌勒禪宗


△총본산 용화사

총무원장 德山 釋延和

원로원장 頓悟 포교원장 香雲
교육원장 東一 호법원장 景閑
수선원장 呑空 문화원장 圓道
사서실장 慈雲 비구니원장 鄕午

총무부장 法山 홍보부장 海洋
비구니부원장 松蓮

종도일동

총본산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 2리 산 247번지 미륵산 용화사
전 화 : 033)761-7008. 766-6800 / 011-285-6800
인터넷 : 용화세계 / www.yb108.com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은 중국 숭산 소림사에서 禪의 初祖이신 達摩大師의 法脈을 소림사 釋永信 방장으로부터 전법 수계받은 제34대 제자 釋延和 총무원장께서 창종하신 종단으로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종풍을 청정케하고 禪花를 꽃피우고자 분연히 일어선 종단입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실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동참을 바라는 바이며 특히 11월 24일(음, 10월 15일) 소림사에서 열리는 달마문화축제행사와 수계법회에 종단을 초월하여 동참하실 뜻 있는 스님들과 제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제34대 제자 전법수계첩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온 폐교

남해 갈화초교 '보물섬 삼베마을' 변신
전통체험학습장 마련·삼베 상품 개발도

1999년 3월 폐교됐던 남해 갈화초등학교. 요즘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구구단 외는 소리가 아닌 '철커덕, 철커덕' 베 짜는 소리가 들린다. 분홍빛으로 단장한 이 학교가 지역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터로 변신하고 지역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흥겨운 소리였다. 불교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 효천) 산하 남해자활 후견기관(관장 법수)은 그동안 폐교로 방치 됐던 고현면 갈화분교를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보물섬 삼베마을'로 변화시켰다.

1939년에 개원한 갈화초등학교는 56년 동안 17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군내 작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중심학교와 통합되면서 1995년에 문을 닫았다. 그 후 학생들이 출입하며 비행을 일삼는 우범지역이 되어 한동안 남해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효천 스님은 "낡은 학교를 인수해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통을 체험하는 학습의 공간과 함께 삼베를 이용한 각종 상품을 개발해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효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보물섬 삼베마을'의 내부는 옛 학교의 정취를 살려 아담하게 꾸며졌고 각 교실마다 사랑방, 전통놀이방, 풀뿌리방 등의 체험학습장이 마련됐다. 삼베마을 교육장으로 준비된 영상시설, 손님들을 위한 다실 등에도 정성의 손길이 가득하다.

앞으로 '보물섬 삼베마을'은 농한기 등에 지역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남해 지역에서 전통을 이어 오던 삼베기술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생산된 삼베는 전국 각지에 판매되며 중국산에 밀려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천연염색을 이용해 소품 및 제작 판매를 유도하고 질 높은 품질 개발에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해군 유휴 휴경지를 발굴하고 경작해 삼베작목반으로 발전시키며, 전통 삼베작업장 관람 및 베틀 짜기 체험 등으로 관광지역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남해로 시집온 베트남 이주민들을 위한 구인과 한글교육도 실시한다.

효천 스님은 "보물섬 삼베마을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해 삼베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안동·강릉과 함께 3대 명물로 인정받는 남해 삼베의 명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해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200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로 자활운영을 지정받아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화방동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사업단, 간병사업단,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사업단, 청소 및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단, 가사간병사업, 산모도우미, 삼베사업, 노인 바우처, 장애인 바우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055)864-8187

남해/글·사진=하성미 기자





보물섬 삼베마을의 전경(사진위)과 삼베를 짜는 지역주민.

산사에서 '秋억 만들기'

백양사·심곡암 등서 단풍축제 풍성

단풍이 그야말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오색의 단풍으로 곱게 단장한 산사는 다채로운 무대를 마련하고 불자들에게 '단풍축제'를 즐기라 손짓한다.

아기단풍이 곱게 물든 장성 백양사(주지 성오)는 11월 3~4일 '쌍계루의 추야몽(秋夜夢)'을 주제로 '2007 백양사 야단법석'을 개최한다.

3일 오후 3시 쌍계루 앞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 산사음악회가 개최된다. 정태춘, 박은옥씨가 작은 음악회로 꾸린다. 이어 오후 8시에는 천진암 특설무대에서 달빛을 받으며 오솔길을 따라 천진암까지 걸어보는 '달빛걷기' 행사가 열린다.

4일에는 참사람교육원에서 백양사가 자리 잡고 있는 '백암산 국립공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백양산 국립공원 지정 의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올바른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4일 오후 2시부터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역과 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영산대재가 봉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쌍계루 앞에서 생명나눔 캠페인, 인도음식 판매, 북녘동포돕기 모금, 지역특산물 판매 등의 '아름다운 나눔마당'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페이스페인팅, 단주 만들기, 초상화 그리기, 소원등 달기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061)392-7502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심곡암(주지 원경)은 올해로 10번째 단풍축제를 개최한다. 서울 도심에서 불과 20여 분 떨어진 심곡암은 너럭바위에 앉아 단풍과 맑은 공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단풍축제는 11월 4일 열리는 산사음악회로 절정을 이룬다. '종교의 화합을 통한 평화의 염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가톨릭 프란치스코회의 심실베스텔 수사도 함께 동참해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4일 오후 1시 개최되는 산사음악회는 진명 스님의 사회로 '갯바위'의 가수 양하영씨, 플루트 연주가 기원 스님, 불자가수 이진호씨,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정미씨, 가야금 연주자 민소연씨의 공연이 이어진다.

한편, 10월 26일 오후 2시에는 심곡암에서 서울시민과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가 봉행된다.(02)914-8860

여수령 기자

부산서 '금강경 법회' 잇달아

부처님 마을·미타선원, 고승 초청·특강 등 마련

반야부 경전 가운데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독송되는 조계종의 소의경전 <금강경>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부산에서 잇달아 마련된다.

먼저 부산 해운대 부처님 마을(주지 효범)은 '금강경 산림대법회'를 열고 7인의 고승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0월 16일 입재 법문에서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종교라고 생각하면 이상향 혹은 꿈의 세계를 추구하며 세간법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금강경>을 보면 부처님이 공양하고 가사를 입고 탁발하고 발을 씻는 일상생활이 모두 다루어져 있다"며 "일상생활이 여시(如是) 즉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금강경> 제1분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주지 효범 스님은 "<금강경>의 큰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협조와 후원 덕분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청하고 큰 감로의 꽃비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님 마을에서는 10월 23일 통도사 정우 스님, 30일 前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11월 6일 前 직지사 주지 지광 스님, 13일 조계종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20일 부산 화엄정사 회주 각성 스님, 27일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의 <금강경> 법문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어진다.(051)704-0332

부산 남포동 시민선방인 미타선원(주지 하림)에서는 재가불자들을 위해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의 '금강경 특강'이 마련된다.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이번 특강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하며 매달 동참금은 3만원이다. 하림 스님은 "이번 특강은 부산 지역 불자들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진리의 법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동참을 권유했다.(051)253-8687

하성미 기자

부산 금정中 '1사1교' 결연식

종립학교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채)는 10월 15일 금정 중학교에서 전교생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 발전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1사(社) 1교(校) 결연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익채 교장은 결연을 맺은 이만호 국민은행 범어사역지점장과 지오매틱 코리아 양승택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1사 1교 결연으로 기업체와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축으로 학교 교육열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결연의 의미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느티나무 조각에 새긴 '信心'

11월 1일 부산 벡스코서 전시회



기룡관음. <김광현 作>

느티나무 조각상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느티나무 조각상이 아니다. '신심(信心)의 표현',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을 듣고 나타나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님을 향한 기다림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불자들의 신심이 어우러져 더욱 의미가 깊어질 조각전시회가 열린다.

불교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김광현, 이하 문화재조각회)는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11월 1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열고 7일까지 16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60여명의 지정문화재 조각기능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문화재조각회가 10번째 맞는 결실의 장이다.

김광현 회장은 "민족성을 보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봐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으로 오랫동안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교문화의 전통을 바르게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바로 잡습니다

10월 17일자 649호 B5면 '고승초청 철야용맹정진 대법회' 기사 중 '수덕사 총무 무애 스님'을 '수덕사 무애 스님'으로 고칩니다.



대전비구승가회, 보살계 수계대법회

대전불자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10월 13일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조계종 대전비구승가회(회장 현광)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대법회에는 전계사 성수 스님, 화엄사 도천 스님, 법주사 혜정 스님을 비롯한 지역 원로스님과 불자 1500여명이 참석해 십중대계(十重大戒) 수계의식을 봉행했다.

현광 스님은 "계를 지님으로써 가정과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성불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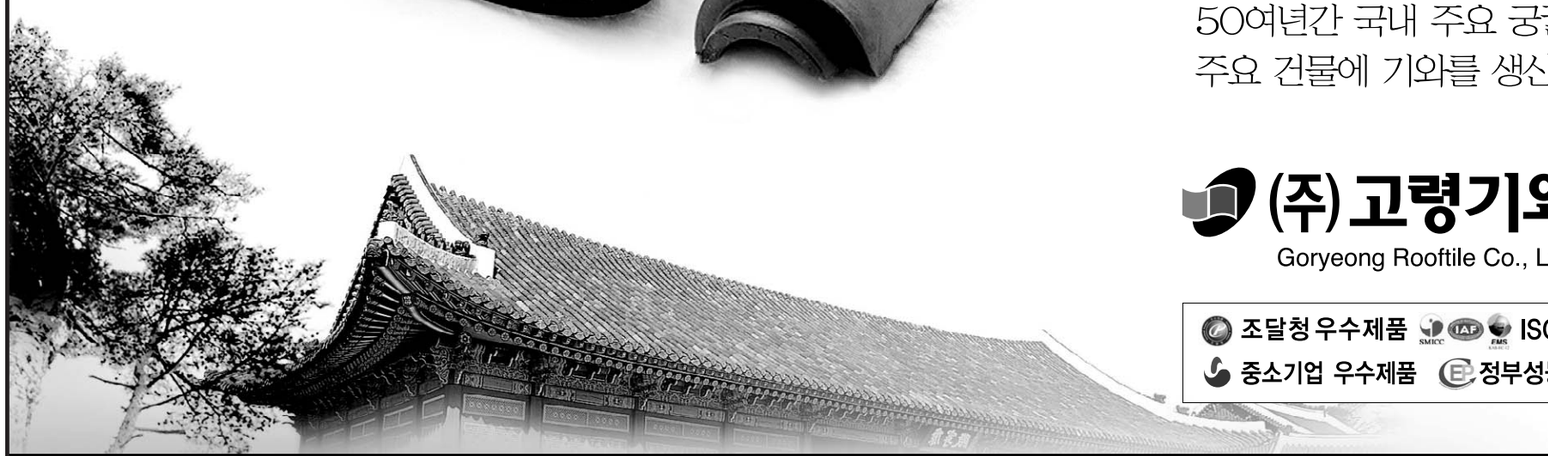
전통한식기와 전문생산업체 한식형 청회색기와(문화재용) · 한식형 변색기와 · 한식형 KS기와 · 한식형 유약기와

INNOBIZ 기업



반세기를 이어온 장인정신
고령의 혼입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의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 업체로서 50여년간 국내 주요 궁궐, 사찰 등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 Fax 054-954-8308
www.rooftile.co.kr gr@rooftile.co.kr

조달청 우수제품 ISO 14001 인증 건 건 마크 표시허가 KS 표시허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정부성능인증제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병력특례지정업체

주요납품처 해인사, 구인사, 직지사, 불국사, 조계사, 관문사, 삼광사, 월정사, 법주사, 동화사, 은혜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은사, 화엄사, 운문사 등

‘노인복지환경’ 내년부터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팀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노인복지시설 정책방향 설명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 본격 시행
요양보호사에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게 뭔가요?”

2008년부터 이런 의문은 통하지 않는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하려는 단체 · 개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이 2008년 2월 개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즉 2008년에는 노인복지환경이 전면 개편된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이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최영호 팀장을 발표자로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노인성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공적부조 속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등급이 높을수록 중증) 판정을 받은 후,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눠 상황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약 30여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교구본사별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힘쓰고 있고 복지 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어서 더 많은 시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시설유형 통합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시설 인력기준 변화다.

시설유형은 현재 노인전문 · 실비 · 유료노인요양시설로 나눠지는데 반해 개정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로 모두 통합되어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는 소득의 구분 없이 본인의 상태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일정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교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사설기관에서 양성된 노인복지사 · 케어복지사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설복지사 양성기관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양성된 사설복지사들이 법령 시행 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올바른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내년 ‘노인보호사 양성센터’ 개소를 통해 재단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시설장스님들이 대거 참석, 바뀐 노인복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시설 인력기준의 경우, 현행법은 노인 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두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2.5인당 1인을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들은 지자체와 시설 인력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의료보험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남해에서 화방동산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천 스님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자는 취지의 제도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등급에 따라 의료수가를 적용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등급이 낮아져 수가가 낮게 책정될 것을 염려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설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노인요양보호시설 운영스님은 “중앙에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방 시설들은 따라가기 급급한 실정”이라며 “실제 운영자들의 고민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최영호 팀장은 “보험료 수급을 놓고 시설에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여러 시설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노인복지시설 정책에 대한 자료를 배포 중이며 11월 중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복지법 변화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02)723-5101

글·사진=김강진 기자

“종교인부터 장기기증 인식 바꿔야”

3개 종교단체 합동 세미나

“장기기증은 종교인들부터 나서야 합니다.”

국민적인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장기이식 등록도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3개 종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불교계 장기기증등록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0월 19일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강대학교 박광서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이 세미나에서는 동아대 이상목 교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설립자 박진탁 목사, 경희대 김명재 교수가 발표하고 가톨릭 서울대교구 박정우 신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성터교회 방인성 목사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앞으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종교인들이 먼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강진 기자



낙산사 상락원 문 활짝

사회복지법인 낙산실비전문요양원 상락원(사진)이 10월 19일 개소했다. 강원도 양양군 현풍리에 위치한 상락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시설로,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다.

상락원은 전체 570평에 지상 4층 건물로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야외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033)672-0053 김강진 기자

추위 녹이는 ‘온정’의 불 지펴요

장애우·독거노인 위한 불교계 후원행사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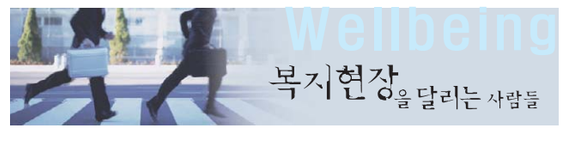
날이 추워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도 늘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는 불교계 복지시설들도 이웃과 함께 하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 02-921-6410)에서는 중증장애아동 재활기금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일일찻집’을 10월 28일 연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88명의 중증장애아동들의 재활기금을 마련하여 의구, 보조기구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02-622-6242)도 10월 31일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사랑의 일일 호프’를 연다. 이 행사 수익금은 전액 무의탁노인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 02-831-2755)에서도 10월 23~24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저소득층의 급식비지원 기금 모금이 목적이다. 물품후원과 후원금 모금 모두 가능하다. 김강진 기자



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

불교에서 자비와 보시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불교 자비정신의 꽃은 역시 ‘복지’다. 불교계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널리 이름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이 좋아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할 뿐인 그들. 그들의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마음 어루만지는 복지 실현을”



문학에 푹 빠져 살던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불법(佛法)의 인연으로 불교학도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종단을 대표하는 사무국장 자리에서 불교복지를 총괄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48)이다.

“아직 제가 하고 싶은 복지는 시작도 못했는걸요. 재단과 함께 한 제 역사요? 인연 있는 분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었을 겁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불교복지기관을 총괄하는, 공히 불교사회복지의 ‘본산’격이다. 여기에 종단 복지예산이며 자원봉사자 관리까지 맡고 있다. 재단 역사에서 이 국장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혼자 주목받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다.

이 국장이 불교복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8년 ‘불교사회복지회’를 만들면서 부터다. 뜻이 맞는 동지들과 만든 이 단체 활동을 통해 이 국장은 불교복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과 함께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불교복지의 위상은 통계적으론 분명 이웃종교에 비해 취약했어요. ‘불(佛)’자를 내걸지 못하는 환경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사찰에서 소외된 아동 · 노인 등을 돌보는 등의 활동은 이어져 왔어요.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종단 안팎으로 불교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995년 창설됐다.

첫 시설 수탁은 극적이었다. 1995년 겨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위탁 공고가 나왔을 때였다. 그야말로 ‘처음’이다 보니 시설 수탁 노하우를 전수받으려 이웃종교 시설 방문을 수차례 한 후에야 서류를 낼 수 있었다. 시설 위탁 담당 공무원은 ‘불교계가 과연’이라는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정말 절실히 기도했어요. 일단 시설이 있어야 불교복지를 알리고 자원봉사 인력도 키워내죠. 무조건 시작해야 했어요.”

그렇게 밀어붙인 결과 ‘시작’은 성공했고 구로복지관은 지금까지도 불교계가 수탁하고 있다.

흔히 사회복지사는 예리한 머리, 뜨거운 가슴, 부지런한 발, 이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국장은 “불교복지를 하는 사람은 가슴을 불심(佛心)으로 채워야 한다”는 소신이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도 2년 전에는 꽤 힘들었다. 무리한 업무로 심신이 지쳐 건강이 악화됐다. 그랬던 이 국장에게 요즘 다시 활기가 넘친다. 한마음과학원의 공생실천과정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마음 내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 그야말로 편안하다고 한다.

“복지 자체가 수행이에요. 고우스님께서도 복지를 다양한 수행방법 중 하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좋은 도량도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복지’의 길 위에서, 불교복지의 신념을 꿋꿋이 지켜가는 이 국장. 그가 꿈꾸는 불교복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정신복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시(法施)를 설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구하는 복지, 이제는 그것을 하려 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불교 힘으로 문화재 지킬 것"

불교문화재연구소 개소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월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이사장 지관)로 확대 · 개편돼 10월 15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써 조계종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존의 총무원 문화부와 전시 및 관리 · 홍보를 담당하는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재의 발굴조사와 연구 · 보존을 담당하는 불교문화재연구소라는 문화재 관리 클러스터를 갖춤으로써 불교문화재 연구 보존에 관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문화재 정책은 과거 문화부에서 불교음악과 미술, 문학 등의 무형문화재와 성보 등의 유형문화재를 모두 포괄해 온 것에서 시작된다. 종단 내 문화재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와 문화재팀으로 업무를 나누고 2000년에는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설치됐다. 지난해에는 성보문화재를 기획 · 전시하는 불교중앙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종단 차원의 문화재 전시 및 보존처리에 대한 인식도 달리 했다.

이번 연구소 개소를 통해 불교계는 문화재 관리의 새 지평을 열었다. 기존에는 불교문화재 발굴의 대부분을 외부기관에 의지해 발굴조사나 유적조사에서 불교의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문화재의 일부로 취급받았으나 이제는 성보문화재로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는 발굴 뿐 아니라 출토 이후 유물에 대한 보존과 조사 연구가 중요한데 기획 · 조사 · 발굴 · 관리 등 불교문화재 관리를 총망라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장 범하 스님은 "올해 15억 원이었던 연구소 예산을 내년에는 30억 원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현재 문화재조사팀과 유적조사팀의 기본적인 2팀제에 고고학전공자 2명 등 인재를 확보하여 유적조사팀을 2개~3개로 확충하는 등 절터(寺地) 발굴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2000년 문화유산발굴조사단 발족 이래 최초의 북한 문화재 연구인 북한 금강산 신계사 지표조사 등을 벌여온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절터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발굴에 나선다.

개소 후 신규 사업으로는 군위 인각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각사는 7세기 의상 대사가 창건하고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탈고했던 불교사적인 가치가 큰 곳으로 문헌상으로만 전해졌던 곳이다. 이어 청원군의 의뢰를 받아 운문사 중심의 오갑사(五岬寺)를 모두 발굴할 예정이라 한다. 오갑사는 가슬갑사와 대비갑사, 천문갑사, 소보갑사, 대작갑사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작갑사인 운문사와 대비갑사인 대비사만 남아있다. 그 외 낙산사 건물지와 금산사 선원터, 안성 청룡사 등 차후 발굴 예정지와는 별도로 현대아산개발의 의뢰를 받아 신계사 외의 내금강에 있던 사찰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연구소장과 박물관장을 겸임하게 된 범하 스님은 "연구소 · 박물관 양대 기관의 협력으로 문화재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 했다.

한편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연구소 개소식에는 이사장 지관 스님과, 연구소장 범하 스님, 정영호 단국대 박물관장, 윤근일 기전문화재연구원장, 김쾌정 허준박물관장, 박상국 문화재위원, 김리나 문화재위원, 이숙희 문화재위원 등 종단 및 학계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축사를 통해 "문화재를 보존 ·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매장문화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일반 연구단체에 의해 진행됐던 불교문화재 발굴을 이제는 불교계의 힘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연구소 개소 의의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철저한 고증 통한 복원 필요" 역설

신계사 낙성기념 남북공동학술발표회 개최


금강산 신계사 낙성법회에서 열린 만세루 편액 제막 모습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가 10월 13일 낙성법회를 봉행한 가운데, 신계사 복원의 학술적 의의를 짚어보는 공동학술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를 통해 남과 북은 함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특히 원형복원의 원칙, 선 환경 후 개발 등 불교문화재 복원의 원칙과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발표회에서는 남측의 김동욱 경기대 교수, 장호수 충북문화재연구원 부원장, 김동욱 경기대 교수, 장순용 삼성건축사무소 대표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북측에서는 리기웅 조선문화보존사 실장, 변룡문 조선문화보존사 연구사 등이 참가했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발표한 장호수 부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유적 정비복원은 일반인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작업이며, 특히 절터의 경우는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 활용을 함께 고려하고 유적 정비과정에서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절터 발굴의 특수성을 짚고 "신계사의 편의시설도 정비복원을 위한 기초조사가 충실히 완료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건축물의 복원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발표한 리기웅 조선문화보존사 실장은 "역사문화유적을 복원하는 목적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체계화하여 정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라 밝히고 "역사유적의 유물을 발굴 · 복원하는 데는 역사주의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주의적 원칙에 대해서는 "고대의 건축기법을 재현하여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원칙적 보수를 강조하고 "현대화한 복원물은 아무 쓸모도 없고 복원자체의 의미도 잃는다"고 역설했다.

한국전쟁 때 소실돼 주춧돌만 남은 폐허 상태에서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불사를 추진한 신계사는 2001년 남북 공동으로 지표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2004년 4월 본격 착공한지 3년 6개월 만에 대웅보전, 만세루, 극락전 등 모두 14개 전각이 복원됐다.

13일 열린 낙성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을 대표로 한 남북불교도 400여명이 참석해 신계사 복원을 축하했다.

조동섭 기자

낙산사 의상대·홍련암 명승 지정예고

예부터 관동팔경으로 불린 의상대, 홍련암


낙산사 의상대


낙산사 홍련암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주지 정념)의 의상대와 홍련암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예로부터 관동팔경(關東八景)으로 불리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해온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삼청 죽서루와 오십천'을 명승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2005년 발생한 산불로 인해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동종을 비롯해 원통보전, 홍예문 등의 문화재가 소실됐지만, 의상대와 홍련암은 불길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의상대(義湘臺)는 의상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피던 곳으로, 의상 스님의 좌선 수행처라고 전한다. 1936년 폭풍으로 무너졌다가 이듬해 중건됐으며, 1974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됐다.

1994년 11월 강원도의 정밀진단 결과 기둥과 기와 등이 전체적으로 10도 정도 기울어, 이듬해 육각정(六角亭)으로 복원됐다. 낙산사의 산내암자인 홍련암(紅蓮庵)은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한 장소로, 강원도문화재자료 제36호로 지정됐다. 이들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명승으로 지정된다.

한편, 지난달 지정예고 됐던 구례 화엄사 매화(梅花)는 천연기념물 제485호로, 장성 백양사 고불매(古佛梅)는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각각 지정됐다.

여수령 기자

금정中 '장수경' 부산유형문화재로

종립학교 부산 금정중학교 역사관에 보관돼 있던 <불설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 護諸童子陀羅尼經)>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다.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금정중이 소장하고 있는 이 경전은 1562년 간행된 다라니경을 후쇄(後刷)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 경전은 가로 17.6cm, 세로 28.2cm로 34장으로 구성된 책이며 목판을 인쇄한 것이다. 3 · 1 운동의 유공자 동광 선사가 소장했던 것으로 상좌 육각스님이 2006년 2월 9일에 금정중학교에 기증했다. <장수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불설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경>은 부처님의 힘을 빌리거나 수행을 통해 죄악을 없애고 무병장수하는 방법을 적은 밀교 계통의 경전이다.

하성미 기자

불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불교와 뉴미디어 · 불교문명 등 주제로

불교학술단체들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불교학연구회, 불교미술사학회가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은 10월 26~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대중화와 뉴미디어'라는 주제로 종래의 학술적 담론이 아닌 실용학문으로의 불교학을 시험하는 장이 될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국제윤이상협회 볼프강 슈파러 회장과 미국 콜로라도대 마크 아메리카 교수가 각각 윤이상과 백남준의 작품에 담긴 불교에 대해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자 9인의 발표와 승무, 교방살풀이, 한량무 등의 예술공연이 열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1월 10일 오전 9시부터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문명과 서양문명의 만남: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가 '불교와 종교학의 만남'을,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불교의 '철학화를 통한 근대 한국 불교의 자기 정체성 형성'을, 양홍석 동국대 교수가 '미국 산업주의와 혁신주의(1870-1920)시대 불교신봉자들의 사회개혁운동'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와 근대적 사회제도의 만남-담론분석을 통하여'를, 박광서 서강대 교수가 '현대과학의 요구에 상응하는 불교'를,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현대생명과학의 한계에 대한 불교적 모색'을 발표한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하)는 11월 10~11일 2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0차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를 마련한다.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10일 주제발표 등에 이어 11일 일본 전문가를 초빙해 아교 안료분석 등 문화재보존처리 특강을 연다.

조동섭 기자

중국 하문 국제불사 용품전람회 참관단 모집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중국 하문에서 11월 초 개최되는 "국제불사 용품전람회"참관단을 모집합니다. 본 박람회는 중국내 최대규모의 불교관련 박람회로서 불교산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4박 5일의 일정동안 박람회 참관과 함께 석재,사찰건축자재, 차 및 각종 불교용품 공장을 직접 방문할 기회도 갖게 되는, 이번 참관단 모집에 관심있는 스님 및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① **참관단 일정** : 2007년 11월 7일부터 11일 까지(4박 5일)
② **준 비 사 항**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중국비자(없으신 분은 별도 문의)
③ **비 용** : 75만원(중국비자비 별도)
④ **신 청 마 감** : 2007년 10월 25일까지(선착순 20명 예정)
⑤ **접수처 및 연락처** :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 홍보팀장 조은상
전화 02)706-3493 / 팩스 02)6280-8191 / 핸드폰 011-9807-3100

※ 일정은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국 불 교 박 람 회 사 무 국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문화 포교지

월간 『불교와 문화』





러브레터 |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
사랑이란 이름의 실전 수행 2(자기를 잊어야 비로소 배우자의 마음이 보인다)
소설가 정찬주와 떠나는 명상여행 | 인도에서 본 팔상록 9(녹원전법상)
종범 스님의 재가불자를 위한 기초교리(경전편) | 『법화경』
생활불교 가이드 | 보름 포살 법회란 무엇인가?
연병장에 피어나는 연꽃 | 부산 금련사
문태준 시인의 치유포토에세이 | 이별에게
숲길 10 | 화성 융릉, 건릉의 숲
테마가 있는 사찰, 그곳에 가고 싶다 | 운길산 수종사
집중인터뷰 | 방혜자 화백
드라마작가 정형수가 추억하는 내 기억속의 절밥
잊혀져가는 사찰음식을 찾아서 | 공주 흥복사 도토리 아채 수제비
향기로운 사람들 | 학습지도 자원봉사 불자 · 부처님께 사진 공양 올리는 불자
도쿄통신 | 일본의 '와비사비'
법현 스님의 숫자로 보는 불교 | 여덟 가지 특별한 것을 갖춘 아난
2007 테마로 읽는 좋은 책 | 불교와 박물관

월간 『불교와 문화』 1년 구독료 30,000원(1권 3,000원) 구독문의 : 02-706-1570 (『불교와 문화』 문화사업단) www.buddhistculture.co.kr



"둥둥둥~ 두둥둥둥" 법고 소리 불국토 이뤄…

제1회 태고종 법고경연대회

"둥둥둥~ 두둥둥둥".

10월 17일 오전 11시 태고종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1층 법당에서 예불시간도 아닌데 때 아닌 법고 소리가 요란하다. 전승관 개관기념으로 태고종 총무원이 마련한 '제1회 법고 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진 장엄한 법고 소리는 총무원이 위치한 사간동 일대를 법향 가득한 불국토로 만들어 주었다.

경연대회장에 들어서자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별 지역예선을 거친 경연자 60여명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객석에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참가자가 엄숙히 법고를 치는가하면 때로는 신명나게 법고춤을 추기도 한다.

이날 법고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예선을 치른 후, 오후 2시부터 자리를 3층 대법당으로 옮겨 본선 경연이 펼쳐졌다.

특히 5분 정도의 시연으로 치러진 예선은 정말 치열했다. 박정선(17)양과 진관 스님(옥천범음대 2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법고를 쳐댔다. 법고 소리만 들릴 뿐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를 객석에서 지켜본 김양순(65)보살은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리 빨리 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 응원차 온 보경 스님(대구 용연사)은 "스님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과 일반 불자들도 너무 장엄하게 법고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많네요"라고 즐거워했다.

경연장안 열기도 뜨거웠지만 밖에서도 이에 뭇지않게 그동안의 연습을 총 점검하느라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리허설을 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띠었다.

1시간 30분 동안의 예선 끝에 본선 진출자 17명이 가려졌다. 3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인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깡총깡총 뛰면서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선전이 진행되는 동안 전승관 밖 경복궁 거리에서는 일반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고를 쳐보는 체험 기회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본선경연은 3층 대법당에서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문화 즉 불교문화가 세계 속에서 차별화된 한국을 나타낼 수 있다"며 "법고경연대회의 좋은 인연으로 불교의식을 오롯이 보존하고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불교의식을 전수하는 좋은 문화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남상일(국립창극단 단원)씨의 사회로 2시간 동안 펼쳐진 본선 경연은 참가자나 관객 모두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펼쳐졌다. 하지만 참가자의 묘기가 간간히 나올 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장 환우 스님(재정부원장)은 "참가자들의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춤사위와 북의 장단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는 점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한 층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오후 5시 환우 스님을 비롯해 도암 스님(교무부장), 법경 스님(교임부장), 무공 스님(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봉 스님(경기중부종무원장) 등 5명의 심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끝에 드디어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대상은 빠르고 힘찬 북소리를 들려준 진관 스님이, 금상은 무공 스님, 법수 스님, 박정선씨가 은상은 우영옥, 심수경, 정희선씨가 동상은 준범 스님, 법연 스님, 오명옥, 장수정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은 장윤실, 김태림, 변정인씨에게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장 및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종정예하가 수여하는 대상을 2회 이상 받게 되는 수상자에게는 법고의 명인자격이 부여된다.

이 대회를 총 진행한 능화 스님(문화부장)은 "법고대회는 실력을 가늠하는 자리가 아닌 종도들과 전 불자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향후 정례화 된 행사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10월에 일반시민들도 관람할 수 있게 경복궁 마당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고는 중생의 번뇌를 물리치고 해탈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어리석은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게 하는 힘도 있다. 이날 약 7시간 동안 사간동에 울려 퍼진 법고 소리는 어리석은 우리네 중생들이 사는 시방세계를 깨우쳐 주기에 충분한 큰 울림이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3층 대법당에서 펼쳐진 본선.



법고대회를 총 진행하는 문화부장 능화 스님.



경연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법고경연대회 관람에 몰두하고 있는 관객들.



대상을 수상하는 진관 스님.

■ 대상 수상 진관 스님 인터뷰



"북을 친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옥천범음대학을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것이 오늘 이 영광스런 상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1회 법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진관 스님(옥천범음대 각배반 2년)은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조석예불을 모시면서 매일 법고를 치고 있다는 스님은 "앞으로 영산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전통 불교문화를 계승하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일 주 문



무생계수계대법회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0월 27일 오전 10시 해인사 경내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055)934-3000



행정대학원 개원 40주년
동국대학교 오영교 총장은 11월 1일 오후 6시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행정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비전 21' 행사를 개최한다.



글 · 그림 전시회 개최
동국대 목정배 명예교수가 10월 20~24일 서울 수운회관 2층 다보성에서 '彌天(미천) 목정배의 글 ·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순국선열 위한 호국영산재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0월 19일 서울 호텔신라 영빈관 앞뜰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호국영산재를 봉행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10월 27일 오후 1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여성불자 108인 선정자 및 임원진 100여 명과 함께 제2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무진장 스님 초청 법회
서울반야라이온스클럽 박재근 회장은 10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국청회관 2층에서 무진장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02)730-1249

화촉

김철우 前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박수영양과 10월 27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내 아이리스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힌다.(019-352-4033)

社 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마감 : 2007년 12월 17일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문의전화 : (02)2004-8282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시상 부문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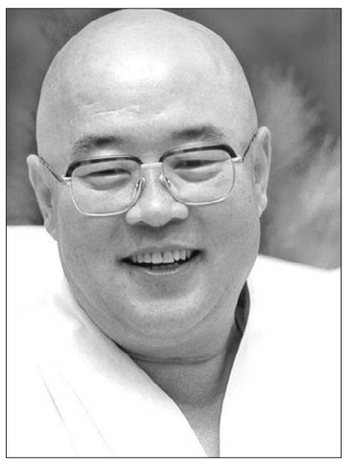
"차별화된 지역복지로 다가갈 것"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로 선출된 각현 스님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알맞는 복지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각현 스님은 10월 11일 경기문화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재단이사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스님의 임기는 2010년 8월까지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복지정책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방정과 민간기관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난 7월 설립됐다. 재단은 앞으로 도내 복지정책개발과 연구, 프로그램 개발 · 보급은 물론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복지법인 설립 행정 등을 책임질 중요한 기관이다. 스님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불교계를 대표해 이 자리에 앉게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스님은 그동안 연꽃마을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복지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또한 노인복지 연구 논문도 준비 중이며 사회복지학 지식도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이러한 이력에도 스님은 "더 넓은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며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현재 스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과제는 복지정책과 도민간의 괴리를 없애고 경기도민의 '몸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인구만 해도 1600만 명으로 서울시를 넘어섭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계층화도 심해 경기 남 · 북, 도농간 격차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선결해야 할 점입니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더 '미래'지향적인 복지재단을 꾸려가는 것이 스님의 꿈인 셈이다.

"앞으로 '세계 속의 복지경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을 통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설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운암 김성숙 선생 내년 4월의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 · 사진)이 국가보훈처 · 독립기념관이 제정하는 2008년 4월의 독립지사로 추대됐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이하 운암사업회)는 10월 2일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이자 봉선사 스님 출신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이 2008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이 운암 선생 탄생 110주년이라는 점과 임시정부 창건달이 4월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태허 스님은 독립운동에 매진했음에도 사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다 1982년에야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을 받고 2004년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4월의 독립지사' 추서는 의미가 크다.

태허 스님은 1916년 용문사에서 출가, 이후 1918년 봉선사로 옮겨 수행하던 도중 1919년 독립문서를 제작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1923년 중국으로 건너간 운암 선생은 임시정부 시절, 많은 경제저서와 잡지발간 활동 등에 몰두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을 반대하고 좌 · 우 이념대립을 지양, 조국의 진정한 광복을 위해 헌신했으나, 좌파로 낙인찍혀 이후 정치범으로 옥고를 치르다 1967년 입적했다. 김강진 기자

조동종 연수교육 및 수계의식 봉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0월 15~17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10차 연수교육 및 사미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단임원진과 종도 250여명이 참석해 연수교육을 진행했으며, 회향식에서는 30여명의 사미계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교육에 앞서 불교계를 음해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종단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발표했다.(02)2091-0408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여론 환기시킬 것"

화계사 28일 이주사망 노동자 위한 천도재 봉행



"한국에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 수가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스스로 집계한 수치죠. 하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사진)은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지만, 그들 다수에게는 불법체류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이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각종 산재로 고통 받다 결국 타국 땅에서 차디찬 주검으로 변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화계사(주지 수경)가 10월 28일 오후 2시 경내 야외무대에서 '이주사망 노동자를 위한 천도재'를 개최한다. 천도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주노총 경기서울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정토회, 네팔불자모임, 이주노동자TV, 네팔 공동체, 필리핀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도 참여한다.

수경 스님은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교국가 출신"이라며 "하지만 정작 한국불교계가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은 미약하기만 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

또 "천도재는 한국에서 사망한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원혼을 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억압의 실태를 드러내고 여론을 환기시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연극인 손숙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천도재는 한국전통의식뿐 아니라 나라별 천도의식도 봉행된다. 신경림 시인이 헌시를 낭독하며, 각국 주한 대사들도 추도사를 한다.

남동우 기자

원광종 수륙대법회 봉행



한국불교원광종(총무원장 법륜)은 10월 15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경제회복과 국태민안을 염원하는 수륙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능허 스님, 총무원장 법륜 스님과 종단 임원진, 각 종단 종정스님 및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100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불자가수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2부 수륙재가 이어졌으며, 종정 능허 스님은 "국가 안녕과 단합을 위해 원광종이 수륙재를 통해 염원을 모아야 한다"고 법문했다.(02)802-1740

조동종 달마선원 삼존불 점안식 봉행



서울 달마선원(주지 지운)은 10월 18일 달마선원 대법당에서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과 종단 임원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주지 지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의 염원과 원력을 모아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도심포교의 일선에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02)383-2999

충북비구니회 장병 수계법회 봉행



충북비구니회(회장 지원)는 10월 14일 증평 37사단 충용사에서 200명의 훈련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충북비구니회는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비구니스님들의 모임으로, 매년 2회 장병위문과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우스님(남화사 주지)은 이날 법회에서 장병들에게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룡)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10월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큰스님께서는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운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지금 미국에선 왜 '불교'인가?

e 해외불교칼럼

1960년대 미국 내 불교도는 고작 20만 명 정도였으며, 그 중 일부는 불교 서적이나 아시아지역으로의 여행 등을 통해 우연히 이 이질적인 신앙에 접했다. 그나마 미국 불교도의 절반 남짓은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들어온 하와이 이민자의 2, 3세대 청소년층이었다. 현재 미국 불교도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미국 연방정부 인구통계국에서 개인별 종교의 공식집계를 중지한 터라, 다만 기타 자료 등을 토대로 200~300만으로 추산하는바, 이는 약 40 년간 약 10배의 증가세를 뜻한다. 이런 증가추세는 대체로 아시아불교지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것이나, 비 아시아계 미국시민들도 상당수가 불교도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불교철학에 심취해 자신의 영성개발을 위해 각종 불서들을 숙독하는 미국인들도 늘고 있다. <미국과 불교의 만남(The American Encounter of Buddhism)>의 저자이자 하버드와 스탠퍼드 출신의 종교학계 석학인 탐 트위드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베개머리 불제자(Nightstand Buddhist)'. 즉, 불교적 공감대를 지닌 '나 홀로' 불제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이미 1000만을 훨씬 웃돈다. 하면 무엇이 이처럼 불교를 향한 열망의 불길을 지피는 것일까? 또한 불교적 성장환경과 전혀 무관한 수천만의 미국인들이 이제는 절대자나 구세주 등과의 종속적 관계지속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아변화'를 통해 근본 실체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불교에 이끌리는 이 현상은 어찌 설명되어야 하나? 이제 수많은 미국인들은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의 발상마저 회의적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불교에 이끌리는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그러나 기존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불제자로 개종하는 미국인들은 단언한다. 즉, 불교를 통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닦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자아변화를 위한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다양한 형태로 뿌리를 뻗어가는 불교는 그 형식이 어떻든 매일수행이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참선과 염불, 그리고 법회참여 등 자기수행에 정진하여 각자 영성적 변화를 체득한다는 묵시적인 상호약속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불교 내에도 상당한 교리상의 차이가 있다. 티베트불교는 거듭되는 생을 거치며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선불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우침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둘은 공히 영적인 스승을 모시지만, 위빠사나, 곧 내관 명상의 경우는 굳이 사제 관계나 소속 종파에 연연하지 않고 나 홀로 수행을 한다. 이 모든 형태의 불교는 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이른바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 사이에서 일차적으로 급성장세(* 역자 주 ; 잭 캐루액과 앨런 긴즈버그 등 저항지식층 비

불교인구 40년간 10배 증가
젊은층에선 티베트불교 '붐'

트세대에서 자생한 이른바 비트닉 부디즘)를 보였다. 그 이후 방향을 크게 선회하여 이제 이미 성인이 된 그들 베이비부머들 사이에는 위빠사나 수행단체와 일부 선불교 등이 성행했다. 그러나 최근 십대와 이십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티베트불교에 심취한다.

달라이 라마의 개인적인 고매한 품격과 역동적 역할, 그리고 티베트를 원초적인 이상향으로 바라보는 대중적 기대치가 그 기본요인이다. 게다가 '쿤둔'과 '티베트에서의 칠년' 등 티베트 소재의 영화들이 거푸 일반대중의 시선을 붙들고 리처드 기어, 비스티 보이즈의 애덤 요크 등 유명 인사들마저 가세하여 티베트불교가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저명한 미국인들 중 그와 다른 형태의 불교를 선택하는 불제자도 많다. 그런데 왜 미국의 청소년세대는 굳이 티베트불교로 개종하는 것일까? 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바로 티베트불교 특유의 심미적 요소다. 사람들은 어느 믿음을 택하든 그 교리나 수행뿐만 아니라, 종교적 시각조형물 등을 통해 평안함을 얻는다. MTV 등 끊임없는 볼거리들 사이에서 성장한 그들 세대에게 근엄한 참선이나 위빠사나 등은 답답하고 단조롭기만 하다. 그런데 티베트불교는 풍부하고 다양한 색채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심미적인 장엄함마저 곁들여준다. 티베트불교의 가르침과 조형물들은 얼핏 보건데 덜 다듬어지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현대 미국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고도로 정교하게 구성된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연유가 어떻든 티베트불교 붐은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앞으로 50년 이내에 전혀 또 다른 불교의 모습이 등장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 불교의 핵심이 제일세대 개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이는 곧 전통적인 아시아 불교와 모든 '새로운' 형식을 가르는 획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종교집단에서나 신규 개종자들은 전통적인 도식에서 벗어난 '튀는 집단', 즉 예측불허의 구성원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새로 접한 종교를 자신들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알게 모르게 재해석한다. 게다가 개종자 특유의 과열과 경망함으로 인해 장차 그들이 되레 앞장서 비난할 수도 있는 문제성들을 놓치기도 한다. 티베트불교의 입장도 다를 바 없다. 티베트불교의 탄탄하고 정교한 교리적인 로드맵이, 어쩌면 티베트교단 내에 질기게 죽치고 앉은 서열체계에 대한 개종자들의 불만과 저항에 치어, 졸지에 구겨질 수도 있다. 또한 대개의 종교가 그렇듯, 티베트불교 역시 여성하위를 용인함으로써 결국 탄트라여신에 대한 환상을 스스로 깨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미국에 새롭게 이식된 형태의 불교라는 믿음은 바야흐로 제2, 제3 세대로 들어서고 있다. 모든 지어진 바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제행무상의 불교기본교의에 비추어, 이제 불교를 맞아들인 미국의 장래 또한 그 과거만치나 현란한 형형색색의 그림들을 가없이 펼쳐 가리라.

편역 /성휴 스님

(출처:Buddha Sasana 재단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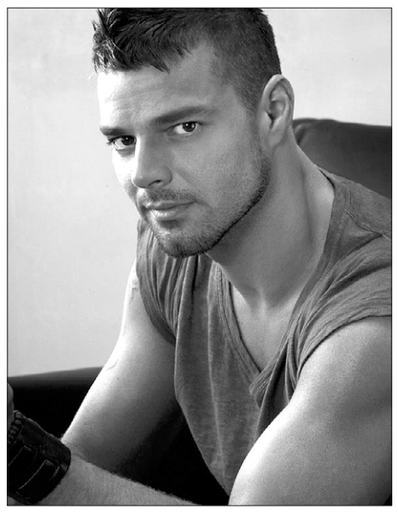


잰 내티어(Jan Nattier)
하버드대학서 종교학 박사학위 취득,
현재 인디아나 대학 종교학과 교수.

노래로 전하는 부처님의 자비정신

월드★불심도★

만능록스타 리키 마틴 ❶



금년 초 라틴계 종합연예미디어인 보이 라디오는 리키 마틴(Ricky Martin)이 수정으로 만들어진 작은 불상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보도했다. 그는 처음 불교와 만났을 때는 불상이 마치 부적이나 우상처럼 여겨졌으나 얼마 전부터 그 불상을 손에 꼭 쥐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마음의 평온을 얻고 부처님의 가호와 행운이 온몸으로 따스하게 퍼져나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팝계는 물론 남미 전역에 걸쳐 십대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어온 리키 마틴은 빼어난 외모와 잘 가꿔진 체격, 그리고 다재다능한 천부적 소질을 고루 지닌 만능 엔터테이너다.

심리학자인 아버지와 회계사인 어머니를 둔 그는 1981년 카리브해의 미국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 거기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찍부터 끼를 보인 그는 이미 여섯 살 때 텔레비전 광고에 출연했고 교회에서는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하고 학교에서는 연극에도 출연했다. 그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성악과 연기지도를 받은 그는 열두 살이 되던 해 정식 오디션을 거쳐 보컬 밴드 메누도에 합류했다. 그 후 5년동안 리드 싱어로서 그룹이 국제무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는데 주역을 했다.

어린시절 부모 이혼·재결합으로 큰 혼란
화려한 배경 뒤 내면의 상처 불교로 치유

메누도에서 자리를 굳힌 그는 1989년 그룹을 떠나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고교 정규과정을 마쳤다. 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멕시코로 들어가 예전에 함께 활동하던 메누도의 멤버 중 하나인 로비 로사와 함께 만든 작품들을 모아 데뷔 앨범을 냈는데 라틴음악차트에서 상당히 히트를 쳤다. 이처럼 순조로운 재기에 이어 그 후에도 그 둘은 줄곧 공동으로 작업을 계속하여 마침내 2년 뒤에 '날 사랑했어(Me Amara)'로 남미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준수한 용모와 음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그는 라틴뮤직계를 한 손에 거머쥔 한편, 명연기자로서 멕시코 영화계를 주름 잡기도 했다.

그가 최초로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로 취입한 앨범 '리키 마틴'은 1999년 봄에 출시됐다. 그 중 특히 '미친 삶을 살며(Livin' la Vida Loca)'와 '그녀는 나의 모두였어(She's All I Ever Had)' 등 싱글이 흥행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순식간에 국제적인 슈퍼스타로 급부상했다.

그 후로 '소리를 타고(Sound Loaded)'를 발표하고, 2001년에는 다시 스페인어로 취입한 '역사(La Historia)', 2003년에는 '침묵의 영혼들(Almas del Silencio)' 등이 출시하자마자 거푸 히트를 쳤으며, 2005년 '삶(Life)'을 취입하면서 다시 영어 팝으로 선회를 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새 앨범인 '전자악기를 뺀 음악텔레비전(MTV Unplugged)'으로 라틴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고 '너의 추억(Tu Recuerdo)'은 올해의 앨범과 올해의 음반으로 동시에 선정됐다. 이처럼 그는 화려하고 거침없는 연예 커리어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그는 두 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거의 편모 슬하에서 힘들고 외로운 유아기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 그 동안 재혼을 하여 얻은 아이 셋을 데리고 다시 나타난 아버지와 재결합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극도의 혼란과 분노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그가 할리우드 불교계의 거목인 리처드 기어나 키아누 리브스, 올랜도 블룸, 샤론 스톤, 티나 터너,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의 애덤 요크 등처럼 독실한 불교수행자의 길을 택할지는 알 수 없다. 아니면 해리슨 포드나 마이클 스타입, 또는 제니퍼 로페즈 등처럼 늘 마음속 깊이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들의 각자 택하는 길이 어떠하든 붓다의 손길이 가리키는 그곳은 하나, 바르고 고운 삶일 따름이다.

성휴 스님

그 무엇이든 마땅히 가르고 헤아려 보아,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는 고운 길이라면 부디 그 가르침을 믿고 매달려 그대의 길잡이로 삼을 지라

– 붓다

whatsoever, after due examination and analysis, you find to be kind, conducive to the good and welfare of all beings – believe and cling to that doctrine, and take it as your guide.

– the Buddha

"미얀마 평화를 기원합니다"

MIT 불교학생회, 철야침묵기도회

최근 미얀마 참사가 전 세계적 분노와 항의를 촉발한 가운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불교학생회인 MIT 프라즈노파야 (Prajnopaya)에서도 지난 3일 미얀마 평화를 위한 철야침묵기도회를 개최했다.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뜻하는 프라즈나, 그리고 방편을 뜻하는 우파야를 합성한 이름의 이 불교학생회는 미국 각 대학의 수많은 불교학생 동아리들 중 하나로 월례 정규 스케줄에 따라 매주 수요 정규법회와 불경스터디 그룹, 토론 및 특강과 참선 등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가에 소재한 동 대학본부 건물의 계단에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실시된 이 철야기도행사에는 지도법사와 불자 임직원 및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다수 참여하여 최근 발생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비폭력적인 반정부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한 사상자들과 그 선봉에 나섰던 불교 승려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했다.

또한 그들은 산화에 앞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불자로서의 무한한 자비심을 발휘해야 할 것임을 새로이 다짐했다.



미얀마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MIT 불교학생회.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원인이 있습니다"

* 관세음 *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천도재) 전문 기도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잦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교
- 1998년 7月 24日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탱화 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가내길상 "수묵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 김병룡)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⑦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5 故經云 若偏修禪定福德 不學智慧 名之曰愚 偏學智慧 不修禪定福德 名之曰狂 狂愚之過 雖小不同 邪見輪轉 蓋無差別 若不均等 此則行乖圓備 何能疾登極果

여기에서는 지관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수행할 경우 그 폐단에 대해서 경전에서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다. 수행인이 선정에 의한 복덕을 오로지 유위법으로만 짓고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끝내 생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복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에서 숱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는 반대로 지혜 쪽으로만 치우치게 배운다면 이를 두고 복만 있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복이라고 한다. 예를 든다면 위로는 천문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를 통달하여 세간의 지혜와 변재가 특출하게 뛰어난 인재라 해도 일생을 가난하고 괴롭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미친 지혜만 있고 복은 없기 때문이다.

복덕만 짓고 지혜 닦지 않으면
끝내 생사의 세계 못 벗어나

미친 지혜와 어리석은 복, 이 둘의 허물이 동일하지 않으나 끝내 그 모두는 잘못된 복과 지혜를 끝까지 다 사용한다 해도 생사에서 벗어난 대해탈인은 되지 못한다. 모두가 생사윤회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일 뿐인 것이다.

지관수행이 평등하지 못하고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은 빠짐없이 원융한 중도를 어긋나 위없는 극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해도 끝내 그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령 염불수행을 할 때 입으로만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마음속으로 망상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이는 관수행만 있을 뿐 지수행이 없으므로 지혜만 있고 그를 뒷받침할 선정이 없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망념은 없으나 그 마음이 애매모호하게 어둡다면 이는 지수행만 있을 뿐 관수행이 전혀 없어 선정만 있고 지혜는 없게 된다. 이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염불수행을 한다면 결정코 깨달음의 이익을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정과 지혜가 원융하고 마음과 행위가 합일한 상태에서 일념으로 염불해야만 정토업을 신속하게 이루고 극락구품연대에 높게 오를 수 있고 끝내는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위없는 보리과를 증득할 수 있다.

故經云 聲聞之人定力多故 不見佛性

이 문단에서도 경전에서 인용하여 지관을 쌍으로 운행하는 것이 절실히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위의 문단에서 수행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만일 선정 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지혜가 없는 바짝 마른 선정에 떨어지고 지혜 쪽으로만 닦는다면 미친 지혜로 타락한다 하였다.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지관을 수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지관이 균등해야 하고 정혜가 원융해야만 한다고 거듭 경전에서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문'은 부처님이 사제(四諦)설법하는 음성교화를 직접 들어야만 도를 깨닫는 자란 의미이다. 이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소승인이다.

성문은 유를 버리고 공을 관찰하는 것으로 처음 발심주(發心住)에서 불퇴위인 제칠주에 이르러 삼계견사혹(三界見思惑)을 끊고 다시 제팔주에서 제십주에 이르러서 진사혹(塵沙惑)을 수행해서 깨달은 분야만큼 타파한다. 그러므로 진제의 공에서 다시 속제인 현실 가유로 나와 중도불성의 이치를 비량으로 흡사하게 이해하긴 하나 그 이치를 명료하게 깨닫지는 못한다. 그 경지는 마치 비단으로 눈을 가리고 밝은 달을 겨우 희미하게 보는 것과도 같다 한다.

諸佛如來定慧力等 是故了了 見於佛性

유독 여래만이 비공비유(非空非有)의 이치를 명료하게 통달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즉공즉유(卽空卽有) 할 수 있어 공과 유를 쌍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이를 동시에 쌍으로 긍정하는 묘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경지는 공과 유가 둘이 아니고 정혜가 평등하여 이변이 상대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변을 떠난 따로의 중도도 안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부처님은 명료하게 중도불성의 이치를 볼 수 있다.

육도세계의 범부는 현상 유에 집착하고, 성문은 현실 유를 떠난 따로의 공에 집착하고, 보살은 제도 받을 중생과 제도하는 자신이 있다는 이변업(二邊業)에 집착한다.

그들 모두는 방향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부처님만은 공과 유를 동시에 떠난 상태에서 다시 즉공즉유하며, 이변을 버리고 중도마저 멀리하여 오직 원융한 중도묘관으로 불성의 이치를 철저하게 관조한다. 그 경지는 공도 유도 중도도 아니지만 공과 유와 중도가 따로 분리하지 않고 바로 상즉관계를 이룬다.[비공비유비중도 즉공즉유즉중도(非空非有非中道 卽空卽有卽中道)]

한쪽에 치우친 수행, 중도의 이치 못봐
반드시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뚜렷해야

이는 일체 현실의 차별상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일체법과 상즉관계로서 상즉을 떠났지만 상즉 아님까지도 떠나 바로 상즉인 상태에서 즉시 상즉의 모습도 아니다. [이즉이비 시즉비즉(離卽離非 是卽非卽)]때문에 중도불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여래의 선정과 삼매는 무엇을 통해서 증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관을 수행함으로써만 성취된다. 지는 선정이고 관은 지혜이다 . 정혜를 원융하게 이루고 지관을 평등하게 수행하여 고요와 관조가 둘이 아니고[적조불이(寂照不二)]지혜광명과 마음의 고요가 하나의 자체[명정일체(明靜一體)]라야만 여래의 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수행폐단이 없게 된다.

옛날 큰스님은 말하기를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뚜렷하면 옳고[적적성성시(寂寂惺惺是)] 고요한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틀린 것이다[적적무기비(寂寂無記非)]" 라고 하였다.

이처럼 마음이 뚜렷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관수행만 있고 지수행이 없게 되므로 [유관무지(有觀無止)] 지혜만 있고 선정은 없게 되며, 반대로 고요한 쪽으로만 치우치면 지수행만 있고 관수행은 없게 되어[유지무관(有止無觀)] 선정만 있고 지혜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친 수행을 한다면 끝내 선정과 지혜에 있어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는 중도불성의 이치를 보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항상 고요한 가운데 항상 뚜렷해야만 한다. [상적적이상성성(常寂寂而常惺惺)] 고요할 땐 마음에 조금도 흐릿함이 없이 분명해야만 하는데 이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분명히 관조하는 모습이다. [즉적이조(卽寂而照)] 또 항상 뚜렷한 상태에서 항상 고요하여 분명하게 관조하면서도 일념망상도 일어나지 않고 바로 관조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요해야만 한다. [즉조이적(卽照而寂)] 따라서 마음은 고요한 상태에서 항상 분명함은 즉지이관(卽止而觀)이고 항상 분명한 상태에서 항상 고요함은 즉관이지(卽觀而止)다.

이를 두고 마음이 분명함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며[성적불이(惺寂不二)] 지와 관이 일여함이라 하는데[지관일여(止觀一如)], 이처럼 지관을 쌍으로 운행해야만 진실한 지관수행이고 그에 따른 정혜도 원융함이라고 한다.

일념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항상 뚜렷하고, 뚜렷한 가운데 한 생각 망상도 일으키지 않아야만 선정과 지혜가 이를 따라 일어나며 지혜의 밝음과 마음의 고요가 동시에 환하게 발현한다. 이것이 지관수행의 요체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모든 업의 원인인 미혹(惑)

우리는 모든 행위의 업이 원인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괴로움이라는 현실적 결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과의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들 모든 업의 행위는 무엇이 그 원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모든 유정들의 업은 그 무엇이 원인이고 또 어떤 도리를 의지해서 이처럼 한량없는 행위를 일으키면서 그에 따른 빈틈없는 괴로움의 과보를 빠뜨림 없이 부르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말씀하시길 "중생들의 모든 행위는 무명번뇌(無明煩惱)를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생들의 모든 업은 무명번뇌, 즉 '혹(惑)'이 그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한데 이를 무엇 때문에 '혹'이라 하는가. 그것은 다름

무명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자체
생사의 인과가 상속하는 모습

이 아니라 현상사물과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본 이치, 모든 이사(理事)에 무명으로 미혹하여 잘못 분별하고 집착하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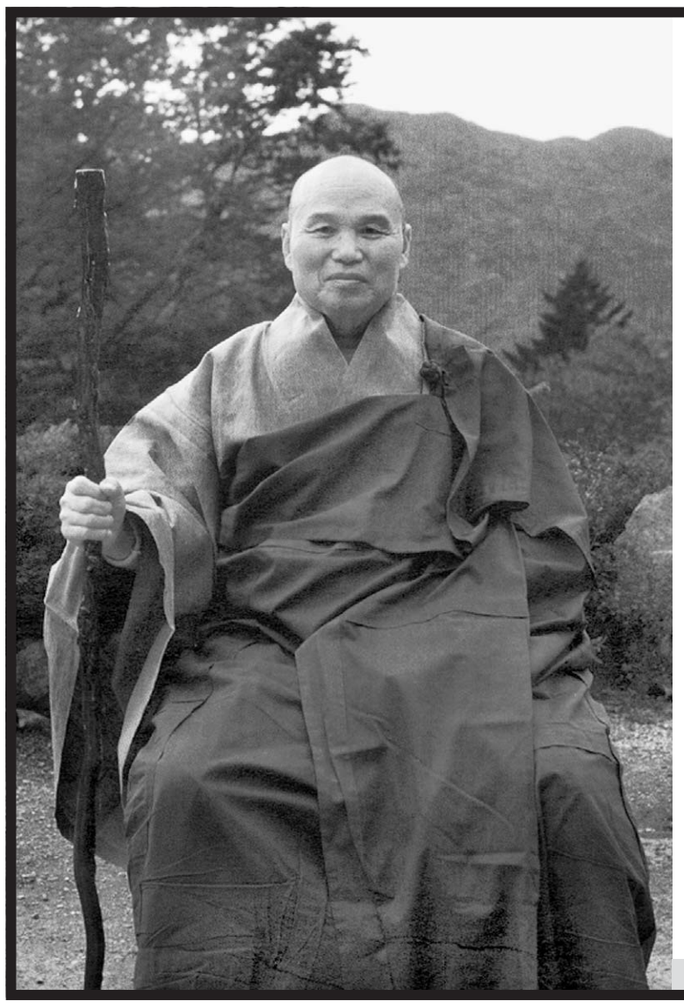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모든 유정들은 사물과 이치의 실체적 근원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럴까 저럴까 불안해하면서 순간순간 의혹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체의 무명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자체입니다.

따라서 '혹'이야말로 모든 번뇌의 근본이자 모든 업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혹'과 '업'이 다시 한 덩어리의 원인을 이루어 그에 따른 괴로움의 과보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혹업고인과상속설(惑業苦因果相續說)' 입니다.

중생들의 한량없는 생사윤회의 모습은 모두 '혹업'이 원인이 되고 '고'가 그 과보가 되는, 즉 인과상속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혹업고'의 상속순환을 두고 '생사윤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업을 일으키는 번뇌의 성질을 규명해 보면 그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질은 고요히 안정된 확신의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자신과 타인 모두를 혼란시키고 핍박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지적하여 이를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번뇌'라고 말합니다. [성불적정 뇌란자타(性不寂靜 惱亂自他)].

■정리=張如舟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철 대종사 열반 14주기를 맞이하여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2007년 성철대종사 열반 14주기는, 해방 후 '부처님 법대로 살자' 고 모인 봉암사 결사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 생전의 그 큰 가르침은 세월이 더할수록 마음의 눈을 닦아가려는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요 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는 올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주일 동안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종교를 나의 종교처럼 존중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나의 일천배가 뭇 중생을 위한 팔만사천배의 회향이 되도록 모두 동참하시어 이 땅이 불국토의 자비와 복덕이 두루 넘치기를 바랍니다.

● 첫째날(10월 23일) 마음이 불행하고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 세상 곳곳에 마음이 불행하고 몸이 아픈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입니다.
● 둘째날(10월 24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어둡고 험한 곳만을 찾아다닌 부처님처럼, 소외받는 이웃에게 작은 마음을 바치고자 합니다.
● 셋째날(10월 25일) 자유와 권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기도
- 천상천하 유아독존, 삶의 자유와 권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누려야 할 최상의 선입니다.
● 넷째날(10월 26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기도
-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서로의 인격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다섯째날(10월 27일) 북녘 동포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 이념의 벽,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민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 여섯째날(10월 28일)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한 기도
- 나는 새, 서 있는 바위, 흐르는 물 할 것 없이 자연의 온갖 생명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 일곱째날(10월 29일) 영원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
- 팔만 사천 번뇌를 훌훌 털고 영원한 행복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 칠일칠야 참회법회 안내 】

▶입 재 | 2007년 10월 23일(음 9월 13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회 향 | 2007년 10월 30일(음 9월 20일), 오전 7시,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3천배 참회기도 | 2007년 10월 29일, 오전 10시~오후 6시, 큰스님 사리탑
▶추 모 재 | 2007년 10월 30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
※정념당에서는 칠일칠야 동안 참선정진을 합니다.

▶기도방법 | 매 두시간 단위로 천 배씩 이어집니다.
▶준 비 물 | 상하 법복(고름 있는 것), 수건, 세면용품 등을 준비하십시오.
▶동참방법 | 1인 5만원. 농협 843174-51-013873 예금주 : 해인사 백련암
▶문의전화 | 백련암(055)932-7300, 고심정사(051)464-0068~9, 장경각(02)2198-5372
※부산 매일 관광버스 운행 · 출발 | 오전 6시 30분 중앙동 고심정사 앞 · 백련암 출발 | 오후 4시

| 해인사 백련암 성철스님 문도회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 문의 전화 055) 932-7300 / 인터넷 http://www.songchol.net

선지식을 찾아서



고우 스님은 무한경쟁의 급물살에 휩쓸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면 너와 내가 더불어 발전하는 무한향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25세에 청암사 수도암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스님이 묵묵히 걸어온 길이 무한향상을 향한 한길이었다. 봉암사 축서사 김용사 용주사 등 제방선원에서 힘을 얻고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역임한 이후에는 선의 생활화, 사회화를 위해 세상 속으로 눈길을 돌렸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육조단경〉 및 각종 경전 강의와 법문으로 불자들의 바른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법회에 촌음을 아끼고 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부처님 시각으로 보라"

자연이 흘러가는 것만 봐도 가르침이 귀에 쟁쟁 울리는데, 이 가을 소나무 아래서 자라난 송이 향기로 가득한 봉화로 길을 나섰다. 자연이 품어내는 빛과 향기에 더해지는 선지식의 법향을 찾아 떠난 발걸음이 봉화 문수산 자락의 금봉암에서 멈춘다.

그곳에 고우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다. 금봉리 마을을 지나니 눈에 보이지도 않던 금봉암이 우뚝 나타난다. 들어올 때는 분명 숨어 있는 위치인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산세는 앞이 시원하게 뚫려 있다.

고우 스님이 진행 중인 불사는 이 뿐 아니다. 참선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하고 불교와 생활이 괴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불사, 출판 불사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 축서사에서 스님들이 모여 수행지침서 〈간화선〉 수정작업을 마무리하느라 밤 11시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모두들 금봉암에 와서 점심공양을 하고 이제 막 돌아갔습니다." 일흔을 넘긴 고우 스님의 체력은 놀랍다. 올 초, 6박 7일 동안 '중국 선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순례단을 이끌 당시 동행했던 기자는 스님의 체력을 여실히 보았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그 일정을 지친 기색한번 없이 이끌었던 스님이다.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이는 법이지. 나이에 비해 조금 건강하다 뿐이지 오랫동안 써온 몸이 탈이 안 날 수가 없지. 다만 그런 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면서 사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힘은 긍정의 힘과 통한다. 그러나 그 수용과 긍정의 힘은 쉬이 터득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수용과 긍정대신, 더 많은 것을 구한다.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자유인이 되는 불교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유인이 된 사람은 드물고 또 사는 동안 자유의 맛이라도 보며 가는 사람조차 흔치 않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쯤 되짚어보아야 한다.

"불교, 즉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부처님의 바른 시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시각과 중생의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처님이 본 것은 전체를 바로 본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중에 일부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는 시각대로 시각을 바꿔서 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 본 시각을 체험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행해 가서 그 자리로 환원해 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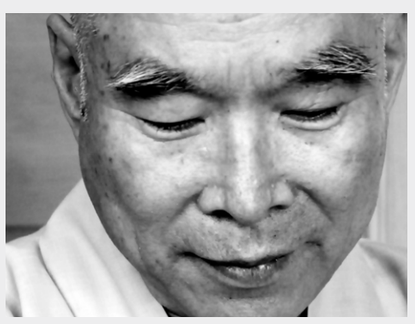
복잡했던 머릿속에 뻥하고 고속도로가 뚫리는 느낌이다. 많기도 한 불교수행법, 기도, 이론들이 한 줄로 꿰어진다. 부처님의 시각으로 환원하는 길이 열린다. 그럼 과연 부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시각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개공(五蘊皆空)입니다. 그 다음에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이고요. '오온이 공한 줄 알면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오온개공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리인데 그것이 우리 존재의 형상과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상에만 집착해 나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기심, 욕망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형상과 더불어 존재의 근본 원리인 공을 같이 봐서 나라는 것에서 자유로우니까,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욕망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해인사 팔만장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마지막 한 글자가 남는다면 그게 공입니다. 공은 그 정도로 의미가 깊습니다. 공의 의미와 가치를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는 갠지즈강의 모래 수만큼의 천백만겁을 보시하는 공덕보다 공을 이해하는 공덕이 크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덕이 '공(空)'의 이해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법의 대해로 나아가는 걸음을 옮겨 놓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공'이라는 걸림돌에 걸리고 만다. 그건 공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이해하는 첫발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부처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접근을 하지, 이것을 모르면 백날 천날 절에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고통을 끊고자 한다면 내 내면의 세계, 즉 공을 개발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 현상이 천 가지 만 가지가 되더라도 치유법은 공뿐입니다. 공은 만병통치약이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좋은 게 나타나든 나쁜 게 나타나든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고, 그것을 느끼는 나도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 고통을 벗어나게 됩니다."

'空'은 불교 이해의 시작이자 마지막 단계
존재 원리 이해하고 관조하면 깨달음 얻어



한걸음, 또 한걸음, 스님의 법문은 동화 '헨델과 그레텔'에 나오는 빵조각처럼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잡이다. 길을 잃고 위험에 처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표식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반가운 소식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건너뛸 수 없는 것, 그게 공이다.

"혹자는 공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공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단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연기(緣起)라고 하는데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실체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은 이것을 주장했고, 또 당신이 직접 그것을 체험해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과학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 파인만은 자기 몸뚱이를 원자 덩어리라고 했어요. 단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고 했습니다. 듣고 보는 우리의 존재가 연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단일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 덩어리고 수 억 만개의 원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어느 원자를 갖고 독립된 자기라고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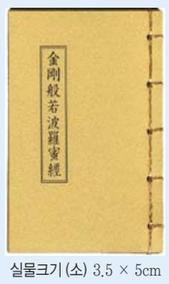
스님은 원자, 중성자, 쿼크, 힉스 등 현대물리학의 용어까지 끌어와 공과 연기를 설명한다. '공부에서 짝퉁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현대인들이 쓰는 쉽고 친숙한 용어도 등장한다. 가급적 어려운 말을 피하고 일반인에게 불교를 이해시키겠다는 스님의 뜻이다. 그리고 스님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불교 역할을 강조한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과학은 무기도 될 수 있고 편리와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과학이 몸뚱이라면 올바른 시각을 가진 머리가 필요해요. 불교가 과학의 머리가 돼서 인류 모두에게 풍요와 평화를 주는 과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같은 시대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신통방통하다 싶으면서도 이기심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인류가 절망에 빠져있는 지금이 오히려 절실히 불교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기심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개개인이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하고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불교의 생활화이고 사회화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활화는 상구보리요, 사회화는 하화중생을 말합니다. 불교는 없는 것을 바깥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쓰는 것이라 쉽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성의를 기울이지 않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돈벌이하는 것만큼 노력 해봐요! 당장 도통했지. 하하하! 정견을 갖추려는 노력을 꼭 해야 합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서 깨닫지 못하면 반야로써 관조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반야는 깨닫지 않은 반야예요. 반야 즉, 존재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관조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선지식을 만나도 못 깨닫고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은 선지식이 없어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즉 그만큼 정견이 중요합니다."

정견을 갖춘 후 앞으로 나아갈 때, 처처에서 선지식을 만날 것이요, 정견을 갖추지 못하면 눈 뜬 장님처럼 부처를 만나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따끔한 지적이다. 정견이라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나니, 금봉암을 나서는 밤길이 어둡지 않았다.

글 · 사진= 천미희 객원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용 소장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 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분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73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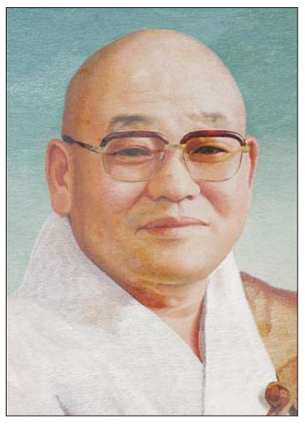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자수 30% 할인 한정 판매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 시간 지날수록 그 진가는 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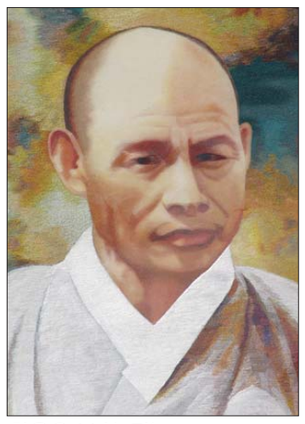
국내의 전통자수는 고임금 고효율의 사회변화로 70년대 이후 한복자수와 특수한 목적의 종교화 등 몇 안 되는 분야에서 근근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자수는 만수대 창작사 소속 1천2백여 수예창작단이 전통자수 외에 핸드포토(초상자수), 종교화, 소품 등으로 그 범위를 확산시켜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근세예술의 극치' 라고 인정받고 있다.

손자수의 예술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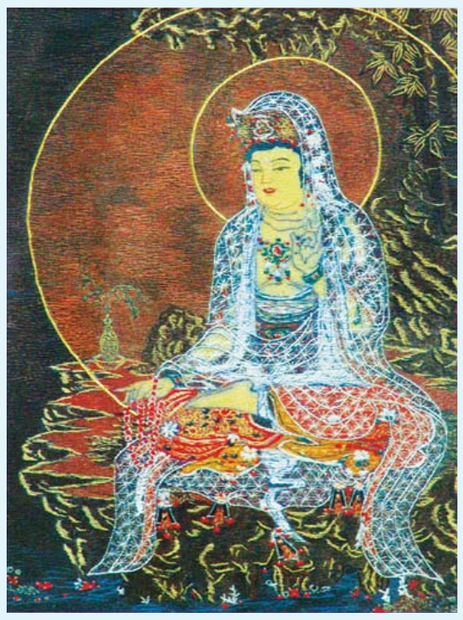
핸드포토는 한가지 대상을 놓고 100점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자수를 놓는 장인의 해석과 개성에 따라 각각 다른 감각과 질의 성품을 지닌 작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으로 탄생하게 된다. 동양의 사상문화가 다시 조명 받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동양의 문화예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만수대 창작사' 의 초상자수는 외국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더하게 될 것이다.



법장스님(1점)
◆자수 크기 : 58(가로)cm×78(세로)cm
◆액자 크기 : 76(가로)cm×106(세로)cm
◆정상 가격 : ~~1,000,000~~ → 700,000원



한용운스님(1점)
◆자수 크기 : 58(가로)cm×78(세로)cm
◆액자 크기 : 78(가로)cm×98(세로)cm
◆정상 가격 : ~~1,000,000~~ → 700,000원



수월관음大(1점)
◆자수 크기 : 82.5(가로)cm×152(세로)cm
◆액자 크기 : 110(가로)cm×178(세로)cm
◆정상 가격 : ~~3,000,000~~ →
2,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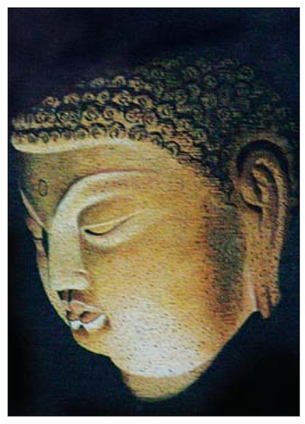
수월관음小(7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백의관음(3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1(가로)cm×46(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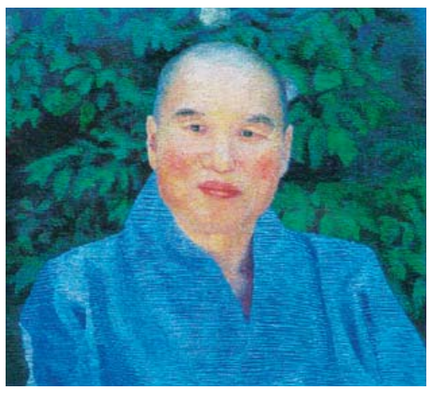
지장보살(3점)
◆자수 크기 : 9(가로)cm×23.5(세로)cm
◆액자 크기 : 31(가로)cm× 36(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석굴암 불두(12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성철스님1-양산(10점)
◆자수 크기 : 14(가로)cm×19(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성철스님2-정원(3점)
◆자수 크기 : 19(가로)cm×14(세로)cm
◆액자 크기 : 46(가로)cm×41(세로)cm
◆정상 가격 : ~~150,000~~ → 105,000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증전



김광식선생 경면주사 반야심경
◆기증자 : 김광식 선생 ◆작품 크기 : 36×41cm
◆가격 : 150,000원



현해스님 달마도
◆기증자 : 현해스님 ◆작품 크기 : 26×34cm
◆가격 : 75,000원



현해스님 복하도
◆기증자 : 현해스님 ◆작품 크기 : 26×34cm
◆가격 : 75,000원



지족스님기증 진언 2점
◆작품크기 : 34×110cm
◆가격 :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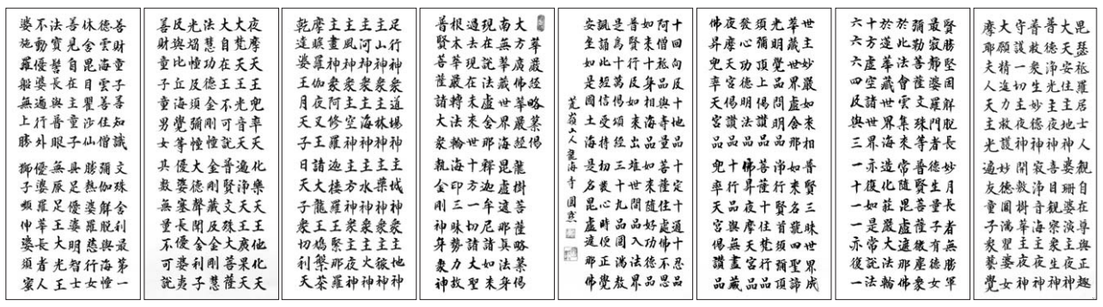
지족스님기증 글씨
◆작품크기 : 33×116cm
◆가격 : 500,000원



법흥스님 글씨2점
◆작품크기 : 33×138cm
◆가격 : 500,000원



활안스님 오도송 2점
◆작품크기 : 33×103cm
◆가격 : 1,000,000원



지족스님 기증 화엄경 약찬게 8폭 병풍 ◆기증자 : 지족스님 ◆작품 크기 : 33×63cm ◆가격 : 1,000,000원



금강경 금니 10폭 병풍 ◆앞 : 부모은중경금니 뒤 : 반야심경 ◆가격 : 2,000,000원



벽암스님(전 신원사 조실)금니 글씨 1점
◆기증자 : 이란 ◆작품 크기 : 32×113cm
◆가격 : 1,000,000원



원법스님(태고종 원로의원) 글씨 1점
◆기증자 : 원법스님 ◆작품 크기 : 26×100cm
◆가격 : 5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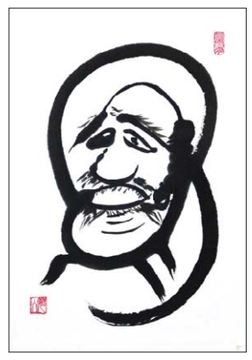
묵산스님 글씨
◆기증자 : 묵산스님 ◆작품 크기 : 33×115cm
◆가격 : 350,000원



도건스님 달마도
◆작품 크기 : 38×67cm
◆가격 : 150,000원



도건스님 금니달마도
◆작품 크기 : 35×50cm
◆가격 : 150,000원



묵산스님 달마도1점
◆작품 크기 : 35×50cm
◆가격 : 150,000원



수증스님 그림 족자
◆작품 크기 : 19×45cm
◆가격 : 150,000원



강물처럼 깊은 인심으로 소통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1 봉미산 신륵사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과 다층석탑



강 건너에서 본 신륵사와 강월헌



지공 · 나옹 · 무학 3화상 영정



신륵사 입구 상가마을

남한강 주변은 방금 물감을 풀어서 그린 그림처럼 촉촉하다. 이리 저리 몸을 비틀며 흘러온 강물은 신륵사 앞에 이르러 속도를 늦춘다. 강물은 이곳에서 여유를 지니고 신륵사와 함께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나이를 먹어 왔을지도 모른다.

신륵사는 마음씨 좋은 계모 같이 솟은 봉미산에 터를 닦았다. 원효 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다. 나옹 선사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유명한 절집이다. 1472년 영릉의 원찰로 삼아 보은사라 부르기도 하였다. 세조는 부왕 세종의 능침으로 신륵사를 지정하고 크게 중수하여 한때는 가람이 200여 칸에 되는 대찰이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 대각 국사의 제자 도원 스님이 중수했고 고려 말에는 각신 · 각주 스님이 개수를 했다. 나옹 선사가 친필 현판을 '천추만세'라고 써서 걸었는데 그는 신륵사에서 열반하였다.

외기러기 가로 날려 흙흙암에 이르러
설 곳을 얻지 못하니 이내 쉬었네
이제 이 흙흙암을 버리고 떠나가니
사해 오호에서 마음대로 놀리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선사의 도량이 넘다
크게 느껴진다.

신륵사에는 창건설화가 있다. 원효 대사의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연못을 가리키며 신성한 가람이 설 곳이라고 일러준 후 사라졌다. 연못을 메워 절집을 지으려고 하였지만 용이 연못을 지키고 있어 짓지 못하였다. 원효 대사가 7일동안 기도로 정성을 드린 뒤 9마리 용이 승천하여 연못을 비워 절집을 지었다고 한다. 원효는 극락보전을 짓고 경내에서 좀 떨어진 야산에 7층 전탑을 세웠다. 그런 연유인지 사하촌 천송리 사람들은 벽절이라고도 부른다.

절집 이름에도 유래가 있다. 고려 고종 때 강 건너 마을에 용마가 나타나 겁잡을 수 없이 사나워 사람들이 붙잡을 수가 없었단다. 그 때 인당 대사가 나타나서 용마의 고삐를 잡자 말이 순해졌다. 이것을 두고 신력으로 말을 제압하였다는 뜻으로 신륵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하촌에서 간광철 이장님을 만났다. 천송리는 300가구에 420세대가 살고 있는 도시와 농촌이 접목되어 있는 마을이다. 농사는 소규모로 짓고 대부분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며 생활을 한다. 원래 천송리는 신륵사가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자연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다.

"사하촌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 쌀을 이고 절집을 드나들며 정성을 들였지요. 지금은 옛날의 정성만 못한데 이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 주로 불전을 농산물로 바쳤지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농산물을 스님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자 마음이 상해서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초하루나 보름에 절집에 들러 정성들이던 사하촌 어머니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7년 전 절집과 사하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조계종의 계획에 따라 일주문 안에 살던 민가들을 산문 밖으로 이주시켰다. 군에서 개발을 하여 저렴하게 분양을 했는데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무리 없이 해결되었다. 절집과 사하촌 사람들은 물길을 닮아 집요하게 욕심을 부리는 일이 없었던 듯하다.

천송리 사람들은 강을 건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돛단배를 이용하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도 시간 맞춰 포구로 나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다녔다. 마을 사람들 중 간씨네만 어부 노릇을 하며 배를 부렸다. 배 삯은 일 년에 두 번 받았는데, 여름에는 보리 2말 가을에는 쌀 2말을 받았다. 그것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대부분 고기를 잡아 매운탕 집에 팔아서 먹고 살았다.

"남한강의 물길은 사람들에게 길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악마로 변하여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했지요. 장마철을 지나며 엄청나게 불어난 수위가 들을 삼키고 집을 위협하기도 하였지요. 돼지와 닭이 떠내려가는 붉은 강물의 노도 때문에 강은 거대하게 부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강물의 반항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 익사사고가 나면 절집에서 넋을 건지는 재를 올려 주었어요." 사하촌 사람들의 궂은일에 절집은 정성을 기울여 마음으로 보듬은 듯하다.

신륵사 앞 이포와 조포나루터는 영월, 충주에서 내려오는 뗏목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다. 쌀, 항아리, 배 등을 싣고 바람이 불면 돛을 달고 바람이 없으면 삿대로 끌고 다녔다. 조포나루가 유명했던 것은 지금은 없어진 수여선이 때문이란다. 돛단배로 조포나루터까지 와서 수원 가는 기차를 타고 가서 물건을 팔고 다시 바람을 이용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사공들의 뱃길이었다. 나루터가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다리였던 셈이다.

조포나루터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63년 안양 흥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49명의 생명을 잃었던 사건 때문이다. 그 이후로 다리가 생기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고기와 물과 추억을 제공했던 강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그러나 서울 도심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절집에 드나들게 되면서 마을사람들은 여관 영업을 하고 기념품점을 차려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한 때 아버지가 스님이었다는 김영구씨는 옛날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신륵사는 주로 대처승들이 머물던 절집이었는데, 조계종 정화 운동을 할 때 최원정 스님이 오셨지요. 옛날에는 스님이 많지 않았고 전부 노스님들이었어요. 조계종 사찰이 된 후로 오신 이정무 스님은 정말 기억에 남는 스님입니다. 스님은 돈을 모르는 분이었지요.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서 한문도 가르쳐 주었고 <반야심경> 같은 불교 공부도 가르쳐 주면서 먹이고 재워주었지요. 그것이 지금의 템플스테이와 비슷합니다. 그때 사하촌에는 대처승의 자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 조포나루터에는 신륵사 스님의 전용배도 있었다. 동네 젊은 사람들이 스님이 강을 건너 갈 때나 여주시장에 나갈 때 뱃사공이 되기를 즐겨했다. 그것은 스님이 배고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한양대박물관 세미나실에서는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로 '가족, 영화愛 빠진날' 행사가 10월 25일 열린다. 이번 주에는 '미스 리틀 선샤인'을 상영, 가족과 함께 영화제 관람권을 소지하고 찾으면 기념품이 증정된다. (02)3395-9447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놀면서 배우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이라는 주제로 과학연극공연, 실험체험마당, 과학완구전시, 놀이기구 탑승 등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간은 10월 28일 10시부터이며 부대행사로는 사이언스 매직쇼 등도 마련된다. (02)3677-0892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체험, 인체의 신비전'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11월 11일까지 계속되며, 제3, 4전시실을 이용해 다양한 인체 작용을 실제 인체 모델을 통해 볼 수 있어 생생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031)481-3838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한아름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마당을 나온 암탉' 원화사진 전시 및 황선미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10월 23~31일 원화사진 20여 점, 황선미 작가 동화책 등이 전시된다.(031)218-0400

부산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서는
10월 24~27일 최신예 해군 구축함 등 4척을 공개한다. 이 행사에는 누구나 견학 가능하며 특히 해군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 제3함대사령부 행정과(051-679-4120)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점토 인형이 막~ 움직여요

역삼청소년수련관 클레이봉사단 활동











"오늘은 점토로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해 볼 거에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요!"

10월 13일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진정순). 어른 · 청소년 · 어린이가 각각 섞여 6모둠을 만들었다. 각 모둠 앞에 놓여진 것은 갖가지 색깔의 점토와 스티로폼 판, 이쑤시개, 인형 눈알 등의 만들기 도구들이다. 벌써 점토 봉지를 뜯고 반죽에 열심인 아이들도 눈에 띈다.

어렸을 적, 점토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말랑말랑한 촉감과 내 마음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점토의 특성 때문이다.

그런 점토를 조금씩 변형시켜가며 만드는 것이 '클레이애니메이션'이다. 용어는 다소 생소한 듯 해도 우리는 꽤 많은 클레이애니메이션을 접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크리스마스의 악몽', '월레스와 그로밋', '치킨 런'등이 바로 클레이애니메이션 작품들이다. 이날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모인 아이들의 활동이 이런 클레이애니메이션의 기본을 체험해 보는 것이었다.

한 모둠마다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다. 먼저 어린이. 역시 어린이가 맡은 부분은 상상력이다. 이들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생각은 창작 활동에서 빛난다. 어떤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캐릭터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마구 쏟아 내는 아이디어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외친다.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진짜 웃길 거에요."

다음은 청소년. 이들이야말로 '중심'이다. 어린이들의 못 말리는 상상력에 약간의 '태클'을 걸면서 조율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게다가 점토 만들기에도, 촬영에도, 이야기 만들기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이들이 청소년이다.

그리고 어른. 여기서 어른의 역할은 큰 방향 잡아주기다. 애니메이션 제작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인 촬영도 담당한다. 아이들 뒤치다꺼리도 어른의 몫이다.

이날 모인 청소년과 어른 20여명은 사실 '클레이봉사단' 소속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인근 복지관 방과후 교실 아이들로 대부분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고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더러 있다. 접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클레이봉사단은 3개월 전부터 수련관에서 클레이애니메이션 제작 교육을 받아왔다. 이들은 방과후 교실 아이들과 함께 클레이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제작과정을 습득해 온 것이다.

아버지의 권유로 클레이봉사단에 참여했다는 선하(18)는 중국 유학을 다녀와서 현재 검정고시 준비 중이다. 선하는 클레이봉사단 활동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혹시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고민했는데 너무 밝고 귀여워요. 애들 만나면서 봉사활동은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기도 하죠."

청소년들과 어린이 사이에는 별다른 접합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모여도 서로의 공감대만 찾으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아이들의 생각이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것도, 장애를 가졌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함께 어울리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이다.

클레이애니메이션 점토 인형만들기를 지켜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캐릭터가 인기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특히 '스폰지 밥'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익살스런 모습에 노란 스폰지 모양이라 만들기도 수월한 편이다.

어떤 모둠에서는 스폰지 밥, 졸라맨, 거대토끼, 보노보노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6명이 모여 상어를 잡아 사이좋게 구워먹는 스토리가 전개되기도 했다. 또 한 모둠은 얼마 전 인기리에 상영됐던 '디워'의 이무기를 재현해 내기도 했다. 이무기와 생쥐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마도 아이들의 상상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만들고 촬영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클레이애니메이션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장면을 찍고 점토 인형을 움직이고, 다시 한 장면을 찍고 점토를 움직여 수십 장이 모여야 30초~1분짜리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

힘들고 지칠 법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점토 인형이 카메라 안에서 다른 생명체가 된 것인 양 움직이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클레이봉사단과 아이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이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이 함께 만들어낸 클레이애니메이션 속에는 서로의 마음 속 따뜻함이 녹아들었다. 모두 친구가 되고, 싸우다가도 금세 화해하는 캐릭터들을 창조해 낸 사람들이 만들어 나갈 세상, 기대해 봄직하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108염주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불멸의 염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점안해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믿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께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평생부자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 얻으리라!

소중한 친지에게 사업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 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가로5cm 폭2cm 줄길이15cm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축원불공마친 비방!!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 거울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 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38.000원

전화 : (02)741-4477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가을이면 하늘도 더 파랗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들길에 나가면 황금벼 이삭들이 고요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지요. 가을햇살은 너무 뜨겁지가 않아서 좋고요. 산길을 오르다가 툭하고 떨어지는 알밤이 마치 법문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가을이면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란 시가 유난히 생각이 나요.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나를 보아야 될 시간 같아서요.

편자 : 말굽에 대어 붙이는 'U'자 모양의 쇳조각.(편자를 새로 신긴 황소의 걸음이 더 호기 있어 보였다.)<황순원, 카인의 후예>

에돌다 : 먼저 '곧바로 선뜻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리 피하여 돌다'는 뜻이 있어요.(독일을 가로질러 유고슬라비아로, 터키를 에돌아서 인도로, 노중국경을 지나...)<최인훈, 총독의 소리> 또, '이리저리 빙빙 베돌거나 휘돌다'는 의미로도 쓰여요.(성호가 가져왔을 용건이 궁금하면서도 쓸데없이 엉뚱한 데에서만 빙빙 에돌고 있는 자기가 퍽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뉘우쳐졌다.)<황순원, 움직이는 성>

샌님 : '상사람이 선비를 부르던 말'로 '생원님'이라고도 씁니다.(나라 상감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일을 샌님이 걱정하신다고 안 될 일이 되겠습니까.)<박경리, 토지> 또 '얌전하고 고루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기도 해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역마살' 민속적 소재 통해 인간 운명 다뤄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동리 作 '역마'

김동리(1913~1995)는 한국의 통속적 세계를 토대로,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많이 남겼죠. '역마'는 1948년 <백민>에 발표된 김동리의 단편소설로 이른바 역마살(한 곳에서 편히 지내지 못하고 늘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액운)로 표상되는 '당사주'라는 동양인과 한국인의 깊은 운명관을 형상화한 작품이죠.

'역마살'이라는 민속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다룬 이 작품은 김동리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나타나는 '무녀도', '황토기', '바위' 등과 함께, 전통 지향적인 면모를 잘 보여 주고 있는 초기 대표작 가운데 하나예요.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꾸려가며 혼자 살고 있는, 마음씨 착한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사주팔자에 의해 역마살이 끼면 집에 머물지 못한다기에 이를 지우기 위해 성기가 열 살이 되던 해에 쌍계사란 절에 보냈다.

어느 날, 나이가 예순도 훨씬 더 넘은 체장수 영감이 과년한 딸을 데리고 옥화네 주막으로 와서 딸 계연을 당분간 맡기고 떠난다. 그리고 옥화는, 성기가 스님이 되어서도 못다 푼 살을 책장사를 통해서 풀어 보려고 장날에는 책장사를 시킨다. 계연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들려주다가 성기와 마주 보게 되고, 성기는 갑자기 가슴이 떨리고 눈에 생기를 띠게 된다. 그러다가 성기와 계연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성기가 결혼하여 역마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옥화는 아들 성기를 정착시키려 한다.

어느 날, 계연의 귓바퀴에 난 사마귀를 보고 놀란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옥화가 명도를 찾아가 알아본 바로는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이라는 것이었다. 체장수 영감이 돌아와 계연과 함께 떠나게 되고, 결국 성기와 계연의 사랑은 천륜에 의해 운명적으로 좌절된다.

전통지향적 면모 보이는 대표작
동양 · 한국인의 깊은 운명관 형상

옥화는 '체장수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이 화개장터에 와서 하룻밤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과 계연의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성기에게 이야기 한다. 성기는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심하게 앓게 된다. 그러나 성기는 결국 그 병을 이겨내고는 엿판을 지고 육자배기 가락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운명에 순응, 화개장터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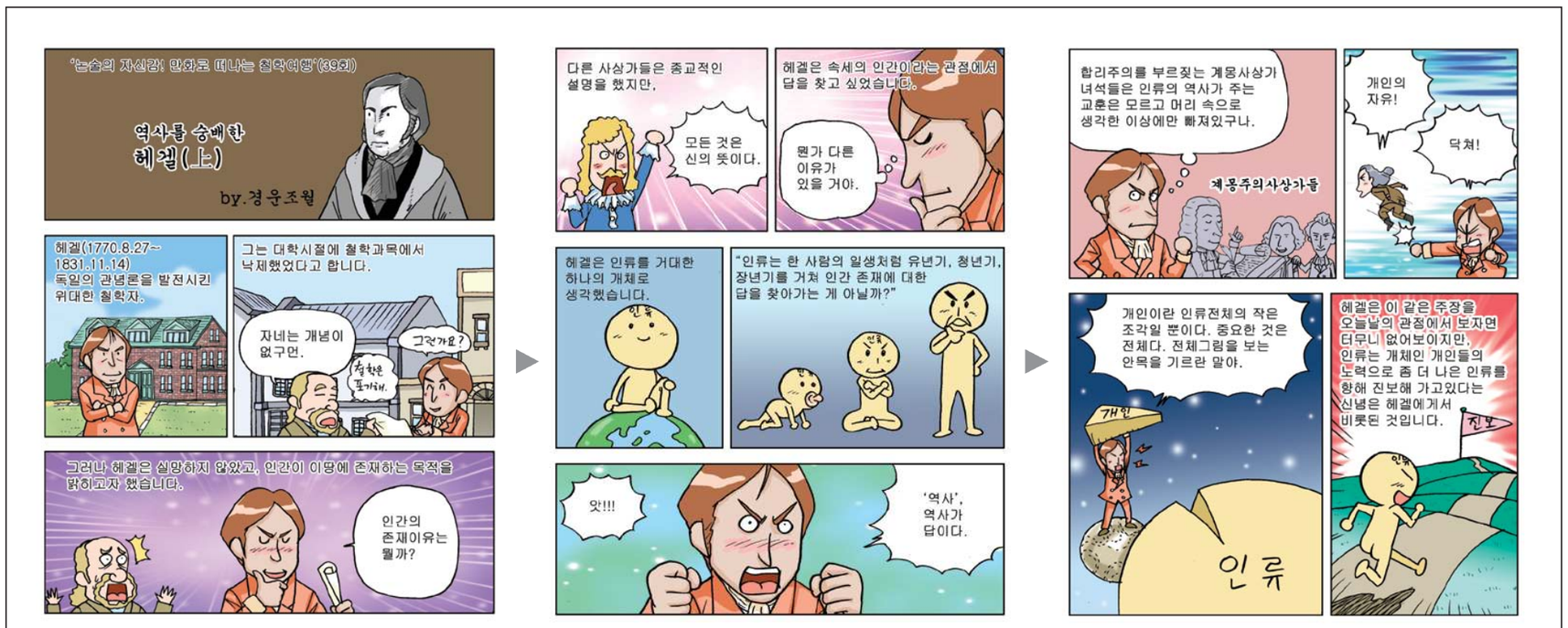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운명에의 순응과 그에 따른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나타내고 있지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어진 역마살에 둘러싸여 있어요. 또한 소설의 배경인 화개장터 역시 역마살이 낀 장돌뱅이들의 집결지이죠. 이 역마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결혼을 통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공 성기가 사랑하던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성기의 이모)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결합은 불가능해지게 되죠. 성기가 역마살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유랑의 길을 떠나는 결말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한국적인 운명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죠. 인간의 운명을 자연의 순리에다가 생의 리듬을 무리 없이 조화, 결합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인간성 구현의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작품은 운명에 의해 사회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옥화나 그의 아버지인 체장수 모두 운명적으로 변두리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요. 아들인 성기 역시 역마살을 타고나 변두리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자 옥화는 불교의 힘으로 이 역마살을 극복하려고 성기를 쌍계사에 보내기도 하고, 또한 계연과 결혼시켜 정착하게 하려 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작품은 운명을 거역하기보다는 거기에 슬기롭게 순응함으로써 생의 리듬을 얻고 있는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작가의 인생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종교 차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친구와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팽팽하게 말싸움을 벌여요. 좀처럼 관계회복이 어려워지고요. 친구와 잘 지내고도 싶고 각자의 종교도 잘 이해하고 싶은데. 친구가 넘 심하게 부처님을 욕하는 게 정말 화가 나요. (ID: 비밀~)

아예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 친구가 부처님을 욕함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욕보이는 행위랍니다. 성인이라 함은 뭇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인데 자신의 성인은 훌륭하고 남의 성인은 저급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감이 부족해서랍니다.

님은 훌륭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익혀서 친구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세요.

아예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저도 종교가 기독교인 친구가 있는데요(그 애는 심지어 모태신앙이에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싸울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카페에 문수교리반이라고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심을 권합니다. 내가 알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열전보다는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반박보다 친구가 자기의 종교를 말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마음을 보이면 우리종교를 말할 때는 친구도 들어주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 보세요. 아마 친구도 변해가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그 친구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 보세요. 지혜로운 부처님 되세요.

금화사 인터넷 상담실 게시판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구송파사거리)
가락시장 가락APT 엄마손 백화점 성남 가락시장사거리 구송파사거리 잠실 송파역 1번출구 일신여성 잠실여고 전시장 백제고분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올림픽선수촌 APT 둔촌사거리 둔촌주공 화훼단지 동북고교 거여동 서하남입구사거리 보훈병원 양반촌 전시장 타이어 서하남 I.C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전강 스님(3)

한암, '본래무일물'이라 해도 인가를 못 하겠다. 어떻게 인가를 받겠는가?

전강, (묵묵히 손을 모아 세 번 예를 올리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의 나이, 26세가 되던 해 금강산 지장암으로 한암(漢岩, 1876~1951) 스님을 찾아가 참문했다.

전강 스님의 개오를 소문으로 듣고 있던 한암 스님이 물었다.

"육조 스님께서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진여당처에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이라 일렀지만, 나는 본래무일물이라 해도 인가를 못하겠다. 그러니 자네는 어떻게 하여 인가를 받겠는가?"

전강 스님은 묵묵히 손을 모아 세 번 예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한암 스님은 말없이 스님을 긍정하였다. 입을 열면 그르치고(開口卽錯) 생각을 일으키면 어긋나고 마는(動念卽乖) 위기일발의 순간에 전강 스님은 '죽은 말(死句)'이 아닌 '살아 있는 말(活句)'인 묘용(妙用)으로 즉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생한 몸짓 언어에 한암 스님 역시 말없이 수긍함으로써 말길이 끊어진 무언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 문답에 나오는 '본래무일물'이란 말은 육조혜능 선사의 게송에서 비롯됐다.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 보리에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역비대(明鏡亦非臺: 거울 또한 틀이 아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 어느 곳에 티끌 일어나랴)

이 게송은 원래 신수 스님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라. 수시로 털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는 게송을 극적으로 뒤집어 오조홍인 스님의 인가를 받은 노래이다. 육조 스님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고 청정한 본래면목(本來面目: 성품) 즉, '한 물건도 없는' 공성(空性)을 요달하면 걸레나 빗자루를 들고 쓸고 닦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본래면목을 묻는 질문에 전강 스님은 말을 빌리지 않고 온몸으로 그 뜻을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합장하고 삼배하는 행위가 그것이란 말인가?

<조당집>에 나오는 선종 선사의 다음 문답을 참구해 보자.

"옛 사람이 말하길, '밤마다 부처(본래면목, 불성)를 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선종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옛 사람의 말을 믿는가?"

"학인은 절대 위배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만약 옛 사람을 믿는다면 합장하고 묻는 그대가 바로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묻고 답하는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은 부처를 어떤 개념이나 고정관념, 형상 등 모양(相)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육조 스님은 "마음은 넓고 커서 법계(法界)에 두루해 있다. 쓰면 아주 분명하고, 응용에 따라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며, 가고 옴에 자유로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이것이 곧 반야다"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가진 이 신령스럽게 비추는 성품은 시방세계를 통해서 머리 머리마다 밝고, 물건마다에 항상 밝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죽은 말' 대신 '살아있는 몸짓' 사용

한암 스님 '본래무일물' 질문에 즉답

김성우 객원기자

"일상 속에서 육바라밀 실천해야"

2년만에 막 내린 중화사 옥수동포교당 '육조단경' 강의



지난 2년간 <육조단경> 강의를 진행한 용하 스님(왼쪽)과 <단경>의 오묘한 진리에 푹 빠진 신도들.

"성품 가운데서 삿된 견해인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나면 곧 마왕이 와서 집에 살고, 바른 생각이 삼독의 마음을 스스로 없애면 마군(魔軍)이 변화여 부처가 되나니, 참되어 거짓이 없도다."

10월 13일, 서울 중화사(주지 용하) 옥수동포교당에서는 2년여 간 진행된 용하 스님(前 조계종 포교국장)의 <육조단경> 강의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 스님이 입적 직전에 남긴 '참부처를 보는 해탈의 노래(見眞佛解脫頌)'를 비롯한 유훈에 담긴 심지법문(心地法門)은 마치 마음밭을 적시는 듯 했다.

용하 스님은 입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본래 마음자리를 곧바로 일러주신 육조 스님의 자비심을 감회어린 목소리로 풀이해 준다. 단경의 한문 원전을 한 문단씩 따라 읽게 하고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가며 번역한 뒤, 일상속의 6바라밀행과 연결시켜 법문하니 어려운 선어록이 쉽게 다가온다. 실제로 법문을 듣는 신도들은 몇몇 거사님과 젊은 주부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년이상의 보살님들이어서 선어록을 원문으로 강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법했다.

하지만, 일자무식이었던 육조 스님의 법문이 기록된 <단경>은 간단명료하게 마음자리를 단박에 보게 하기에, 알음알이가 적은 불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단경>이 송대에 남종선(南宗禪: 돈오 위주의 선)의 성전으로서 정착하게 된 이유도 변방 오랑캐 출신인 나무꾼 노행자의 비약적인 견성성불(見性成佛)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일상 속의 분별심과 망념을 끊임없이 내려놓게 함으로써,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자성(自性)을 곧바로 깨닫게 하는 힘은 <단경>의 간결한 법문에 녹아있는 것이다.

<단경>의 핵심적인 선사상은 단박에 성품을 깨닫는 '돈오(頓悟) 견성', 진여자성을 자각해 마음에 번뇌 · 망념이 없는 '무념(無念)', 늘 집착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 보살행을 실천하는 '무주(無住)'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인 반야사상과 불성사상을 선의 실천으로 통합한 새로운 생활선인 것이다.

그렇다면 <단경>이 강조하는 견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경> '돈점품'에 따르면 이런 설명이 보인다.

"한순간도 자성을 여의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는 최상의 자유라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지속적 희열인 '유희삼매(遊戱三昧)'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견성의 의미이다."

본래의 자성을 보는(返照) 견성은 가고 멈추고 앉고 눕고 간에 항상 곧은 마음을 쓰는 '일행삼매(一行三昧)'로 이어져야 한다. 육조 스님도 "늘 '곧은 마음(直心)'으로 행하여 모든 것에 얽매이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용하 스님이 강조해 온 법문도 이러한 일행삼매를 기초로 하고 있다. 경전과 어록을 통해 배운 그대로 생활 속에서 무념(無念)을 실천토록 한 것이다. 육바라밀의 보살도 수행과 공(空)사상을 실천하는 선종 가풍에 어긋나지 않게, 신도회(회장 명여)가 화합해서 절 살림을 운영위원회(위원장 덕신행) 체제로 꾸려온 것도 자랑거리다. 게다가 매달 중국 사천성 홍류엔에 사는 장족 티베트학교에 장학금을 매달 지급하는 일은 단경이 강조한 무주상(無住相)보시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용하 스님은 "18년 전 포교당이 생길 때만 해도 기복신행에 몰두하던 신도들이 기초교리와 경전공부로 안목을 높이고 기도정진과 보살행으로 원력을 쌓아 온 것이 작은 '나눔의 공동체'를 일군 원동력이다"고 말했다.

육조 스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생각생각이 어리석지 않아,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것이 곧 반야행(般若行)이다"고 했으니, 삶을 여읜 수행이 어디에 따로 있겠는가. 생활 속에서 반야행을 실천하는 중화사 불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다. 용하 스님은 앞으로 규봉종밀 선사의 <원인론(原人論)>을 강의할 계획이다. (02)2299-8018

김성우 객원기자

'달마혈맥론' 강의 개설

법천사 일수 스님, 26일부터



"근기에 응해 중생을 제접하며 눈썹을 치켜뜨고 눈을 깜박여 수족을 움직이는 것이 모두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靈覺之性)이니라."(달마혈맥론)

중국 선종의 초조인 보리달마(菩提達磨)의 가르침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한 <달마혈맥론(達磨血脈論)>에 대한 강의와 참선실수가 열린다. 일수 스님(법천사 운문선원장 · 사진)은 제방선원에서 20여 년간 정진한 공부경험을 바탕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오후 1시 '혈맥론' 강좌(12강)를 개설한다.

백양사 운문선원장을 역임한 일수 스님은 "성철, 혜암, 법전, 월하, 월산, 서암, 서옹, 청화 큰스님 회상에서 정진한 경험을 달마어록을 통해 나누고자 강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祖師西來意)'을 해제기간 동안 함께 공부하고자 한다"면서, 간화선을 참구하는 재가 수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일수 스님은 '혈맥론'에 이어 해제철마다 '관심론', '이입사행론'도 강의할 예정이며, 매월 첫째, 셋째 주말 철야정진도 계속 진행한다. (02)745-6939

수행게시판

● **간화선 향상과정**=조계종은 10월 29일~11월 1일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을 연다. (02)2011-1807

● **고엔까 위빠사나 집중수행**=한국위빳사나운영위원회(DHAMMAKOREA)는 10월 31일~11월 11일 문경 김용초등학교에서 고엔까 명상 10일 코스를 연다. (018)335-9882

● **<유마경> 강의**=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은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7~9시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유마경>을 강의한다. (051)711-07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보살의 삶을 나의 삶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건립
1000일 원력성취 기도



귀의 삼보하옵고,
한방울의 작은물이 끌내는 바다를이루고
하나 하나의 아주 미약한 눈발이 만년설산을
형성하듯이 저희 의지나 실천이 보잘 것 없으나
마침내는 보살의 삶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찬 원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심하고 출발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느 누구도 이 원력과 기도에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절실히 알기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 할 것을
발원합니다.
불기 2551(2007)년 10월
회주 벽암 주지 원명
신도회 합장

기 도
매일 새벽 5시
새벽종송-칠정례-경전독경(10분)-정근(1000번)-천일발원문(합송)-반야심경(중단)-무상계(영단)

동참금
각 개인이 하루에 내는 원력 성취금(동참금)을 정함. 법당 안에 천일 원력 성취문(기록카드)과 성취금함을 배치하여 본인이 작성 관리보관하며, 원력 성취금은 성취함에 보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됨. 또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성취금기록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온라인 통장이나 직접 보시토록 함

입 재 : 2551(2007)년 10월 24일(음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회 향 : 2554(2010)년 7월 19일(음 6월 8일) 오전 10시
합동법회 : 매월 호법법회, 첫째 일요법회, 100일 마다 특별 회향법회

개인기도시 - 경전독송(5분정도), 정근(석가모니불 1000번), 발원문, 원력 성취금
특별실천 - 매일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발원문을 클릭하면 자동 합산되어 매일 매일 동참자가 표기됨
* 기도준비팀 회장단, 지도위원, 지역구법회, 호법, 수다라 사무처, 만다라, 총무소, 한팀이 일주일간 담당(촛불, 다기물, 좌복 등 준비)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문의 : 02)898-8200 www.sejon.org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한국불교원광종

종 정 능허대종사
총무원장 법륜

종의회의장 선진
규정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민
문화원장 법원 포교원장 경산

총무부장 진공 기획부장 도현
재무부장 고담 사회부장 도각
문화부장 도성 포교국장 혜암
문화국장 혜지

종정예경실장 도연 강원도종무원장 진각
경기남부종무원장 혜안 경주종무원장 청암
경기북부종무원장 진광 전남종무원장 경진
충남종무원장 보선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 :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1-3번지 전화02)802-1740

깊고 간절한 마음 에너지가 병 고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㉟ 나라를 살린 보살의 마음

한국이 싫다

M씨는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었다. 특히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는 왜 이래, 다 보기 싫다! 나도 이민이나 가 버릴까"가 자주 나오는 한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바로 다음의 이야기였다.

가난한 여인의 촛불

옛날 어느 나라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을 앓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다. 온 나라 의사들을 동원하여 고쳐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당황한 왕실에서는 커다란 제단을 마련하여 갖가지 음식을 쌓아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이 재난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빌었다. 절에서도 기도법회를 하며 불자들은 가족의 건강발원을 위한 등을 켜려고 열심이었다.

그 나라에 한 가난한 보살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남의 집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불심만은 누구못지않게 진실하고 순수했다. 보살은 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소식을 듣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도 절에 가서 등을 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등을 켜려면 보시금이 필요했는데 너무 가난한 형편에 어려웠다. 그래서 열흘을 넘게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바느질을 하였다. 마음으로는 오직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소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병을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드렸다.

그 마음이 너무 절실하고 병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 바느질하는 손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곤 하였다. 밤새 울면서 기도하게 되어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붓는 경우가 많았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보살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

한국 싫은 M씨 법문 듣고 감동
현대인 육신의 병 보다 마음의 병 커
'부처님의 마음' 회복위해 노력을

야겠다는 일념에 품삯을 모아 결국 간신히 보시금을 마련해서 절로 향했다.

야외에 특별히 마련된 곳에 각자의 초에 불을 밝혀 올리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보살도 자신의 초에 불을 밝히고 합장하며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촛불들은 꺼져 가고 사람들은 안타까워 웅성웅성하고 비를 피하여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나 가난한 보살은 개의치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가슴에서 마치 뜨거운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쏟아지는 비속에 모든 촛불이 꺼졌으나 촛불 하나 만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가난한 보살이 밝힌 촛불이었다. 보살의 눈에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보였다. 그 촛불로부터 나온 빛이 하늘로 올라가 전부 퍼져서 온 국토를 밝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날부터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열흘 째 되는 날에는 전염병이 그 나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한 가난한 보살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온 나라를 살리는 마음의 촛불이 된 것이다.

마음의 병 무엇으로 고치나?

스님은 "요즘의 우리는 육신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온통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상과 탐심의 병, 타인에 대한 비방과 증오의 병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국적인 전염병을 고치는 길은 각자 내 마음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의 마음으로 이 마음의 병이 낫기를, 모두 함께 참된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일심으로 기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M씨는 "이제 보니 우리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야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도대체 불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질 못했어요"라고 한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이다"라고 하였다. 사회와 다른 사람만 탓하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의 빛을 밝혀 기도하며 정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신행게시판

*** 선운사 MT 산사체험**
고창 선운사가 '선운사 MT 산사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추석 때 출발한 1기를 시작으로 10월 27~28일 제5기 산사체험이 이어진다. 선운사 템플스테이는 11월 24~25일의 9기까지 마련돼 있다. 10인 이상 단체라면 2박3일 코스의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면 단체 일정과 맞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도 한다. (063)561-1422

*** 구룡사 가족법회**
서울 구룡사는 신도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를 봉행한다. 10월 28일 가족법회에는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한다. 이에 앞서 음력 보름인 25일 열리는 무량법회에는 각광 스님이 법문한다. 한편 26일 저녁 10시에는 무박 2일 일정의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순례지는 팔공산 갓바위와 나한도량 영천 은해사 거조암이다. (02)575-7766

*** 능인선원 사경법회**
서울 능인선원이 11월 8일 오전 11시 국녕사 대불전에서 사경법회를 봉행한다. 사경 검인은 10월 18일~11월 7일 오전 10시~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사경한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은 북한산 국녕대불 복장 장엄불사에 봉안된다.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을 모두 사경하면 원장스님 친견의 기회가 주어진다. (011)240-4779

*** 용주사 방생법회 안내**
화성 용주사가 10월 27일 영천 은해사 거조암으로 방생법회를 떠난다. 오전 7시 30분 출발 예정. 도시락 지참으로 동참금은 1인당 2만원이다. (031)234-0040

*** 거조암 오백나한친견법회**
영천 은해사 거조암이 10월 27일 오백나한 친견대법회를 봉행한다.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을 초청해 법문도 듣는다. (054)335-1369

*** 신륵사 '갈등 해결과 평화학교'**
여주 신륵사가 10월 27~28일 '갈등 해결과 평화학교' 그 첫 번째, 가까이에서 시작하기를 개최한다. '우리 아이와 통(通)하자, 우아通'이란 주제로 열리는 갈등 해결과 평화학교는 초·중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식간의 갈등해결에 포커스를 맞춘다.(031)885-2505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2〉

정신분석과 불교-12

부처님 시절에 끼사고따미라는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젊은 장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에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아들을 살려내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상대하지 않자, 마침내 부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

여인은 울면서 애원했다.

"부처님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아들에 충격 휩싸인 여인 '살려달라' 애원
'죽음이란 인간이 겪어야 하는 필연' 깨닫게해

"여인이여,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 가지고 오너라."

부처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다.

"전에 이 집에서 혹시 사람이 죽은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게 겨자씨 한 줌만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다. 그래서 여인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겨자씨를 얻을 수 없었다.

여인은 지친 몸으로 죽은 아들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죽은 사람의 수가 살아 있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에 여인은 부처님께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신 깊은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순간 죽은 아들에 대한 애착도 떨어져 나갔다.

〈법구경〉 제8장 게송114. '끼사고따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만약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간 끼사고따미에게 부처님이 "세상 만물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윤회를 끊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라"고 가르쳤다면 그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여인은 아들의 죽음 문제로 심각한 절망에 빠졌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인도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기엔 너무도 상실감이 컸고, 자신의 아들만큼은 예외였으면 하는 불가능한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아신 부처님은 여인의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 주었다. 역설적으로 아들을 살려낼 방도를 일러 준 것이다.

끼사고따미에 대한 부처님의 치료는 정신분석의 훈습(working through)과 같다. 훈습은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 통찰에 이르렀을 때 지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적인 확신에 이르도록 반복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즉 통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에 의미 있고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방어하고 있던 면들까지 전체 인격 속에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끼사고따미로 하여금 여러 집을 찾아다니게 함으로써 '죽음이란



그림 : 문병성

"새는 지붕"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고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신비의 명약 鳳凰山蔘

천제가 지상에 내려와 산신령으로부터 단 한뿌리만 얻어 갔다는 전설속의 봉삼

태조 왕건에게 1,000년된 봉삼을 바쳤다는 신비의 봉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불로초로 알려진 봉삼

모든 산삼중에 최고의 약 효능이 뛰어난 봉삼

죽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을 도와주는 봉삼

누구나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봉삼



※ 본초강목에 의하면 봉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 위, 비대소장, 두통(만성), 해수, 열풍독, 모든 지각성마비, 근육통, 살균피부염, 소염 이노에 특효라하고, 폐경, 대장경, 비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해독한다. 했고...
봉삼 달임액으로도, 이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밝혀졌다. 풍한습비증, 황달, 대장염, 임증, 대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옴, 버짐 등에 쓴다. 그리고 수태음경, 수양명경에 작용하고, 풍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약이라 한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별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처 018-554-6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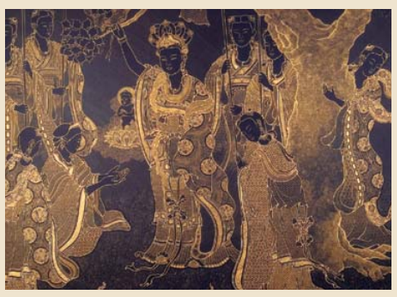


이해기 화가 금화전시회 서울 사간동 갤러리서 10월 30일까지

금가루로 그린 부처님 생애

"금가루를 이용하는 금화에서 평생의 업을 찾은 것은 10년전이지요. 지난 3년전 선보인 첫 전시회에서는 단순히 금가루로 평면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이번에는 금가루를 여백에 깔아 원근과 명암을 표현하는 새 입체 기법을 고안해 봤습니다."

불화(佛畵)와 금화(金畵)를 그리는 이해기(49)씨를 불교화단에선 '돌아온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금가루를 여백에 깔아 명암을 표현한 '수하탄생'(위)과 '성등정각' 앞에 서 있는 이해기 작가.

팔상도를 비롯해 정교하면서 격을 갖춘 그의 불화가 호평을 얻었지만 그는 10년전부터 채색작업을 중단한 채 금색그림에 몰두해왔다.

동국대 미술학과 재학중 불화의 감동이 그를 불교로 이끌었고 화가로서 불교미술과 불화로 관심이 모아졌던 것. 고려시대 불화 기법인 금니선묘화(金泥線描畵)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독특한 금화의 세계를 일궈온 이씨의 두번째 금화전시회가 서울 '사간동 갤러리 126-1'에서 10월 30일까지 열린다.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 생애를 금화에 표현한 그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3년간 작업한 금화 24점을 벽에 걸었다. '마야탁목' '천상천하유아독존' '쌍님열반' '화엄대법' 등 소품과 대작이 섞여 있다.

"우리 전통 불화는 선(線)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양과 선의 강약으로 입체감을 표현했지요. 그러다보니 질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금을 여백에 얇게 깔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방법은 일단 극적인 분위기와 입체감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작품이 '성등정각'이다. 따로 그리지 않고 금가루를 화판에 깔아 표현한 광배 부분은 몽환적인 입체점을 보여준다.

현재 외국인 학교 교사인 부인 때문에 중국 북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씨는 요즘도 매일 하루 8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 붓으로 접착제를 더한 금가루를 묻혀 금화를 그린다. 금화는 다양한 인물과 자연 배경의 묘사가 세밀할뿐더러 기법상 수정이 불가능한 정교한 작업이지만 그는 한번에 1시간넘게 무릎을 꿇은 채 종이와 붓에 열중한다. 하루 8시간 꼬박 그려도 가로 48cm 세로 45cm크기의 작품 한 점을 완성하려면 두세달씩 걸린다. 선하나 삐끗하면 두세달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조심스런 작업이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작업실에서 혼자 예불과 참선도 한다.

부처가 깨달음을 중생에게 설법하는 장면인 '화엄대법'을 시작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그린 작품마다 불화의 기법도 조금씩 달라진다. 초기 작품은 전통 사경화처럼 세필이 화면 가득한 평면적 공간인 반면, 근작일수록 문양의 선과 강약을 통해 마치 서양화같은 입체감이 살아난다.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 감각을 갖춰 금의 느낌을 살리는, 이씨 특유의 금화 기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이것들을 뛰어넘는 이씨의 또 다른 변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으로는 대작(160cm×14cm)을 주로 그릴 계획입니다. 현재 고행상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과 흑인 고행상을 그릴 것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흑인들을 부처로 생각하고 그리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부처님을 주제로 작업을 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오브제와 대상을 등장시킬 것입니다."

3~4년 정도 더 중국에서 머물며 작업에 몰두할 계획이라는 이씨는 내년 4월 국내에서 한 차례 더 기획전을 가질 예정이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中 불상 61점 한자리에

서울대박물관 '중국 불교조각 1500년 특별展'

육조시대 이후 청대에 이르는 1500년간 중국서 제작된 각종 불상 58건 61점을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대박물관(관장 송기호)은 대만 국립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대만 타이베이 내 여러 기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대여한 '중국 불교조각 1500년 – 불상, 지혜와 자비의 몸' 특별전을 12월 22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박낙규 전임 관장이 지난해 초 대만 국립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곳 관장과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출품작 중 북위 시대(北魏.386~534) 석회암으로 제작한 아난두(阿難頭.아난존자의 머리 조각)는 제작 시기가 빠른 작품에 속한다. 석회암으로 제작한 이 불상(높이 55cm, 개인 소장)은 허난성 뤄양(洛陽)의 룽먼석굴(龍門石窟)의 연화동 유출품으로 알려졌다.

아난은 부처의 가장 젊은 제자인 까닭에 불교조각에서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통 나타나며, 이는 지혜 제일로 알려진 가섭이 노회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점과 대비된다. 이번 아난두 역시 주름살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국적인 외모가 인상적이다.

선비족이 세운 북방의 강자 북위가 두 쪽으로 세포분열해 성립한 왕조 중 하나인 동위(東魏, 534~550) 작품으로는 불입상(佛立像. 석회암, 높이 92cm)은 광배가 모두 파손됐지만, 머리에는 작은 나발을 촘촘히 표현했고 온화한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돋보이는 출품작이다.

북제(北濟) 시대 석회암제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 높이 65cm)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78호와 83호 금동반가사유상에 익숙한 한국인이라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당대 백대리석으로 만든 십일면관음두(十一面觀音頭, 높이 48cm), 원·명 교체기 목재 나한좌상(羅漢坐像, 높이 117cm) 등도 눈여겨 볼 만한 작품으로 꼽힌다.

김주일 기자

춘천 불교방송 개국 5년 기념 27일 봉덕사서 '가을 음악회'

춘천 불교방송 개국 5주년 특집 봉덕사 가을 작은음악회가 '이종만의 가을 음악여행'을 주제로 강원도 춘천시 봉덕사 경내에서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90분간 펼쳐진다.

출연진은 리드싱어 이종만씨를 비롯해 박필진(드럼), 박태진(베이스), 김태식(기타), 조은아(신디사이저), 박은주(피아노) 등이다.

가수 이종만의 단독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공연에서 이씨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좋은날' '당신을 존경합니다'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 15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성악가 유현주씨도 찬조출연해 찬불가와 클래식 성악곡 등 3곡을 선사한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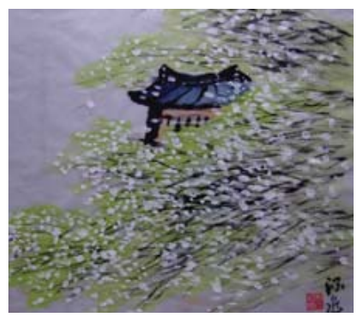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㉔

두타산 관음암

장인성 시인

도심의 지하도를 건너다
눈맑은 스님과 스쳐 지났다
삼베적삼 구멍으로 새 나오는 몸냄새가
두타산 가을밤 달빛처럼 환하다

관음암 늙은 기와지붕을
서그럭 서그럭 밟고 지나던
몇 해전 가을밤의 달빛 냄새로
휘적 휘적 걸어가는 스님의 뒷 모습이
고요하고 서늘한 산 속의 절 집 같다.



관음암(觀音庵)–조촐한 규모가 더욱 정겨운 암자. 동해에서 암자 마당으로 떠오르는 달덩이가 그 어느 곳보다 크고 밝다.

그림 : 이상배 화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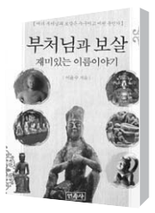






부처님 이름으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경전 속 이야기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이윤수 지음
민족사 펴냄 | 9000원

석가모니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미륵부처님 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은 어떤 분이죠?"

방송작가 이윤수씨가 펴낸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는 이 같은 초등학생의 질문에 쉽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는 선생님처럼 편안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경전 속의 이야기를 방송쟁이로서 조금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소개한다. '조금 쉽게' 글을 써내려가기에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으면서 여러 부처님과 보살, 호법신중, 부처님 십대제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가 한 눈에 쏘옥 들어온다.

"'큰 서원의 옷을 입은' 보살이란 호칭으로 불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음 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저자 말을 듣다보면 이 책이 단순히 불보살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속에서 발견되는 불보살의 모습도 각각의 설명 속에 녹아들어 있다.

강지연 기자

민권 성장을 각 사상적으로 뒷받침

신불융합의 역사가 '한눈에'



신라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김재경 지음
민족사 펴냄 | 1만8000원

신라의 토착신앙과 불교는 어떻게 결합되었을까?

저자 김재경 교수(경일대)는 한국의 토착신앙을 "하늘과 광명을 신앙의 중심부로 삼아 신격 전반의 위계질서를 정돈한 일신중심적 다신병존체제"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신라의 중심 사찰이었던 사천왕사와 왕실의 내제석궁 등의 역할에 주목한 저자는 이들이 갖는 밀교성이나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적 성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동시에 불교권 밖 화랑 등 불교와 혼합된 토착신앙 세력이 또 하나의 사상적 중추부를 형성하였음을 중심해 이들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상사의 새로운 해석틀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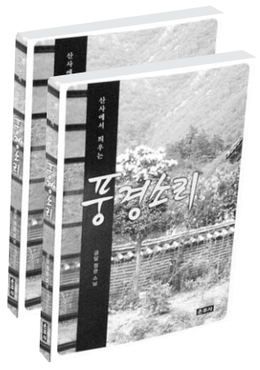
"신라의 신불(神佛)융합과 그 융합 압축된 신불의 왕실 지원 및 반적들에 대한 초능력적 위무(威武) 확대는 왕권의 강화를, 피치주민에 대한 안강(安康)과 자애, 자학(自學)의 격려는 민권의 성장을 각기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었다"고 저자는 신불융합의 역사성을 최종 요약했다.

강지연 기자

정관 스님이 직접 찍은 사진, 이 책의 보너스

번뇌에 빠질 땐 풍경소리 들어봐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스님 지음
운주사 펴냄 | 9000원



"좀 더 많은 이들이 이글을 읽고 불자가 되도록, 불교에 더 깊이 빠지도록 도와주세요."

용천사 주지 정관 스님이 수상집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를 내며 밝힌 말이다. 스님은 "비록 서툴고 거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꽃씨를 심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포교 원력을 드러냈다.

두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수필집을 출간한 바 있는 정관 스님은 이번 책을 마지막으로 절필하겠다고 선언했다. "포교 원력으로 쓰기 시작한 글 인만큼 더 이상 넘치게 할 필요가 없다"며 "남은 인생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는 우리 사는 모습에 '불교설화'를 접목시켰다. 현실적인 고뇌와 맞닿은 불교설화는 더 이상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나 책 속의 과거가 아니다. 번뇌에 빠져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간결하면서도 감로수처럼 시원한 해답이다.

산사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풍경들을 소재로 한 글에서부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님의 통찰력으로 풀어낸 글들과 스님의 어릴 적 추억들, 삶의 지침이 될 불교의 가르침들로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는 묵직하다.

글 중간 중간 운치가 가득한 사진들도 모두 정관 스님의 작품이다. 청도 운문사, 합천 해인사, 해인사 백련암, 용천사 등에서 찍은 사진에는 스님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명구들을 정리해 붙였다.

지치고 힘들 때 스님의 책 한 구절을 읽어보자. "내일이 아니고 내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건강한 프로그램을 오늘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현재 모습 들여다보며 행복찾기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거야
손기원 지음
지혜미디어 펴냄 | 1만 2000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행복감이 느껴지는 때다. 그 '때'라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유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고 수많은 현자(賢者)들이 행복을 정의했다. 그러나 진정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잘 나가던 회계법인의 대표직을 내놓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장. 그도 행복을 찾아 꽤나 헤맸다. 그러나 비교적 일찍 행복을 만났다. 아니,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을 터득했다.

그 지름길은 명상이었다.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 그리고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구했다.

"그날부터 나는 하루하루를 가장 행복한 날로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 거야>를 통해 손 소장은 '지금 그리고 여기'를 행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안내한다. 갈망과 사색 그리고 방황과 깨침의 고뇌와 희열로 연마된 손 소장의 '행복론'인 셈이다.

손 소장은 매일 3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느낌 선물받기 △모든 만남에 감사하기 △진정으로 바라는 것 선택하기가 그 3가지다. 쉬운 일일까? 매일 명상을 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없다면,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을 제어할 힘이 없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한다면 제2장 '나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에 나오는 대로 따라해 보라.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간절함'이 화두… 고찰 기행으로 깨달은 것들

산사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소리'



풍경소리 들리는 길
김민자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수필가이자 조계종 포교사인 김민자씨가 10년간 160여 사찰을 기행하며 찾은 것은 무엇일까?

김씨는 산사의 길에서 어김없이 풍경소리를 들었다. '이 바람이 불어와도 저 바람이 불어와도 자기 소리를 내는' 풍경소리. 풍경소리는 산사를 기행하는 김씨에게 들려오는 자비와 지혜의 소리였다. 그 소리들의 파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다듬어 한 권의 책이 됐다. 책에 실린 50여 사찰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고찰들이다. 고찰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전각과 탑과 부도를 비롯한 각종 문화유산들과 성보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는 대로 다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는 눈에 따라 달리 보인다. 보는 눈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해석의 잣대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폭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민자씨는 고찰을 보고 받아들이는데 '간절함'을 화두로 내세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살아가는 간절함과 세상 풍파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참불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 찬란한 문화재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그 가치가 만대를 두고 현창되길 바라는 문화인으로서의 간절함 등등. 김민자씨의 간절함은 고찰이 갖는 의미와 가르침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사찰답사기나 기행기가 아니라 사찰을 통해 삶의 길을 바르게 열어가는 지침이다.

수필가 맹란자 선생은 이 책을 두고 "항심으로 이어지는 기도와 봉사, 그 구도의 발길 10년은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수행의 여정인 동시에 맑은 한 영혼의 기록"이라고 평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5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7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계환	정우서적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10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김윤수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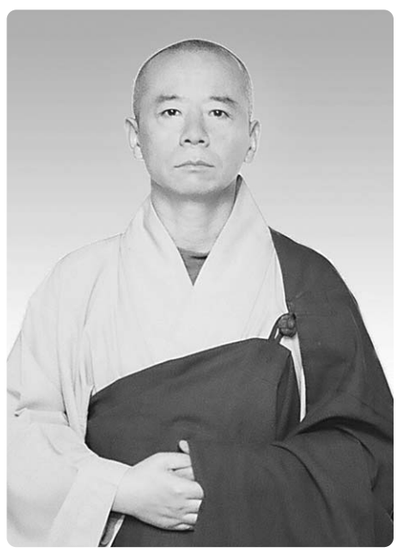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개정판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번뇌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틀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 선 법문집의 백미"
서옹대종사의 법제자 제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어!

밖으로 향하는 이 마음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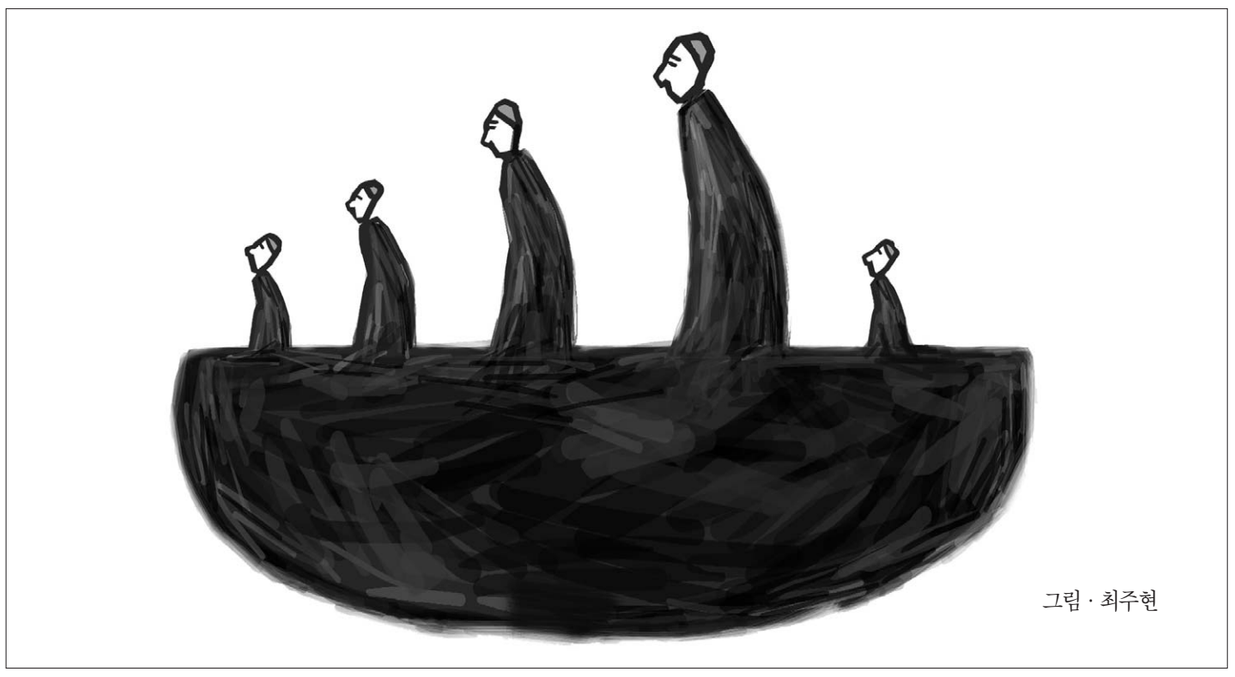
문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틀을 벗어나서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욕심인지 항상 내 근본으로 몰입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주위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빠르다고 하면 거기에 혹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안으로 몰입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향하는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지요. 나라는 틀을 벗어나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자꾸 바깥에서 찾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줄창 내가 얘기하지만 작년 콩씨를 올해 심어서 콩싹이 났습니다. 콩싹이 자라서 콩이 열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콩나무는 자기 콩나무에서 콩씨가 열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작년에 심은 그 콩씨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기 이전을 찾으라니까 그만 바깥에서, 작년에 밭에 심었던 그 콩씨를 찾느라고 헤매고 돕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코를 꽁꽁 막고선 냄새를 맡으려고 해 보십시오. 냄새가 맡아지나. 혀를 끊고서 말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말이 되나. 우리는 마음의 눈을 떠야 마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진가를 맛보았어도 맛본 그것을 또 안으로 굴려서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지혜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는 말 할 필요가 없이 안으로 굴리고 굴려서 또 지혜를 넓히고…. 지혜를 넓혀서 또 온 바다를 만드는 거와 같이 내 마음이 온 누리 어느 곳곳에 닿지 않는 데가 없이 됐을 때에, 여러분과 나와 둘이 아니게끔 됐을 때에 일체 만물, 무정물이나 모든 생물, 물에 있는 고기와 대화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저런 풀잎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는 그 풀잎들이 다 말을 해 주고 '이것은 당신의 약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합디다.

여러분은 꼭 먹을 걸 짊어져야만이 산에도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그거와는 다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났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형성시켰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굶겨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입니다. 산에 올라갔어도 맨 몸뚱이로


그림 · 최주현

그렇게 올라갔다면 '허허, 이거는 먹을 궁리를 안 하고 올라왔으니 먹여 줘야지.' 그래서 그 풀잎과 풀잎이 다 같이 동일하게 되니까 먹을 것을 스스로서 갖다가 주더라 이겁니다. 내가 움죽거리는 대로 먹을 게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생식을 한다고 쌀을 물에다 불려 가지고 한 주발씩 먹는 것도 봤습니다. 차라리 밥을 해 먹지 뭣 때문에 물에다 담갔다 한 주발씩 먹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보통 여러분과 같이 그냥 먹는 게 낫겠죠. 코가 간지러울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늘에서 알고 땅에서 알고 법계에서 안다는 얘깁니다. 거짓이 한 치라도 있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한 치라도 있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 속임을 받는 것도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열쇠를 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공이라는 이름 아닌 주인공이 하늘, 우주 전체를 싸고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못 보시걸랑 현실을 보십시오. 빚을 얻어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익이 남아서 들어올 줄만 알았지 빚져서 이자와 더불어 같이 나가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것째 그만 잃어버려서 탕진을 하는 수도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정도에 넘치지 않도록, 분수를 알맞게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두들겨 가면서 걷는다면 아마 천둥 벼락이 내려도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면 보통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좀 없애고 그냥 살겠지.' 그러지만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가 주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그걸 발견을 못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세균, 영계, 윤회, 생사, 유령, 업보에 끄달리면서 살아나가니까 그 고달픔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 하나만 몰락 벗어난다면 그 외의 것은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나는 공(空)해서, 본래 벗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지어서 속는 것이고 그게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생각하셔서 누가 모든 걸 망하게 했고 누가 흥하게 했고 누가 웃게 했고 누가 울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든 없든 진심으로 내 성의껏 시주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미래의 덕을 쌓으면서 우리는 현실의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현실의 공부를 해서 영원한 오늘을 안다면 영원한 오늘도 벗어날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 하나도 바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가 어려운가 하면 어렵지도 않고, 어렵지 않은가 하면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가다 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 안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진다면…

문 스님,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무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또다시 윤회를 하게 되나요? 그리고 가족의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이가 안 좋은 가족과 다음 생에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속에, 예를 들어서 위 공장 한 곳에서만 파워가 일어나도 여러분의 몸은 쓰러집니다. 집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집과 같아서 관리인, 심부름꾼, 집합소, 생명들이 살 수 있는 바로 집합소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름 해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몸뚱이만 여래의 집이 아니라 전체 한데 합해서 돌아가는 걸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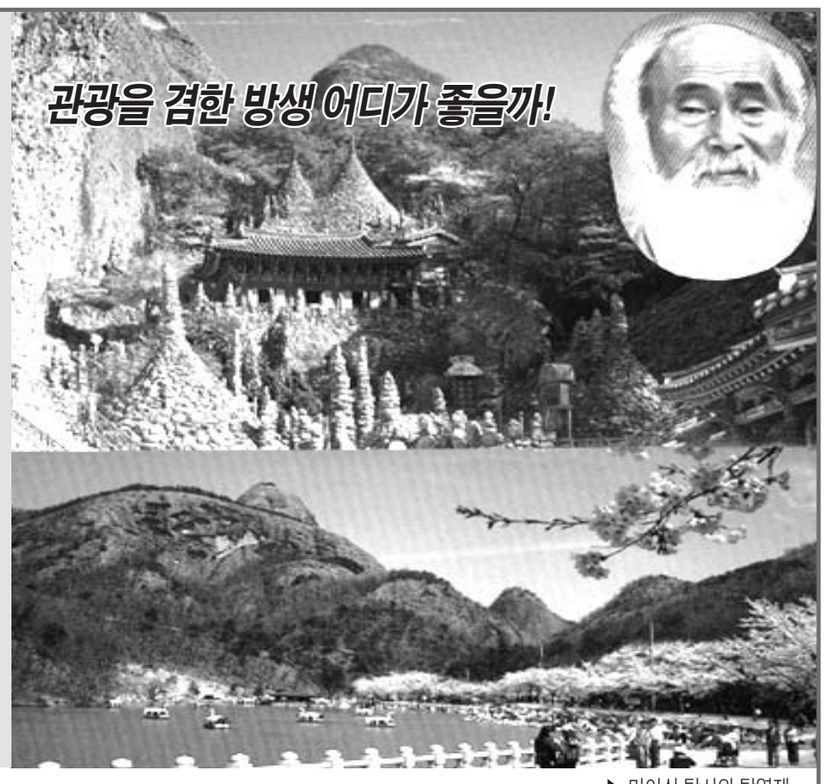
그런데 고걸 쪼그만 내 몸뚱이 하나로 축소해서 한번 보세요. 헤아릴 수도 없는 생명체들이 내 몸속에서 서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한 게 없고 혼자 먹는 게 없으니 아만통을 갖지 말고 '나'라는 걸 세우지 말라. 혼자 한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으니 모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느니라. 그리고 번뇌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번뇌가 붙을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병 붙을 자리도 없고 번뇌 붙을 자리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는 분명코 왔는데 발자취를 걸머질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는 살아도 함이 없이 살았단 얘기죠. 이 세상을 살되 함이 없이 살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의식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고 그 원 근본과 자기의 입력된 영혼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이 없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이런 게 있죠. 깨라든가 콩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 콩 줄기나 잎은 다 죽어 버리고 씨만 나오죠. 씨 하나만 나온 것을 조금 쉬었다가는 그 이듬해 봄에 그 씨를 심으면 다시 그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죽으면 잠시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그 차원의 종자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옥 천당이 따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로 해서 법정에 들어가서 돌아서, 즉 차원대로 콩씨는 콩씨대로 심어져 나가고…, 아주 똑바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거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기도 하고, 차원이 말입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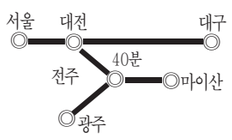
☞21면으로 계속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쓸쓸히 떠난 어린 왕비…친언니 영혼 곁에서 안식



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 순릉


순릉을 찾은 관람객들이 문화재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순릉의 정자각.

성종은 몇 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부인 수 12명, 1위다. 자녀수 16남 12녀 합 28명, 2위다. 1위는 12남 17녀를 생산한 3대 태종이다. 생산한 아들의 수는 성종이 태종보다 많다. 1위는 2대 정종이다. 17명의 아들을 생산했으나 실권이 없었던 왕이라 의미가 없다.

그 많은 아들딸 중 첫째 부인 공혜왕후가 낳은 자식은 한 명도 없다. 속된 말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아버지 한명회의 정략에 의해 올린 가례이니 첫날밤인들 운우지정을 제대로 나눴을까. 성종은 담력과 체력을 타고났다. 왕관을 거머쥔 것도 그 덕분이다. 벼락이 떨어져 지척에서 내관이 죽어 자빠지는 데도 열세 살 소년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왕들의 병약함에 질린 대비마마가 그를 왕으로 임명했다. 성종은 비록 38세로 승하했지만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넘쳤다. 당시 스캔들의 여왕 어우동과도 어울렸다는 야사가 전할 정도다. 어우동은 누구인가. 재미삼아 잠깐 살펴보자.

양가의 여자로서 행동이 문란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성종 때 인물이다. 아버지는 지승문을 지냈으며 성은 박씨다. 종실 태강수의 아내가 되었으나 행실이 방탕하여 소박맞았다. 여러 조관 및 유생들과 관계하였다. 조정에서 알고 그와 관계한 자들을 문초한 것이 수십 명이었다. 결국, 어우동도 풍속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로 서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형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성종 11년 10월18일)." 성종은 어우동을 사형에 처한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의 내심은 그만이 알고 있다.

왕비는 만백성의 어머니, 국모로 추앙받는다. 그러나 왕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면 임금은 물론 후궁들로부터도 괄시를 받는다. 요즘도 그렇지 않은가. 며느리가 첫아들을 낳으면 목소리가 달라진다. 왕의 첫째 부인이면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종, 단종, 성종, 중종, 인종, 선조, 정조, 헌종의 원비는 자식이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석녀)의 경우가 있고, 아예 독수공방으로 세월을 보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공혜왕후는 후자가 아닐까. 성종과 후궁 숙의 홍씨 사이에는 무려 7남3녀가 태어났다.

평범한 백성들은 개똥이, 소똥이로 불리는 아이를 잘도 낳지만 왕비, 후궁, 귀족가문 여인들은 불임이 많다. 운동 부족이 불임의 큰 요인이다. 그들은 거의 궁중이나 집안에서만 생활 한다. 주로 앉아 지내며 외출할 때는 가마를 타고 다닌다. 간편한 복장을 할 겨를이 없다. 무겁고 치렁치렁한 정장차림으로 하루 종일 지내야 한다. 운동이라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 임신하기 어렵다.


봉분 뒤에 우아하게 핀 야생화.

14세때 성종의 첫번째 왕비로 책봉
아버지 한명회의 정략에 따라 가례
승하 후 친언니 장순왕후 옆에 묻혀

그런 여인네들이 명산대찰로 백일기도를 다녀오면 임신이 된다. 불공 탓도 있지만 산길을 걷고 절을 많이 하니 하체와 허리 운동이 된다. 자궁을 비롯한 생식기가 들어있는 골반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배란이 좋아진다.

국모의 불임은 국가적 불행이다. 소생이 없는 공혜왕후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기록이 없다. 그녀가 죽자 국모의 자리는 숙의 윤씨가 차지한다. 왕비로 책봉되던 해에 세자 융(연산군)을 낳는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폐비 윤씨로 불리고 있다. 불길한 기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꿈틀대기 시작한다.

눈보라와 매서운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밤, 공릉과 순릉을 넘나드는 자매의 살가운 대화가 들린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 30여 미터에 그녀들이 묻혀있다. 시숙모, 조카며느리라는 엄한 계율을 떠나, 그들은 10대 소녀들이다. 요즘으로 치면 미니스커트 입고 캠퍼스를 활보할 대학 새내기 또래다.

"언니, 춥지 않아?"

"괜찮아. 넌?"

"응, 나도 괜찮아. 하얀 눈이불이 소복한데 뭘."

언니 장순왕후(예종 원비)는 17세, 동생 공혜왕후는 19세에 죽었다. 그들은 열한 살 터울 자매다. 또래의 언어를 써보지 못하고 지엄한 궁중어에 주눅 들어 죽은 가련한 영혼들이다.

공혜왕후 한씨(1456~1474)는 9대 성종의 원비다. 한명회의 넷째 딸로 예종 비 장순왕후의 친동생이다. 순릉과 장순왕후의 공릉은 지척에서 마주보고 있다. 공혜왕후는 12세(1467년) 때 한 살 어린 의경세자(덕종)의 둘째 아들 자산군과 가례를 올렸다. 예종은 선왕 세조의 장례를 치르면서 건강을 잃어 재위 14개월 만에 승하했다. 이때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은 겨우 3세에 불과했고 의경세자의 맏아들 월산군은 15세였으나 병약했다. 예종이 죽던 날 왕위 결정권을 가진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는 13세의 자을산군(자산군에서 자을산군으로 개봉)을 왕으로 지명했다. 한씨는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었다.

공혜왕후는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으나 예의바르고 효성이 지극해 내명부의 세 어른(대왕대비 세조비 정희왕후-시할머니, 왕대비 덕종비 소혜왕후(인수대비)-시어머니, 대비 예종계비 안순왕후-시숙모)의 귀여움을 받았다.

왕비로 책봉된 지 5년 만에, 19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승하했다. 왕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순릉은 세자빈 신분으로 죽은 언니 장순왕후의 공릉에 비해 구성물이 더 많다.

글=이우상 (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 (사진작가)

순릉은

공순영릉이라 불리는 능역 안에 있다. 공순영릉은, 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의 능인 공릉, 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의 능인 순릉, 21대 영조의 맏아들 진종(추존)과 그의 비 효순왕후의 능인 영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사적 제205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산 4-1. 면적 132만3105㎡ (4만239평).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원리 :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장점 : · 전기료가 들지않는다. ·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없다.
·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자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태양광 정원등(1) 230cm ~~600,000~~ → 360,000
태양광 정원등(2) 160cm ~~220,000~~ → 150,000
태양광 정원등(3) 150cm ~~180,000~~ → 110,000
태양광 정원등(4) 100cm ~~178,000~~ → 120,000
태양광 정원등(5) 103cm ~~200,000~~ → 140,000
태양광 정원등(6) 90cm ~~88,000~~ → 55,000
태양광 정원등(7) 83cm ~~250,000~~ → 220,000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사찰 · 암자 · 토굴 및 현대불교신문 독자분께 할인하여 드리며, 작은 사은품도 준비했습니다.

태양광 벽등


~~55,000~~ 46,000
~~55,000~~ 46,000
~~55,000~~ 35,000
~~55,000~~ 42,000

태양광 잔디등(小)


53cm ~~35,000~~ → 33,000
47cm ~~30,000~~ → 56,000
49cm ~~35,000~~ → 30,000
31cm ~~56,000~~ → 40,000
50cm ~~56,000~~ → 50,000

다용도 태양광 랜턴


1.전원없는 토굴/암자에 전등용으로 사용
2. 손전등으로 사용 3. 휴대용이, 이동용이
4. 디카/CD기/라디오/MP3등 AA SIZE 밧데리가 장착되는 제품 사용가능
~~30,000~~ → 70,000

* 사은품은 태양광스탠드로서 30만원이상 구매고객께 드립니다.

태양광 데크등


50cm ~~56,000~~ → 50,000
30만이상고객께 드리는 사은품

코스모스환보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 광장B/D 401호 TEL 032)347-0830~1 / FAX 032)346-0830
http://www.cosmoshuanbo.com 계좌번호 : 농협 216014-51-257956 (예금주:오승열)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3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주와불교교리-수양론강의
인과론,개운론,섭생론,
치유론,수양론,길흉론
3-6개월 과정.월20~50만원
내강010-3656-5687
기초가 있으신분만 강의합니다
단체및개인출장지도
(스님 또는 포교원)

역학수강생 모집
기초반(무료),중급반,연구반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운영함
역학30년 유명교수님:속성 완수
인천불광사
032)508-0381
019-9007-9746

보살선방
(1인1실-방1,주방,거실,욕실)
(부부실-방2,주방,거실,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며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 시주금 내시고 종신제)
불광사,불광대학
053)656-6766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한의 침구학 강의
정통체침, 오행침, 내경침 外
음양오행에 의한 학습으로 쉽게 몰리를 터득함
매주 금요일 2시~5시
11월초 개강 예정
동묘역옆(1,6호선)3,4번 출구
도현사랑방
017-710-2420
02)2236-7852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빙의 / 비만
※ 병원가도 병명이 없이 아픈 분
※ 특히 비만으로 고통 받는분 환영
영가조화 심리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육대장 질병인지를 각자의
우주시계인 사주팔자로 원인 진단 해결
02)6083-4339
마음의 도량 망우사

秘法전수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좋은 인연 맺으소서 -
1. 삼혼칠백의 작용법(확실한 천도)
2. 약손이 되는 비법(氣)(즉석효험)
3. 도인침술법(정신병, 학업성적, 빙의)
4. 7日 도인 비결법(독소배출,직관력)
5. 체면학,레이키,기공,내공, 빙의,명상법 등 명쾌한 강의
-교재에 의한 각1시간 강의 총 6시간(1시간체험)-
*스님께서 직강, 시원스럽습니다. *보시료 약간
- 초종파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 -
연락처 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해용사 -법경-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법당조성을 이루고자 하나 무소유의 시작으로 각 사찰 대덕 스님의 보시를 기다립니다
불보살님은 조성하고 있으나, 지장탱화, 신중탱화, 다기, 촛대등을 (목불가능)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혹, 보관중인 탱화 및 다기 촛대를 보시해 주시면 대덕스님의 큰 공덕으로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위치 :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23-1번지
무량암 관정스님 합장
010-6665-6990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전북 정읍에 있는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식구처럼
지내실 50대 전후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632-4604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60세 전후)
서울 구파발(전철에서 10분거리)
02)352-0572
011-261-0572

경관이 좋은
사찰에서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합니다
(65세 이상)
▷서울 정릉
02)917-3363

女 운전기사 구함
12인승 승합차(1종면허)
운전가능하신 보살님
(숙식원함)
019-9729-7005

기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청정한 약사여래
나반도량입니다
천일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016-9697-2222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법당거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51)256-348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2)282-9270
010-4469-7227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9408-7447

행자 및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찰)
055)329-1056
011-388-6275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천인사)
031)773-774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전후, 가족처럼
지내실 분, 숙식가능한분
▷위치 : 고성읍
055)241-232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청량리 포교원)
010-5040-0108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83-884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우이동 보광사)
02)993-3808
011-432-8034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 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 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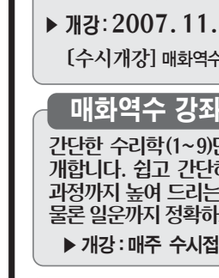
운전, 농사일 같이 하면서
가족같이 숙식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호스피스 요양원 정토마을)
043)298-2258
011-9732-8562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법당
거사님 또는
보살모십니다
▷부산
051)256-3483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화청, 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데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땐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깊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념학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개인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11. 1(수 · 목반) / 11. 2(금 · 토반)
[수시개강] 매화역수 전문가 과정 / 명리학 전문가 과정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불교의식강좌(기초) (3개월과정) 회원모집
목탁과 요령은 불교의식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불구(佛具)입니다. 제반의식의 구성을 이해하고, 근본에 충실함을 배우고 익히며, 향후 법패 수행과 교화방편의 밑거름이 되는 정성스럽고 매우 특별한 강좌입니다.
◆ 목탁 요령 녹음기 들고 귀하게 오십시오!
- 이 염불이 잘 되면 짓과 북 염불이 잘 됩니다.
◆ 나이 존심 의심 지위 체면 팍 놓으세요!
- 발심 하십시오!!! 정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만족하실 것입니다!
- 꼭 필요하고 열심히 해보실 분만 오십시오.
◆ 부족한 부분은 같이 채워 가십시다!
□ 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 각단불공 영반시식 봉송
□ 상장례의식(시다림염불) 안택 고사
□ 천도재 점안 이운 신중작법
□ 법회(정기 특별 가정 방생)의 진행
□ (주요의식 경전) 우리말 진행 및 독송
◆대 상 : 스님 전법사 재가불자 등 (30명)
◆개강법회 : 2007.11.3 토요일 오전 11시
◆강 좌 : 당일부터 매주(토) 오후 2시 ~ 6시
(사전에 등록을 마치셔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농협 : 211040-56-152986 이형도(대경불음연)
◆상 담 ☎ 054)336-4475~6 / 010)4579-0408
☞ 경부선 영천IC → 첫 신호 좌측 → 공단 직진 막다른 농로 좌측 → 계속 직진 5분 우측 (동림한방병원)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307번지
교육원장 혜명 지운 지도법사 학인 원범
대경불교음악연구원 합장

효사 육임 복변집
▷ 250만원 ◁
온 시간, 전화한 시간으로만 판단 합니다.
정확합니다.
- 왜 왔는가?
- 어떤 정황인가?
-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가?
- 어떤 부정 빌미가 붙어 있는가?
- 누구의 산소에서 어떤 탈이 났는가?
- 시험 · 승진 · 당선 · 취직이 되는가?
- 부귀빈천
- 현재운세, 금년운세, 12년간 운세
- 1년 월별 신수
- 초사
- 육임 직지 요결
- 가정 사정
- 묻는 목적사 항목별답
- 각 일별, 시간별 길일, 길시, 길방
이상 모두 써져 있습니다.
육임나라(주)
02)993-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
농협은행 170338-56-155880 <김나영>

‘창조의 연꽃’ 에서 탄생하는 무수한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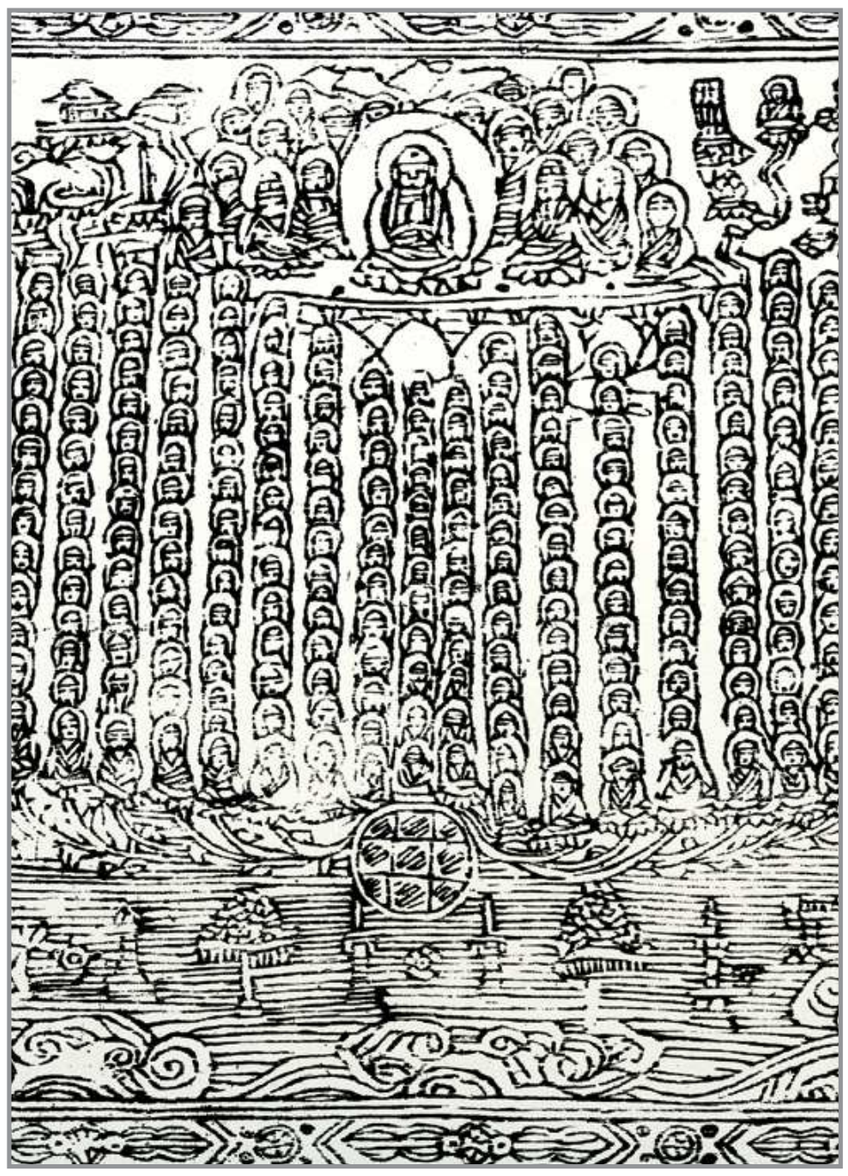


그림1:티끌 수처럼 많은 화불의 탄생, <화엄경>제9권변상 화장세계품(제5의 2)

불화 속의 명장면 (35)

연화장세계(상) : 해인사본 <팔십화엄경> 변상판화 -고려후기 목판본

우리는 매일 새벽, 수억 년 전부터 우주를 비추었을 그 태초의 태양빛을 맞는다. 세상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흐르는 강물, 푸르른 들판, 싱그러운 나뭇잎사귀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지상 모든 사람들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만물을 소생시키는 광명을 신격화한 것이 비로자나이다. 비로자나(Virocana)는 광명변조(光明遍照)란 뜻으로 세상에 두루 비치는 무량한 빛을 의미한다.

태양이 발산하는 강렬한 에네르기는 태초에 문명이 등장하면서부터, 즉 고대 이집트의 라(Ra), 고대 인도의 수리야, 그리스의 아폴론 등의 태양신으로 신격화되어 숭배되어져왔다. 대승 불교에서는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이러한 진리를 법신 비로자나로 표현한다. 태양빛이 세상의 천차만별한 만물에 차별 없이 가닿아 이들을 생장시키는 힘을, 각양각색의 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한한 혜택을 끊임없이 주는 비로자나의 가피력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로자나의 세계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로 일컬어진다. 과연 진리와 그것이 구현된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화엄경>에 나타난 연화장세계의 광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티끌 수만큼 많은 무수한 풍륜(風輪)이 층층이 떠받치고 있는 위에는 망망한 향수의 바다(香水海)가 출렁인다. 그 바다 가운데 한 송이의 커다란 연꽃(種種光明藥香幢)이 피어있는데 그 속에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 즉 연화장세계가 존재한다.

신비스러운 검푸른 일렁임 위로 투명하도록 맑고 청정한 연꽃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피어오른다. 이 거대한 연꽃 속에서는 연화장세계라는 별천지가 펼쳐진다. 연꽃을 피어올린 광활한 향수의 바다는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연지(蓮池) 또는 연못이 되는 것이다. 즉,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고 이 연못에서 대연화가 피어난 것이다. 물-연못-연꽃은 모두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결국 물과 연못(또는 바다)과 연꽃은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연화장세계 연원은 고대 신화 ‘마하라바타의 천지개벽설’

‘풍륜→물→연꽃→천지만물 생성’ 기본구조 불교와 유사

물은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물’인 것이다. 태초에 물이 생겨나니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연꽃은 만물의 창조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연꽃에서는 연화장세계가 다시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다. 구미권 저명 학자들은 이를 코스믹 로터스(Cosmic Lotus), ‘우주창조의 연꽃’이라고 이름붙이기도 했는데, 이 ‘연화장’에서 다시 우주에 존재하는 수억 수천 개의 세계가 태어나는 것이다. 연화장이란 산스크리트어 파드마가르바(padmagarbha)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모태,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핵심 개념이 진리의 법(法)에 비유되는데, 여기에서 법의 구름(法雲) · 법의 비(法雨) · 법의 바다(法海) 등 궁극적으로 물을 상징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파생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는 다산과 풍요, 다함에 없는 은혜와 자비로 그 뜻을 확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 바다의 밑을 바치고 있다는 바람의 수레바퀴, 풍륜은 무엇일까. 사전상의 의미로는 대지의 밑에 존재하는 공기층이라고 한다. 전 세계를 바치는 네 개의 큰 수레바퀴가 존재하는데, 그 최하가 허공륜(虛空輪)-그 위가 풍륜(風輪)-그 위가 수륜(水輪)-그 위가 금륜(金輪)이라고 한다. 풍륜을 따서 이름 지은 ‘풍륜삼매’란, 지혜가 허공 속 바람처럼 거침이 없어 만물을 뒤흔들고 일체 번뇌를 부수어버리는 경지를 일컫는다 한다. 이처럼 풍륜 밑에 허공륜이 있다는 사실 등에 근거해 보자면, 바람의 속성처럼 일체 만물의 속성, 말하자면 일체 만물의 법성(法性)은 ‘공(空)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차크라(Chakra)를 의미하는 수레바퀴(輪)의 상징성을 상기하면, 소용돌이처럼 돌고 도는 에너지의 중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음과 양이 맞물려 돌아가는 태초의 혼돈 상태, 태극이라고 불리는 천지개벽 이전 기체의 소용돌이가 연상되기도 한다.

연화장세계의 연원은 기원전 수세기경의 고대인도 신화인 마하바라타의 천지개벽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억겁의 세월 전에, 일체 모든 것이 공(空)인 상태일 때, 중생의 복덕인연의 힘으로 인해 시방에서 바람이 일고, 이 계속되는 바람이 커다란 물결을 일으켰다. 물 위에는 천개의 머리와 이천 개의 손과 발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이름 하여 비슈누(힌두교의 태양신)라 한다. 이 존재의 배꼽으로부터는 천개의 꽃잎이 달린 황금색 연꽃이 피어나는데, 그 빛은 매우 크고 눈부셔서 만일 동안을 족히 비추었다. 이 연꽃 가운데에서 결가부좌한 존재가 나오더니 그는 다시 무량한 광명을 발산한다. 이름 하여 범천(브라만)이라 한다. 그 심중으로부터 여덟 사람이 태어나고, 이 여덟 사람으로부터 천지 인간들이 모두 태어난다’라고 <잡비유경>에는 이 신화를 말하고 있다.

물론 불교에서 독자적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 광대무변한 연화장세계와는 스케일에서 좀 다르다고 하겠다. 세상의 티끌 수만큼 많은 향수해, 수억 겁 년의 공덕과 한량없는 광명, 낱낱 털구멍마다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억만 세계 등 끊임없이 나열되는 어마어마한 단위의 서사적 표현에는 미치지 않는 내용이지만, ‘풍륜→물→연꽃→천지만물의 생성’이라는 기본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연화장세계를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작품은 고려후기의 <화엄경> 판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해인사본<80화엄경목판본>의 변상도를 바탕으로 고려인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화장세계품(華藏世界品)’에 서두에 그려진 변상도에는 지권인의 수인을 한 비로자나불이 오른쪽에 앉아 있고(그림1) 그 왼쪽으로는 비로자나불의 원력으로 생겨난 연화장세계가 그려져 있다. 향수해 위에 둥근 바퀴와 같은 간략한 형태의 연꽃이 묘사되어 있고 거기에서 무수한 작은 부처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림2). 장면 옆의 문구에는 ‘中央香水海所持二十重廣大世界(중앙 향수해가 이십 중층의 광대한 세계를 품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 연화장세계를 수많은 형용사들의 나열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화장세계품의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게송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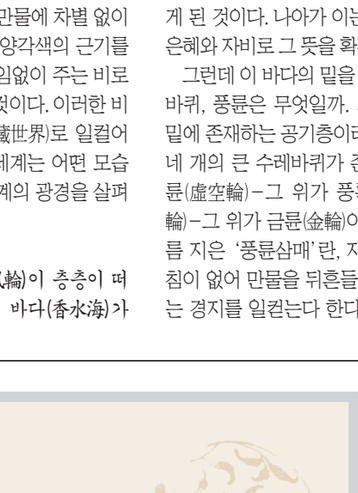
화장 장엄 세계에 있는 무수한 티끌/그 날날 티끌 가운데 법계를 보니/광명 속에 부처님이 구름 모이듯 하네/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부처님들 세계/넓고 큰 서원의 구름이 법계에 가득하니/한량없는 겁마다 중생을 교화하네/보현의 지혜와 행원이 다 성취되니/무수히 많은 장엄이 여기에서 나네

강소연(미술사학자 · 홍익대 겸임교수)



그림2:비로자나부처, <화엄경>제9권변상 화장세계품(제5의 2)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기 위하여 평촌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부처님 법이 곧 마음법이어서 생활하시는데 걸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속의 생활은 마음먹은데로 흘러 가지 않아 각종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한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서안은 부처님 법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마음편히 스님, 불자님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서안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변호사 강영화 · 김기현 · 김택선 합장

瑞安 법률사무소 서 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김택선 변호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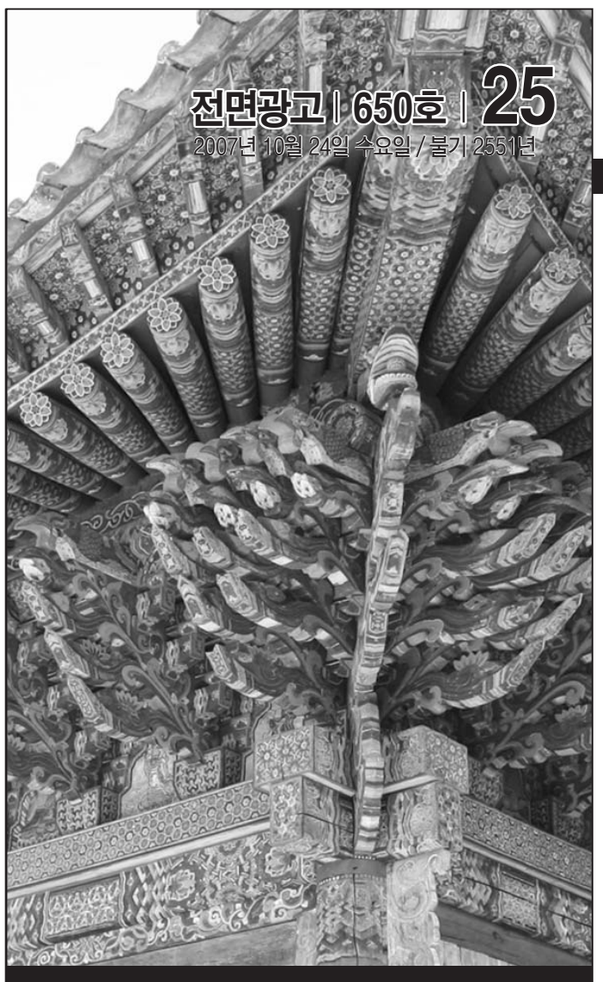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인천 부평(80년생)
● 부지 : 95평, 건물(신축) 4층
3층 법당(30평)
2층 주지스님 방 및 집무실(30평)
● 요사채 (30평),산신각 (15평)
아파트 및 빌라촌
● 가액 : 3억8천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마산
● 법당 : 40평
● 요사 :
● 부지 : 1,100평
● 가액 : 4억

● 위치 : 충남대전
● 법당 : 60평
● 요사 : 9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16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35평
● 명부전 : 25평
● 요사 : 7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시설최상급)
● 3층건물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후원 10평, 휴식공간 30평
● 보증금 3천만원.월30만원(전세만 가능함)
● 포교 11년차 됨.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3475-004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10평
● 법당 : 40평
● 요사 : 1,2층
● 창건 10년된 사찰
● 가액 : 3억 5천만원
017-531-2888

복지추모사업을 위한 "절"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대구에서 30여분
● 대지 약800평, 건평 약80평
(입 2천평 유입가능)
● 법당 25평, 방 9개, 주차장 약500평
● 요양원 및 추모(사리불 안치)
사업 진행중
● 동참 및 운영할 분 요망
● 인수가 : 2억1천만원
(9700만원 융자 안고)
017-501-231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 남천동
(중심지)
● 대지 : 80평
● 한옥 임법당 20평
● 요사채(슬라브)15평
● 가액 : 1억3천5백만원
(전세도 가능)
● 주인보살직접
010-9311-67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근교 (마산, 창원 15분 거리,
톨게이트 5분거리) 교통편리
● 대지 : 325평(텃밭 약200평)
● 법당 : 기와 목조 25평
● 부처님 모셔져 있음, 다실 있음
요사채(현대식 20평)
방2, 욕실, 입식부엌, 보일러실,
그 외 창고 및 신도용 화장실 약 10평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
● 가액 : 1억6천5백만원
055)586-3513

포교당 안내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 온양시내 중심가
● 특징 : 아파트 밀집지역2층 건물 2층
● 내년 3월부터 서울까지 지하철
운행(교통편리)
● 법당, 상담실, 스님방, 욕탕 구비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리모델링 시설비 : 1000만원
● 철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즉시법회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도심속의 포교원

● 위치 : 서울 신창동
● 2층 35평
● 시설 일체 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414-5601

도심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2층 양옥
● 대지 170평, 건평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7104-4849
010-4527-484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평수 : 약 35평
● 법당,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9816-9383

최고의시설,최적의환경

● 삼존불,탱화,약사여래불,탱화, 신중탱화
● 평수 : 80평(법당40평,마루),
방3개(주지실,사무실,주방)후원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경북 대구 바로옆 경산시 중심가,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시설비 3500만원, 월세 70만원
010-2051-6705
● 인수하지않고 운영해 보실 스님
● 같이 포교원 운영해 보실분
(포교원 운영에 자신있는 스님)
연락바랍니다

사찰(급)안내

● 위치 : 양산시 원동면
(배내골 입구)
불사한지 3개월 된 신축사찰
● 대지 : 약 100평
● 대웅전 약30평,요사채1,2층 20평
● 산세수려, 기도도량, 지하수 사용
연못 조경 완벽, 야외 산신각
● 스님 건강상 급 양도
저렴한 적정금액 매각
● 천연염색 체험장으로도 적합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9-245-8929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 평수 : 약50평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1-582-18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
(울진 불영계곡 가는길)
● 부지 550평
법당 목조 한옥 20평(단청필)
● 요사채 30평, 심야보일러
산신각 1동, 화장실 1동,
● 산세 좋고, 교통편리,주차 무한정
● 가액 : 2억7천만원
※꼭 필요한 분만 전화 요망
불 필요한 전화는 사절
010-7186-5570
054)673-6496

명당(터)안내

● 위치 : 고흥 남쪽 끝
한적한 바닷가
● 평수 : 총 550평(관리지역)
● 용도 : 암자, 토굴, 팬션, 별장지
● 특징 : 뒤쪽 산, 앞 바다,
2차선 도로접, 정남향
● 가액 : 총4800만원
061)835-4988
017-626-4988

포교원안내

● 위치 : 정릉4동 북한산 입구
● 평수 : 4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1-9281-5474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 시립박물관 옆
● 평수 :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9940-0312
010-2456-8630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시 평원동
● 평수 : 60평(2층)
● 내부 : 법당1, 큰방2, 작은방1, 주방1
마루(대형다용도실), 화장실2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지장보살)
영단있음, 에어컨(냉난방겸용)
강변주차장 무료이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스님 해외유학 관계로 급 양도함
011-9901-5000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영등포 시장 로타리
1호선, 5호선 역세권
대로변, 번화가 요지
● 4층건물중 4층
● 38평(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모셔져 있음.살림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4200만원
010-4474-444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중앙동
● 4층 건물중 3층, 건평 60평
● 내부시설 황토로 되어있고
전통 좌욕 쑥뜸시설완비, 삼존불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환자 치료하시는 스님이나
역학을 보시는 스님이면 최고입지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092-9972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경북권)
011-822-8000

처음 시작하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께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상가주택
2층 건물 중 1층 20평
● 법당1, 방2, 도시가스,욕실,
살림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세 26만원
시설비 250만원
● 보시는 분 요지, 현 운영중
010-6411-2882

암자 전세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 평수 : 3200평
● 요사채 50평, 산신각, 용궁
● 전세 5천만원
011-9918-5251

전통문화예술 포교원

● 위치 : 서울 구로 8700세대
APT단지
● 5층 : 280평 중 법당,
공양간 외 170평
세미나실, 공예문화원 110평
● 6층 : 원장 집무실, 요사채 70평
● 가액 : 2억 절충
● 강서 제일의 포교도량
011-9814-0278

청송 토굴 안내

● 국도접, 물흐르고
대지 370평
● 요사 32평, 법당 5평, 창고
● 가액 : 1억 3천만원
010-3131-653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 땅 1천평 중
종교용지 450평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바다가 잘 보이는 수행도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7109-6074
054)293-2074

토굴터 안내

● 위치 : 강릉시내에서 5분거리
● 평수 : 506평
(대지45평, 전461평)
● 대관령이 절앞에 경관수려
도로변 1분거리
● 가액 : 평당 13만원
●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017-430-1911

사 찰 안 내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평수 : 약250평
● 대웅전 25평, 삼성각 6평,
● 요사 30평,
주지실 종무소 6평
● 전세 4천만원, 월 30만원
055)674-5978
011-864-6696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 법당 : 3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9억(급양도)

● 위치 : 마산 근교
● 국유지 : 12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사찰(급)양도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 410여평, 하천부지 : 510여평(현재 사용중)
● 대웅전 : 목조단청(21평)
요사 : 한옥 기와 2채(32평)
● 경내 : 범종각, 8층 석탑, 약사여래석불,
관음석불, 산신 용왕단
● 특징 : 사찰역사 약 50년, 전문지관이
극찬한 천하명당
● 양도가 : 2억3천만원
010-6834-8868
사중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별장식 토굴안내

● 위치 : 춘천시 강촌근교
● 건물 : 한옥식 휴식공간
● 평수 : 130평
(종중땅:도지는 묘지벌초로 대체)
● 내용 : 건축물 등기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1206㎡, 임야 130㎡,
요사 198㎡, 대웅전 109㎡,
삼성각 30㎡, 7층 석탑
● 실 사용평수 약 600평 ●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보신 후 협의 요
011-9143-0098

포교당안내

● 위치 : 전남 광주시 월산동
● 대지 52평, 1, 2층 건물
● 가액 : 1억7천만원 (전세 7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602-9779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4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포교원안내

● 위치 : 노원구 상계역 부근(4호선)
● 평수 : 34평
● 2층 : 법당, 주지실, 3층 : 방3, 주방, 세면실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888-0130

불자정보 뒷면에 계속 ⇨

무리한 욕심 버리고 평소 컨디션 유지해야

●수능 D-22 막바지 전략

11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시험기간은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10월 17일 학부모와 수험생들을 위한 '2008학년도 입시생 학부모를 위한 학업성취 특강'을 열었다.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 평가이사가 강사로 나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능 직전 · 당일 · 직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짚었다.

이 이사는 "지금은 학부모와 학생 모두 '무욕(無慾)'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시험에 대한 의욕이나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무리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지금 학부모와 가족들은 수험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너를 믿는다'거나 '막바지 준비를 잘 하라'는 등의 사소한 말도 아이들은 부담으로 느끼므로 되도록 삼가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참선하듯' 아이를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속설을 믿거나 말하지 말고, 친척들 역시 시험 전날 혹은 당일 전화해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이 이사는 강조한다. 또한 지나치게 영양을 고려한 음식보다 평소 먹던 음식을 중심으로 과일 야채 등의 식물성 식품과 해조류, 견과류 등을 챙긴다.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 또한 무리하게 학습 목표를 잡지 말고, 시기별 학습 포인트에 따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무조건 학습 분량을 늘리기보다 자신의 성적에 맞춘 치밀한 학습 전략을 짜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표1 참조)

이 이사는 "수험 당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심환을 먹는 학생 중에는 약의 성분과 맞지 않아 시험 시간에 조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차분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은 입시 마무리 전략을, 학부모는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을 살필 때다. <사진제공= 소중한몸한의원>

<표1>

시기	학습포인트	공통
1단계 (10월 16~26일)	●오답노트 활용을 통한 취약 부분 집중 학습 ●기출 문제를 통한 수능 난이도와 경향 파악 및 맞춤 학습 ●교과서의 기본 개념 위주로 학습 ●기본 개념 정리를 위해 개념 요약 노트 작성	●밤잠은 5~6시간 이상 충분히 잘것 ●수능 날을 대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 기르기 ●아침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기르기 ●음식을 되도록 부담 가지 않는 것으로 적당량 먹는다
2단계 (10월 27~11월 6일)	●상위권 학생은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 집중 학습 ●중위권 학생은 취약 영역에서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집중 학습 ●하위권 학생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탐구영역 및 출제가 많이 되는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	
3단계 (11월 7~14일)	●주 2~3회씩 실제 수능과 같은 조건하에서 문제풀이 훈련을 해 문제풀이 시 속도 조절을 연습한다 ●쉬운 문제라도 실수로 인한 오답을 줄이기 위해 연습한다	
수능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명상을 통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차분히 떠올려보기	



'心想事成'…부자는 마음이 만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투자는 아무나 하나, 유식(唯識)으로 하는 투자학' 강좌를 개최한다. 투자전문가 우승택(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씨의 투자 강좌 내용을 요약 • 정리했다.

서점에 재테크와 부(富)의 마인드에 관한 책은 넘쳐나도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일까? 책들은 10억을 가진 자신의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주문한다. 내 증권통장의 잔고를 상상하고 목표를 정해두면 그렇게 실현된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미지를 그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10억을 벌 수 있다는 사실도, 이미지를 그림으로써 10억을 버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생각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법성게> 중에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르고 자성이 없다(不守自性隨緣成)'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 따라 성공하고 사람 따라 망하므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 사건은 인연에 따라 생기며 자성이 없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때문에 인연법을 알고 인연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주식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은 모두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면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돈은 군중의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 심리 즉 마음은 언어로 설명될 수 없고 유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숫자는 오직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정이 개입돼 그릇된 결과를 낳는다. 일례로 사람들은 자동차나 노트북 같은 것은 할부로 구입하지만, 여행은 가기 전에 미리 돈을 낸다. 여행을 다녀와서 돈을 지불해도 되는 것인데, 여행을 가기 전 그 즐거운 마음을 즐기기 위해 미리 돈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을 '심리회계'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숫자에 감정을 담아 평가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부자는 숫자, 즉 '일반회계'로 모든 것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내 몸도 떨어져서 보고 내 돈도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펀드나 주식에 투자할 때도 감정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번다. 다음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투자 철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02)735-2428

정리=조동섭 기자



6. 수험생 건강 지압법

휴식·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에 큰 효과
지압횟수는 12→24→36회로 늘려가야

대입수능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능일이 가까워질수록 수험생은 불안하고 초조하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시험 성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심신의 피로가 가중된다. 거기에 건강까지 상하게 된다면 마무리 공부는 물론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규칙적인 식사'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은 하루 세끼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힘들다. 그러나 마무리 공부에 필요한 적정 에너지를 내고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식사를 통해 적당한 열량을 섭취하여, 두뇌와 적혈구의 영양 공급 원인 탄수화물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을 포함해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하며 식사량은 포만감이 들기 전 4/5~3/4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인 수육, 삶은 계란 등이 좋다.

규칙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수험생은 두뇌활동에 도움 되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뇌세포에 활력을 주고 기억력, 운동과 감각기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레시틴을 섭취하기 위해서 콩 두부 된장 청국장 호두 잣 등이 효과적이다. 또한 김, 다시마, 미역, 생선을 먹어 사고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단백질도 섭취해야 한다.

수험생은 보리, 현미, 메밀 등을 먹어 뇌 신경세포 활동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당질을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기억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토마토, 당근, 오렌지, 레몬 등도 많이 먹도록 한다.

평소 생활을 할 때에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휴식을 취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두뇌 역시 신체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휴식이 필요하다. 1시간 공부한 후 5~10분씩 휴식을 취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방이나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 틈나는 대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다. 실내 공기가 탁할 경우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 활동이 둔화되기 쉽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휴식시간에 복식호흡을 해 폐 깊숙이 산소를 마시며 내장의 기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생활 속에서 간단한 지압법이 도움이 된다. 지압을 할 때에는 지압부위가 뻐근하게 느껴지도록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지압의 횟수는 12→24→36회로 늘리도록 한다.

▲머리가 아플 때: 정수리에서 상하좌우로 2cm 정도 떨어진 네 부분을 눌러준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 된다. 머리가 무겁고 자주 졸리면 발바닥 중앙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누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에는 왼발과 오른발을 교대로 해준다.

▲눈이 피로할 때: 눈을 감은 뒤 눈썹 사이, 눈썹 바깥쪽, 눈동자 아래 2cm 지점의 움푹 파인 곳을 눌러준다. 지압이 끝나면 바로 눈을 뜨지 말고 10초 정도 후 서서히 뜨도록 한다.

▲목이 뻣뻣할 때: 뒷목 중앙과 양옆의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누른다. 지압이 끝나면 목을 가볍게 좌우로 돌려주도록 한다.

▲배가 아플 때: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준다. 체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올 때도 좋다.

생활 속의 식습관 조절과 지압요법 등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일까지 수험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불자정보 650호

▷접수처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300만원
017-393-1127

사찰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서
● 평수 : 대지 850평, 법당 35평
● 삼존불, 단청
● 가액 : 17억
● 대구시내 전지역 2억5천~20억까지
● 사찰전문안내
053)558-8989
019-534-723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에서 3분거리, 고산유적지 부근)
● 총 670평, 법당 17평 한옥(내부 5평 임법당),요사채 24평 (자연노천식 산신 용궁 스레트 지붕), 컨테이너 7평 1동 외부 화장실 유, 마당 잔디밭 200평, 주차장 별도 유(평수 포함 안됨)
● 가액 : 1억8천
011-772-478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덕포동
● 4층건물 중 2층
● 45평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보증금 2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300만원
●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011-9545-26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동
● 평수 40평, 2층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00만원
● 현재 운영중
010-8839-1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200년된 목조법당 13평
●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40평
● 스님사정에 의해 집기일체양도
●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 사찰입구까지 차량진입
● 가액 : 9천5백만원
054)654-6539
011-881-9064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부근 (동묘역 앞)
● 평수 30평, 3층건물 2층 법당1, 방2, 보일러 및 주방 시설 완비
● 현재 포교원으로 사용중이나 일반 점포로도 사용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100만원)
011-310-0361
02)2236-036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시흥시 정왕동 최고중심지 상권
● 시설완비
● 법당, 주방, 방2
●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전세 4500만원 가액 1억원
010-4527-4849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물금역에서 5분거리
● 76평, 80평 대지 각각 두 세대 주택 개조
● 법당, 방2개
● 전망좋음, 넓은 작업실 겸함 작업하시는 분 적극 추천함
● 가액 : 1억3천5백만원
011-9324-4732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74-7외 4건
● 가액 : 1억2천만원(절충가능)
● 포장도로 접함, 토목 석축 완료
● 풍수적 최고의 명당터
011-9837-8668
061)362-9863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 470평
● 법당 30평, 산신각 2평, 요사채 30평, 10평
● 심야전기, 조경이 되어있고 앞에는 계곡
● 가액 : 3억원
016-274-3170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주문진읍 바닷가 3분거리
● 해수욕장, 해상공원 인접, 대지 : 74평, 건평 25평
● 주차가능 텃밭있음, 삼존불 소불 108불 모셔져 있음
● 시설비 일체 2,300만원
011-402-1669

천하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읍내
● 대지 : 300평
● 건평 : 2동 80평
● 준농지(관리지역) : 2000평
● 가액 : 4억7천만원
017-531-2888

도심포교 사찰
(사정상 급 안내)
● 위치 : 청주시 주산인 우암산 중턱 (청주시 중심권 10분거리)
● 대지 : 53평
● 건평 : 대지 전체 건물축조 (2005년 리모델링 건축함)
1층 : 전통 흙벽돌 및 목조건축 53평
2층 : 준 2층이며 목조 및 캐노피 발코니 건축 25평
● 특징 : 쾌적한 환경 및 시내조망권 최상 현재 포교활동 및 사찰운영 재정상태 원활함 도심포교와 연계하여 공동체마을 운영
● 가액 : 2억7천만원(시설비 일체 포함, 융자 5천만원 승계가능)
016-401-6254

임법당 주택안내
● 위치 : 부산 구포동 구포시장 위
● 대지 : 40평
1층 슬라브 30평(법당 15평)
2층 신축법당 허가 有
● 8m 도로 주택지 사거리 코너 향후 재개발 예정지
● 가액 : 1억5천5백만원
010-2563-555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화남면
● 대지 : 140평
● 임법당 : 20평
● 요사채, 방4, 주방1 노천 관음자상
● 가액 : 5천2백만원
011-9390-9530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병촌
● 부지 : 780평, 요사채 40평
● 대웅전 18평, 지상전 20평
● 공사 70%완성 진행중
● 가액 : 4억원
011-339-1946
011-294-849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2동
● 평수 : 45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1천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5730-5567

토 굴 안 내
● 위치 : 해운대 기장
● 대지 : 56평
● 건평 : 20평
● 즉시 입주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018-561-5364

일반주택(임법당)안내
● 위치 : 진주시내에서 의령방향으로 10분이내
● 대지 : 200평
● 집 두채(한채는 창고 겸함) 방 3개 : 임법당1, 방2
● 가액 : 적정금액 양도
017-587-7193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영산대 교수

대통령 '깜'을 보는 혜안

고승 탄허(呑虛) 스님이 당시 선우휘 조선일보 주필과의 대담에서 최고지도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스님에 의하면 인류 전체의 10%는 극선질(極善質)이고 다음 10%는 극악질(極惡質)이며, 80%의 평범한 사람들은 극선질과 극악질 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최고의 영도자가 되면 거기에 수반된 10%의 극선질(極善質)이 등용되어 10%의 극악질(極惡質)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이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최고의 영도자가 될 때에는 거기에 수반된 10%의 극악질(極惡質)이 등용되는데 평범한 사람은 누가 집권해도 그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영도자로서 백성에게 명령하는 바와 영도자 자신이 좋아하는 바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전체가 바뀌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레이스 돌입을 보면서 불자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현재 대선판도는 우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을 바꾸느냐 아니면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지난 10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세력에게 계속 나라를 맡기느냐 하는 선택으로 집약될 것이다. 종교는 최선을 추구하지만 정치적 지혜는 현실 가능한 것을 추구한다. 현실에서 최선을 얻기가 어려우면 차선을 선택하며 차선도 없을 때는 차악(次惡) 즉 덜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보자 중에서 아무도 고를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서 최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이며 정치적 지혜일 것이다.

대선레이스가 진행되면서 후보 간에는 상대방의 흠집을 들추어내려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검증절차는 필요하겠지만 공당(公堂)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까지 되었다면 결정적인 흠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을 부정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도 망치게 된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대선경쟁에서 네거티브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선은 상대방 후보의 흠집 내기 경쟁보다는 당연히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성장을 중시하느냐 분배를 중시하느냐 △민족공조냐 국제협조냐 △이념이냐 실용이냐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경제가 성장되고 분배도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분배에 중점을 두는 쪽에서는 골고루 나누어 주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다. 또한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지원과 유화정책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 것이다. 국제협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북핵문제 등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상응한 변화가 있을 때에만 대규모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한쪽에서는 대선을 평화세력과 전쟁불사 세력과의 대결이라든가 민족이냐 외세의 존이냐 등의 이념적 용어로 선거판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누가 더 국민을 잘 살게 할 것인지를 경쟁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그가 이끄는 10%의 세력과 정책도 함께 선택하는 셈이다. 화려한 말솜씨와 실현성 없는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에 중생을 구제하실 미륵불은 불교의 이상적 통치자인 전륜성왕의 치세에 출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 곳에 부처님도 출현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후보가 이 땅에 보다 좋은 정치, 밝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불자들은 신중히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다.

'종교자유' 칼럼 32. 군(軍) 종교편향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갈등으로 인한 군 내 인권침해·사기저하 없어야"

2004년 한 예비역 군종장교가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군대 내에서의 기도 강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로 그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공식회의를 주재하는 지휘관이나 공식행사에 초대된 군종참모인 성직자가 특정종교의 기도를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군대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다. 아직도 지휘관의 종교가 문제가 되는 후진적 군대라는 아쉬움과 함께 군 내부의 문제를 일간지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만큼 어느새 언론의 자유가 많이 신장되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다. 다행히도 그 기사가 나간 후 군에서 바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전군에게 종교적 강제성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 후 지휘관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해진다.

상명하복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공공조직이라는 군의 생리상 사병이나 계급상 하급자가 상급 지휘관의 지시를 거역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종교 강요에 대해 불쾌하면서도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충분히 이해된다. 반대로 바로 그 특이한 조직 생리 때문에 다른 여느 분야보다도 개선 조치도 속도감 있게 처리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군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것이다.



2003년 4월 종교편향적 대처에 항의해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김태복 장군.

지휘관으로서보다 특정종교 신자로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장교들이 가끔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다. 오래된 얘기지만, 개고기 파티를 연 후 못 먹겠다는 불자 참모들에게 개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엄포(?)를 놓았던 장군도 있었다니, 계급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 군대 사회에서 하급자들이 얼마나 난처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전도사라면 모를까 군 지휘관이나 공직자로서는 적합한 인물일 수 없다.

군의 최종목표는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항상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휘관들도 당연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병사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특히 종교인권은 인간의 소중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종교적 취향이나 종교차별적 언행으로 인해 병사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는 군조직의 사기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며 그것은 곧 이적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종교문제 발생 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함은 물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평소 모든 지휘관들이 종교인권에 대한 각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영삼 장로 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교 관련하여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 기독교 집회에 국가예비군을 강제로 동원해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육군 제17사단 전차부대(대대장 조병식 중령)에서 법당을 철거하고 불상을 파괴하여 화형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초파일에는 특전사(부대장 박희만 대령, 예편 후 목사)에서 법당 주위에 오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해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 국방부장관이 사과하는 등 크고 작은 종교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에서 종교편향이 유독 심했던 것은 대통령의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진군대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휘관 개개인의 리더십 못지않게 인사 · 시설 등의 군종정책도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종교중립적인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현재 군종장교 숫자는 군목사 265명, 군신부 82명, 군법사 140명으로 기독교계가 불교계의 2.5배나 된다.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종교시설의 비율도 이와 유사하다. 종교간 형평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종교간 균형을 맞추는 데는 미흡하다. 군종장교의 해외파병에서도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는 늘 소외되어 왔다. 군법사는 초기 이라크전을 포함해 동티모르 · 소말리아 내전 등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때마다 제외되었다가 불교계의 항의로 이라크 파병 2차 때부터 겨우 포함될 수 있었다. 수년 전 국방부에서 군종장교들의 상담업무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펴낸 '선도활동'이란 책자도 기독교적 색채가 짙게 풍기도록 편집되어 있어 말썽이 되었는데, 책을 펴낸 편집위원 10명 전원이 군목사로 구성되어 불교와 천주교를 배제한 의혹마저 사기도 했다.

다종교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인권과 종교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때 국력은 극대화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불자의 눈

'참회와 자정' 活句를 외쳐라

"여기 모인 대중(大衆)은 역순(逆順)을 자제하는 기틀로 곧은 것과 굽은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시방(十方)의 종지(宗旨)가 한 곳으로 모일 것이요, 정(正)과 사(邪)의 시비(是非)가 원융(圓融)을 이룰 것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10월 19일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에서 내린 법어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날 기념법회는 1947년 시작된 봉암사의 결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이날 결사정신의 계승 결의는 최근 조계종에 불어 닥친 '위기의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참회와 자정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조계종의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최근 MBC 'PD수첩'은 선거제도가 종단 부패의 중요한 원인이라 지적하며 공주 마곡사와 제주 관음사의 사태들을 집중 보도했다. 동국대에서 비롯된 신정아 사건의 이면에도 조계종의 계파갈등과 종립학교 관리에 대한 종단적 능력 부족이 매우 염려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말하자면 조계종은 지금, 정신과 제도가 모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위기가 반드시 패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이 희망의 길을 여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그 전환점을 적기에 만들어 내는 지혜와 힘이 있다면 위기는 약이 될 수 있다. 조계종이 봉암사에서 그 약을 처방했다고 보여 진다.

'참회와 자정결의'라는 두 축이 향후 조계종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정신에 입각한 청정교단으로 거듭나는 힘이 될 것을 믿는다. 봉암사에 모인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들어 실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참회했다.

또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을 준 것도 참회했고 소임을 맡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이해와 아집으로 일을 그르쳤음도 깊이 참회했다.

이렇게 모두 10가지의 항목을 낱낱이 인정하고 참회한 만큼, 이제 조계종은 새로운 종단 비전 설정과 무한한 노력의 경주를 과제로 남겨 둔 셈이다. 한 번의 법회를 통해 모든 것이 참회되진 않는다. 한 번의 참회를 통해 모든 죄업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죄업은 그 죄업의 근원을 끊고 정신과 제도와 시스템이 모두 새로워질 때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다. 하루속히 '역순을 자제하는 기틀'로 '종지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종도들이 결속하여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계종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거시적 안목으로 조정해야 한다. 조계종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참회와 자정이라는 외침과 결의는 한 편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사구는 필요 없다. 활활발발한 활구만이 사람을 살리고 중생계의 복전이 될 수 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정을 결의하는 그 마음으로 종단을 낱낱이 해부하고 병마가 깃든 곳에 확실한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약을 쓸 곳엔 약을 써야 한다. 이해관계와 탐욕에 집착하면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봉암사의 결사정신, 공주규약 등이 청정 교단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을 때 조계종은 중생들의 따뜻한 귀의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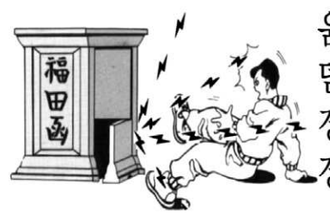
"현대불교 창간 1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박봉식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신도일동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소백산 무량사 人蔘
홍삼액기스
시중의 상품과는 차별화 했습니다.
순수 지방 국내산 6년근 인삼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공했습니다.
드셔보시고 효능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90ml×60포(식약청 검사품) 18만원
오가피 액기스 10만원
토종 마(20kg) 10만원
전화 주십시오.
※판매 수익금은 일체 미타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현대과학에서 본 인삼의 효능, 효과
인삼을 신비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와 병의 회복 촉진에 놀라운 효험을 발휘하는 효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대표적 효능으로는 신체조절기능의 향상성 유지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에 근거하여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작용, 항당뇨 작용, 혈압조절 작용, 항암작용, 동맥경화 및 고혈압의 예방, 두뇌기능 강화, 위장기능 강화, 면역기능 증강, 항바이러스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기도도량 무 량 사
문의전화 054-631-9974
※농협계좌 751019-51-095001 예금주 : 무량사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 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 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개강일 : 2007년 11월 12일 오후 3시 〈주2회 월 · 목〉
◆수강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주2회)
◆장 소 :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내 406호 (불음원)
◆과 목 :
기초반 – 예경의식 및 사시불공 등
중급반 – 사십구재의식 및 사물 다루는 법
고급반 – 바라 및 승무 작법
◆강 사 : 원명스님 〈011-867-8419〉
영 남 범 패 불 음 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문의 : 02-2004-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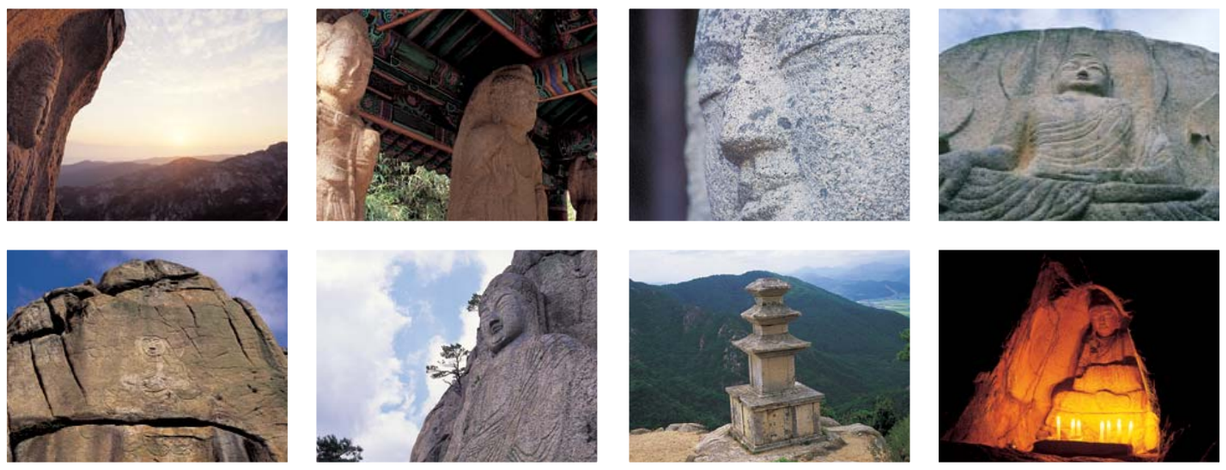
희상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하나로 돌아가기
작품 : 희상 스님_ 크기 : 30.5 × 30.5

현대불교신문 새로운2008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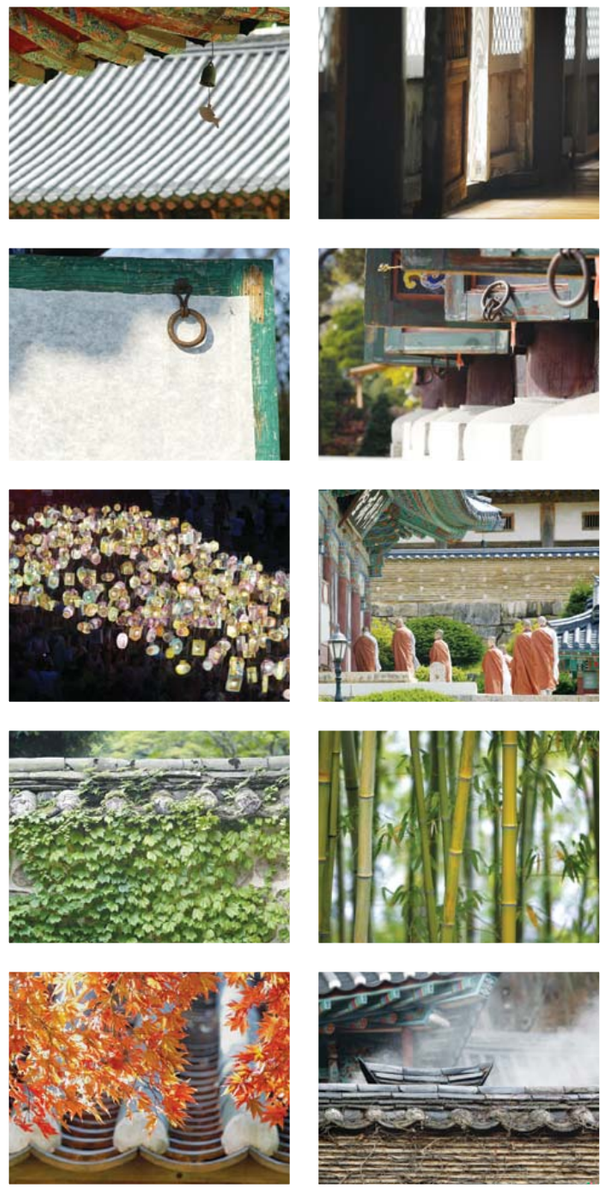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NEW CALENDAR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독자적으로 불기 2552년 (2008) 무자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 제작한 달력으로 한층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국정토 남산 사진 : 고영배 기자_ 크기 : 26.5 × 26.5



절의 미학 사진 : 박재완 기자_ 크기 : 26.5 ×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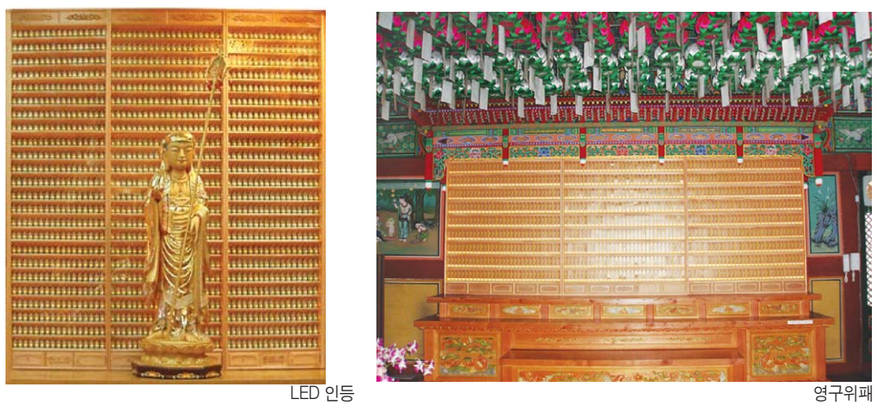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LED 인등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